

#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

(4일차)

일시: 2013. 8. 23. (金) 09:00~19:00

장소: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층 대강당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속기사 차혜진, 한수라

## ○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 4일차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국제납북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포로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바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증언을 해주실 첫 번째 선생님께서 와계십니다. 최성용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성용 선생님께서는 성함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심을 이미 사무국 쪽과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라든지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본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여쭙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이 진실일 것을 저에게 약속해주실 수 있습니까?

## ○ 최성용

예. 약속, 진실입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선 아버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버님이신 최원모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최원모 선생님께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제 실종이 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 아버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바에 따르면 어떻게 아버님이 실종이 되게 되셨고 그 때 상황이 어땠고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쪽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최성용

저는 평북 정주군 갈산면 번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10년생이시고요. 6. 25때 UN군 사령부 소속 맥아더 퀘로부대 출신으로서 공산주의를 무찌르기 위해서 북한에서 첩보원 활동을 하시면서 그것이 최근의 인정에 돼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



으로 무공훈장을 아버님한테 수여를 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67년 6월 5일 전쟁이 끝나고 어로작업, 소위 말하면 선박사업을 하던 중 배가 3척이 있었는데 선원 한 사람이 비어서 인천에서 아버님이 대신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연평도 근해에서 총격을 받고 우리 배 재산인 풍복호하고 같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장소는 해주고 저는 그때 당시 15살입니다. 근데 북한은 아버님을 조사하는 과정에 캘로출신 6. 25 UN군 사령부 소속 전적이 드러나서 새벽에 어디론가 끌려갔고, 선원 중에 8명 중에 5명은 풍복호가 아닌 우리 배가 아닌 다른 배로 3개월 만에 고국의 땅에 귀환을 했고요. 저희 부친하고 남은 3명은 한 사람은 양모 씨는 70년도에 간첩으로 침투를 했고요. 문경식이라는 학생은 아직도 평양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은 UN군사령부에 북한에 대한 반역사실이 드러나서 인민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북한은 자기한테 반역한 서로들은 재산도 뺏습니다. 그래서 선박도 안 보내줬고요. 저희 부친은 그 간첩이 내려와서 저하고 2002년도에 만났습니다. 납북자 활동을 할 때 만나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최원모 선생님께서는 70년도에 사라졌다. 소위 말하면 처형당했다, 인민재판이 회부되었다. 이런 얘기를 어머님하고 저한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 상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UN에다 보낸 정부납북자관리카드를 처음으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카드에는 국정원에서 문서를 작성했지만 거기의 내용상에

보면 아버님이 북한군들 많이 살해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강제역류 되었다는 게 정부의 문서상의 현재상황이고 저희 부친은 어머님이,

### ○ 마르주키 다루스만

네, 선생님 조금 명확히 밝힌 부분이 있는데 아버님께서요. UN 사령부에 계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군인이셨나요? 육군이셨나요? 해군이셨나요? 그리고 혹시 항일투쟁도 하셨나요? 어떻게 그 UN 사령부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 최성용

북한에는 일본군들이 8. 15해방 때 물러나고 나서 젊은 청년들이 치안을 조직하기 위해서 치안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정주군에서 치안대장을 하시면서 공산군과 그때는 좌우대립이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니까 우리나라는 전차도 몇 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맥아더 극동군사령부에서 북한출신들로 구성된 특수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캘로, 소위 말하는 극동군사령부 8240부대 군번 없는 군인들입니다. 그분들을 미군에서 교육시켜서 북한에 침투시켜서 미군들 구출하고 민간인들 구출하고 중공군과 북한군을 백령도로 압송하는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아버님은.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 소속이었나요? 아니면 육군 소속이었나요? 한국전쟁 당시에 정확하게 그 분이 속한 곳이 어디였나요?

○ 최성용

저희는 이번에 7월 1일 날 한국군특수전사령부 거기는 육군소속입니다. 한국군특수전사령부에서 저희 부친 무공훈장을 수여했듯이 저는 육군이라고 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 육군 말씀하시는 거죠?

○ 최성용

그렇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또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그 첩자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북한에서 첩자활동을 하신 거죠?

○ 최성용

2,400명의 대원을 조직해서 백령도에 사령부를 두고 대마도에 사령부를 뒀서 지금 소위 말하는 NLL 그 윗 지방을 전부 우리 아버님 부대들

이 점령해서 미군하고 같이 공동합동작전을 한 부대가 켈로 미국 극동군사령부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정찰활동이시네요?

○ 최성용

직책은 무공훈장 증서에 UN군 소속 전8240부대 선박대장 최원모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아버님께서 납북되셨을 때 같이 가셨던 어부들이 5명이셨던가요? 4분이셨는가요?

○ 최성용

(마이크 이상으로 청취불능).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아버님께서 북한으로 끌려가셨는데 아버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로 해서 그 작전이 북한 쪽에서 수행이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잡혔는데 잡힌 사람 중에 아버님이 계신 거였는지?

○ 최성용

뒤쪽으로 우연히 어로작업 중이었으니까요.

우연히 잡혀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아버님 전적이, 경력이 나온 걸로.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때 다섯 분의 어부께서는 돌아오셨지요? 그리고 선박 하나는 돌려줬지만 가지고 계셨던 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압수가 된 거죠?

○ **최성용**

그렇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아버님께서 북한으로 납북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가족은 몇 명이셨고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실종된 후에 가정에는 어떤 영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용**

정부가 환영을 해 주고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표시를 했는데 김신조 사건 뒤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을 전부 몽땅 방공법 위반으로 구속 내지,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못된 연좌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해외여행도 못 가고 공무원임용도 안 되고 오히려 납치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다시 한 번 못 살게 구는 그런 행태를 정부가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왜 그랬지요? 왜냐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UN 사령부에서 오히려 북한에 대항에서 싸웠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 **최성용**

저는 가족 대변을 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그런 실상을 겪었는데요. 사실은 저희 집은 약간의 정부나 기관이나 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공무원임용이나 신원조회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똑같이 우리 가족들 전체 똑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아버지를 납북자 중에 최초로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셨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최초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무궁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메달 받은 게 언제인가요.

○ **최성용**

10월 1일에 수여식을 한국군 특전 사령부가,

○ **마이클 커비**

몇 년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 최성용

2013년입니다.

○ 마이클 커비

납북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납북가족연합을 구성하셨지요?

○ 최성용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정확하게 언제 그런 단체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연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성용

2000년 2월에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왜 그 단체를 설립하게 됐지요? 설립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최성용

저는 돌아가신 저의 모친이 “아버님 유해를 찾아와라.” 그때 당시 비전향장기수들을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이라고 하면서 3조에 비전향장기수를 보내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

군포로나 납북자를 데려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전향장기수 보내주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보고 “중국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아버지님 유해를 모셔 와라.” 그런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북한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해서 이 납북자 운동을 우리 피해자 입장으로만 구성된

○ 마이클 커비

그러니까 남한으로 아버님의 유해를 가지고 오고 싶으셨던 거지요?

○ 최성용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버님의 유해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북한에 있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나요?

○ 최성용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문의는 해 보셨나요? 아까 2000년도엔가 어떤 첩자를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그 분이 1970년도에 아버지께서 아침에 어디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신 것 같다고 어머니하고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께서는 아버님이 어디에 계신

지 얘기는 안 해 주셨나요?

○ 최성용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아버님의 유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될까요?

○ 최성용

저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또 국민에 알려주려고 납북자들을 북한에서 탈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보원을 두고 저의 부친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같이 알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납북자가 여덟 명이 탈출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곱 분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서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현재 한 명이 더 들어오면 아홉 명입니다. 저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모든 납북자의 소식과, 특히 국군포로도 제가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오면서 오로지 한편으로는 저의 부친 유해가 어디에 파묻혔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불행히 아버님 유해가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침투시켜 아버님 유해있는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조직원들이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소식을 받아오면 저는 무조건

탈출시키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가족협의회에 지금 등록된 가족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북한으로 납북된 한국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 최성용

정부가 2010. 10.에 공식 발표한 납북자는 517명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납북자 가족들은 1,200명입니다.

○ 마이클 커비

납북자의 수가 몇 명이었나요?

○ 최성용

517명.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일곱 분을 다시 데리고 왔고 그래서 여덟 명이 모두 되 돌아 온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살아서 돌아오신 것인지, 아니면 유해를 모시고 오신 것이지요.

○ 최성용

전부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분들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왜 못 돌아오신 건가요?

○ 최성용

한 사람을 탈출시키려면 수많은 가족과 북한의 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도 우리 정부한테 납북자가 없다고 합니다. 2002년까지 동시에 일본한테도 납북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을 데려다가 제가 공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공개를 과거 정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북한에 눈치를 보느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대표인 내가 북한에 납북자가 없다고 한 북한 애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면 안 된다.

○ 마이클 커비

왜 한국의 정부는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최성용

오로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2000년도부터 대통령이 되면 정상회담이나 욕심을 내고 내 나라 국민 납북자 국군포로를 구해올 생각은 없고 북한 눈치를 봤기 때문에 탈출 과정을 세세히 언론에 국민한테 공개하는 것을 계속 막고 방해해왔

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눈치 보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지만 한국의 언론이 이 사실을 대신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최성용

그 공개하는 부분을 정부가 불편해하면서 될 수 있으면 공개를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일본하고 판판입니다.

○ 마이클 커비

왜 판판일까요? 선생님께서는 왜 이것이 판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최성용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자국민보호, 대통령이 선서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만 그렇게 납치된 사람 국군포로에 대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조용히 조용히 하자고 해서 지금 국군포로 납북자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위정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언론들이 “국군포로가 500명이 남았다.” 납북자가 이런 것은 큰 오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셔서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몇 사람뿐 없을 것입니다.

### ○ 마이클 커비

한국의 군사독재시절 선생님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아주 많은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 ○ 최성용

저도 얘기를 하지만 저희 아버님 전직 때문에 감시는 우리 집은 안 받았고요.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법제들에 대해서 감시를 받았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렇지만 선생님의 가족은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았나요? 한국의 정부가 선생님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나요? 감시를 했습니까?

### ○ 최성용

지금 현재도 우리 납북자 가족들은 검·판사나 이런 데는 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 이유는 어쩌면 납북자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그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가요?

### ○ 최성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신조 사건 나고 68년도부터 우리 납북자뿐만이 아니고 북한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북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좌제에 해당하는 그런 옥쇄에 갇히게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해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데 아직 법적으로 정부가 아주 다 풀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한 국가의 대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최성용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 납북자가족들에 대한 법 제정도 저희 가족들의 요구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가족들을 납치피해자로 보는 것인지,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정부는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왜 귀찮은 존재로 보일 수 있는 걸까요?

### ○ 최성용

오늘 또 이산가족 상봉회담을 합니다. 그 자

리에서 과연 오늘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납북자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저는 납북자에 대한 상봉이나 송환을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가 대단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상 회담장에 나가서 우리 당국자들이 북한 당국자들한테 납북자 '생사확인을 하자.' 이렇게 못하고 이상한 표현으로 전쟁 후에 헤어진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노무현 정부 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한테는 납북자 얘기도 못 꺼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면서 15살 때 잃어버린 아버지, 제가 62세입니다. 어느 때나 아버지의 생사확인을 들을까 한심하고, 아직까지 우리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세 달 이후에 다섯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님은 비자발적으로 억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선원 분들이 비자발적으로 억류되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았는지 그 사실을 알았나요?

○ **최성용**

저희 부친은 선박 세 척을 소유한 선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나이가 54세인가 이렇게 됐었고요. 저희 부친이 거기에 남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저는 지금도 아버님의 6. 25때의

노력이 자랑스럽지만, 굳이 북한 애들한테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삿날이라도, 외국문화는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납북자 가족들, 모든 이복에 대해서 피해된 가족들은 음력 9월 9일을 선택해서 제삿날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가족 협의회에 속해 있는 다른 납북자 가족들도 선생님과 같은 입장인지요?

○ **최성용**

예. 저는 2000년도에 단체를 만들어서 쪽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진전이 이름과 동시에 또 자기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서 제 곁을 떠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향은 어떠신지 몰라도 우리 납북자 모임회원 분들의 생각은 저와 일치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께서서는 다른 납북자들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른 납북자들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할 여력이 있으신지요?

○ **최성용**

지금 아셔야 될 것은 2000년도만 해도 납보고자나 국군 포로들이 탈출할 때 같이 뛰고, 같이



걸어 나오고, 같이 숨어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전부 나이가 많으셔서 업고 나오기도 힘들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끌어서는 모두 사망한 다음에 북한하고 협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께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북한의 생존하고 있는 납북자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나 아직도 생존해있을까요?

### ○ 최성용

저는 한 200명 정도, 조금 많으시면 250명 정도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 사람의 납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납북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방북했을 당시에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국 납북자들 있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은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이 있는지요?

### ○ 최성용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일본의 유명한 요꼬다

메구미의 남편 김영남입니다. 요꼬다메구미하고 같이 결혼해서 태어난 김혜경입니다. 2002년까지 일본도 마찬가지로 납북자가 북한에는 없다고 일본에는 공식통보를 했습니다. 우리하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한테 김정일이 가깝듯이 납치사실을 시인하면서 고국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시작한 것은 오로지 일본이 수교조건으로 100억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김정일이 굴복을 한 것입니다. 저는 2004년 북한 정보원한테 요꼬다메구미의 남편이 우리 고등학생이라는 학생이라는 소식을 듣고 언론에 제가 최초로 요꼬다메구미의 남편이 한국납북자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일본 정부와 저는 비밀리에 학생가족 5명과 DNA를 제가 같이 해서 지금 아베 수상이 관방장관 할 때 저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DNA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김영남입니다. 그때까지 일본은 영남이에 대한 실체를 김철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양당국이 저희 김철준, 김영남 가족과 기자회견하고 일본정부와 합동으로 하니까 북한당국이 고백을 했습니다. 김철준이는 김영남이다. 김은경이는 혜경이다. 이렇게 해서 금강산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여행에서 잡혀갔습니다. 북한은 수학여행에서 잡혀간 이 김영남이, 테러범이 지금 김광현 제일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테러범이 한국에 와서 자수까지 했는데도 북한은 '납치한 사실이 없다.' 하면서 금강산에서 김영남이를 내세워서 '일북도

아니고 납치도 아니고 쪽배에서 자다보니까 눈 떠 보니까 남포더라.’ 이런 엉뚱한 변명을 일삼는 북한입니다. 다만 일본한테 납치사실을 시인한 것은 오로지 100억 불이라는 돈을 받기 위한 김정일의 술수였고 우리 정부한테는 납북자가 없다는 것을 무시하는 자체는 우리 정부 당국자나 대통령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나라 국민을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협상할 때 강하게 했으면 지금쯤 우리나라도 많은 납북자의 생사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북한한테 간첩질 하고 많은 사람을 살생한 비전향장기수로 다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요구하지 않은 정부 책임자들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일부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신 분들이 강제로 납북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즉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납북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 **최성용**

이 문제를 조정하는데 납북자가 아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남았다. 지금 모든 범죄사실을 북한이 범죄를 해놓고도 우리나라 무고한 국민 천

안함이나 모든 것을 해놓고도 발뺌하는 북한인데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잡혀간 사람들을 의거입북자들이라고 명시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하고 협상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와서, 지금 UN이 아셔야 할 것은 설령 자진납북의 의사가 있더라도 만에 하나 여기 있는 가족들한테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기는 자식이나 부모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왜 김영남이 이름을 놔두고 김철준이라고 가명을 쓰면서 요꼬다메구미의 남편 이런 범죄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무고한 어민이나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들이 그 자유표시를 못하게 한 것이 그것이 북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UN이 그분들에 대해서 자의 표시를 하게끔 하셔야 하고 특히 범죄를 요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마이클 커비**

여덟 분을 지금까지 한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여덟 분은 아직은 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 정부로 하여금 그 여덟 분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끔 동의를 하게끔 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 정부가 동의를 했나요? 허락을 해 준 건가요?

○ **최성용**

절대 아닙니다. 그분을 설득하고 한국 사회가 이만큼 변했다는 것을 그분한테 알려주고 남한에 있는 가족의 친필을 그분한테 보내서 그분이 탈출해야겠다는 의지가 섰을 때 조직원으로서 북한 인민반장이나 모든 감시원을 피해서 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나와서든지 나오다가 북송돼서 죽어간 국군포로나 납북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밤하늘을 보며 죽을 날만 기다리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납북자가 없다는 그런 술수를 버리게끔 UN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생사확인만큼은 북한이 실토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니까 북한이 선생님께서 아시기에 단 한 번도 강제 납북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거지요?

○ 최성용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다섯 분이, 그러니까 3개월 후의 다섯 분의 어부는 귀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섯 분께서는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강제로 납북됐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다섯 분의 어부가 나중에 3개월 만에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 분들에게서는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억류

됐다는 점을 확인해 주신 건가요?

○ 최성용

정부의 합심 조사를 받아서 저희 부친과 억류된 사실, 해수에 들어가서 조사상황을 전부 우리 정부한테 조사를 받습니다. 세 분이 왜 남았는지 저희 선박이 왜 압류됐는지 그런 것을 증언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동료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증언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이 다섯 분의 어민께서는 나중에 다시 남한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9. 16.에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9. 16.인가요.

○ 최성용

1967년도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어떻게 돌아오셨나요. 그 분들은 북한에서 그냥 가라고 허락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에서 남한 정부로 공식 인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 최성용

다섯 명은 끌려간 풍북호 말고 다른 배를 타고 인천항에 정부 측한테 선박한테 인계를 하는 과정뿐이었지 그 사람들이 왜 가고 세 사람은 왜 남았는지 이런 과정을 북한은 묵살해버립니다. 안 가르쳐줬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다섯 분은요. 대한민국정부 쪽에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정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이후에 이 다섯 분들에 대한 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성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명수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3,000 몇 백 명의 어부들이 끌려가서 3,300명인가 오고요. 그분들은 와서 장시간 몇 날 며칠을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왔는지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 기록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 각 개인이 정부를 공개를 요구해도 우리 정부는 지금 앓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자료를 저만 갖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이렇게 실종자 신고를 하는 게 불법인가요?

○ 최성용

북한에서 북한에 관련된 사람들만 지금 우리 정부가 68년부터 잣대를 납치가 됐든 국군포로가 됐든 가족들을 연좌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연좌제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신원 조회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족들한테 아직까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더 간단하게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가서 실종됐다고 실종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최성용

다 압니다. 정부는 실종 신고 전에 북한에 끌려간 것을 다 압니다. 우리 가족들을 실종신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간지를 모르니까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런데 실종이 되신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실종이 되면 경찰에 가서 실종신고를 하고 아버님께서도 실종이 됐으니까 경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에서 그런 조치가 안 취

해졌나요?

○ 최성용

경찰에서 우리 가족들한테 한 것이라고는 감시뿐이 없습니다. 북한한테 경찰이 아닌 군, 모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런데 어쨌든 경찰에 실종신고를 안 하신 것은 맞는 거지요? 실종신고를 하셨나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아버님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셨는지요.

○ 최성용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론에 북한에 끌려갔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한국에서 선생님의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어디가요? 한국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선생님의 사연에 크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어디가요?

○ 최성용

사람을 탈출시킨다든지 납북자의 이름을 호소

할 수 있는 데는 2000년도부터 제가 구출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언론이 우리 납북자의 이름을 다 알아주고 있을 뿐 아직까지 정부는 구출이나 북한에 대해서 납북자 문제를 확고한 정책에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국회는요?

○ 최성용

국회는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을 이용하지 않나, 국민들한테 어떤 정치인이 납북자 국군포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순간이 됐을 때는 전부 입을 닫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하나도 안 비추고 그러니 북한이 우리 정치권이나 대통령을 모두 무시하고 납북자라고 납북자를 그렇게 하고 국군포로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꺾기 위해서는 북한의 잘못을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대통령부터가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이산가족상봉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말고 이런 범죄사실을 납북자 국군포로에 따로 분리시켜서 당당히 요구를 해야 우리가족들이 제삿날이라도 알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현 박근혜 정부는 납북자사안과 이산가족사안

을 분리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 ○ 최성용

당연히 분리를 해서,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국군포로 500명, 우리 납북자 500명하면 1,000명입니다. 1,000명을 한 번에 일괄로 해서 생사 확인을 하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남북대화에 실질적인 호응을 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과거 대통령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 정부는 이산가족과 이것을 분리시켜서 오늘 회담 요청하는 것도 국군포로 열 명하고 납북자 열 명을 넣는 것을 폐지시키고 당당히 따로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스위스에서 주장했듯이 이렇게 북한 애들이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문서를 보내옵니다. '확인불가' 이거라도 제대로 생사확인을 해주면 한 200명 정도는 했을 거예요. 자기네가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김정일 생일상 잔치 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저희 부친도 이것 보세요. '확인불가' 지금 100살이 넘으신 분한테 알려 주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살아있을 수도 없는 분이예요.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제가 이런 단체 사진을 두 장을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정보원한테 뺏습니다. 이게 지금 60명이 넘습니다. 이거는 72년도 잡혀간 납북자 오대양호 선원들입니다. 이거는 남한에서 잡혀간 전 부 잡아다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 중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탈출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이분이 또 탈출을 했어요. 아홉 명 째 탈출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네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끝까지 납북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받아오고, 왜 이 사람들이 이산가족입니까? 이산가족은 전쟁 시기에 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평화공존 시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산가족입니까? 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늙어서 탈출한 장면입니다. 이게 8월 11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 ○ 마이클 커비

이분은 언제 다시 돌아오셨나요?

### ○ 최성용

2013년 8월11일 날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어디입니까?

### ○ 최성용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 ○ 마이클 커비

지금 들고 있는 이 사진들은 누가 가지고 온 거죠?

○ 최성용

북한정보원이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사진에 있는 8월 11일 날 돌아오신 분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 최성용

여기 최상단 여성 분은 여자 지도원, 모자 쓴 친구는 남자치도원, 옆에 옆에 네 번째가 이분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사진 속에 있는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 최성용

평양시민들, 관광객들이 우리 납북자 단체사진 찍는 것을 보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묘향산 관광기념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1974년, 잡혀가서 2년 만에 찍은 사진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왜 북한은 납북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러한 단체사진을 찍었던 것일까요? 이 사진이 납북된 사람들의 사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생님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금 뭔가가 석연치 않은데요. 북한당국은 납북자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왜 북한 간부들까지 낀 그런 단체사진이 찍혔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북한당국에게 이 사진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진들이 될 수 있는데 제 질문을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의구심을 갖는 저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 최성용

2007년 우리정부는 저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이 두 사진을 과학연구소로 확인을 보낼 테니 사진 주인인 최성용 씨가 이걸 인정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인정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갔습니다. 2장이 가서 10일 만에 100% 이 사진은 원본하고 맞다. 그 이유를 이것을 언론에게 공개하고 난 다음 이 많은 납북자 국내 가족들이 전부 문의하고 쫓아오고 다 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북한은 이것을 북한 시민, 북한 주민들한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 좋아해서 북한 정부를 좋아해서 왔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 사진은 각자 교육한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눠줍니다. 저는 이 사진을 처음 공개할 때 어렵게 북한 당국자한테 이걸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탈출시킨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먼저 제가 북한에서 빼내온 사진입니다. 이것을 북한은 절대 공개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00% 원본이라는 것을 우리 통일부

한테 확인시켜주고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한 장씩 다 나눠줬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사진들의 복사본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최성용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복사본들이 저희에게 넘겨지면 S12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한 분은 어제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어제 돌아오셨고 다른 한 분은 2013년 8월 11일 날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8월 11일 날 돌아오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어제 돌아오셨습니다. 맞습니까?

○ 최성용

2013년 8월 13일 날 돌아오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 마르주키 다루스만

8월 13일이 맞습니까?

○ 최성용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최초로,

○ 마르주키 다루스만

8월 13일 날 돌아오신 분을 저희가 만나 볼 수 있을까요?

○ 최성용

그거는 정부한테 요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정부한테 이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넘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권한이 없고 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저희가 한국 정부에 이분들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분의 성함을 종이에 적어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사진의 단체사진에 있는 납북자들의 성함을 저희에게 적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단체사진이 언제 어디에서 찍힌 것인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성용

이게 원본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확대한 사



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두 분이라고 하신 거는 한 분입니다. 이거 똑같은 사진이고요. 이것이 원본인데 여기에 장소가 날짜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정부와 언론이 찾은 가족들의 납북자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료하고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다른 사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바로 보여주신 그 사진들이요. 그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지요. 왼쪽 손에 있는 사진이 있고 TV가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른쪽 손에 들고 계시는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 최성용

이 사진은 TV고 지금 나오는 사진.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오른쪽 손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손에는 있는 사진에는 TV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용

여기에 보면 '나진선봉 혁명 전적지 기념' 날짜까지 딱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가족들이 저한테 쫓아와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 이 사진

보내준 사람, 주인공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똑같은 사진인가요? 다른 사진인가요?

○ 최성용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낸 원본이고요. 북한에서 직접 가져온 진품이고요. 이것은 제가 크게 사진을 확대한 겁니다. 이거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TV화면에 나온 이 사진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화면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잖아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찍힌 같은 사람들인가요? 그 사진에 있는 분들이요?

○ 최성용

다 틀립니다. 67명인데요. 다 틀립니다. 우리 517명중에 이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2장의 사진 모두를 저희가 증거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 최성용

고맙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S12 증거물로 저희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 소냐 비세르코

이분들이 납북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UN 이라든지 적십자사라든지 다른 국제기관에 이 사실을 알린 적이 있습니까?

○ 최성용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한한테 우리의 생사 확인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가시기 전에 저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본한테는 북한이 이렇게 사망날짜, 언제 낳았다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써서 일본 적십자사한테 보냅니다. 북한이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확인불가'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사진 찍혀있고 한 사람들을 확인불가라고 합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 조금 전에 납북자에 대한 문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명단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보여주신 명단이 적십자사에게 선생님이 준

그 명단입니까?

○ 최성용

북한 적십자사가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원문, 이렇게 보내온 원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적십자사가 우리 대한 적십자사로 보내온 문서입니다. 원본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 문서상에는 납북자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생존자들이 있다. 납북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문서입니까?

○ 최성용

제가 표현을 한국말로만 하니까, '연락두절, 확인불가' 이렇게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 다 쓰여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북한 애들한테 도대체 왜 동족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납치가 됐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의거 입북이 됐든 생사확인만큼은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UN이 그런 판단을 하셔서 증거라고 필요하시면 이것도 요청하셔서 가지고 가셔서 북한 애들한테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예. 저희에게 그 문서를 주시면 증거물로 채택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 저희가 의논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서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서를 저희에게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북한 적십자사가 그 문서를 보면 생사확인을 할 수 있다, 없더라 그 문서를 보고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 최성용

여기에 보면 의뢰서 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 적십자사로 북한 적십자사가 보낸 문서입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 적십자사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생존자가 있다고 신원확인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답이 있었습니까?

○ 최성용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이후로 가족들이 납북된 사람들 생사라도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었나요?

○ 최성용

북한이 자기네가 필요한 사람들만 살아있다고 해서 금강산이나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 시에

그 사람을 내놓습니다. 한국 가족과 상봉을 시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납치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면서 나와서 김정일이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륜을 가지고 북한이 납치 사실을 인정 안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분명히 또 다시 북한이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 마이클 커비

납북자 명단이 저희에게 넘어오면 저희가 S13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모두 다 해주셨습니까?

○ 최성용

시간이 허락되면 UN 위원장님하고,

○ 마르주키 다루스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이 돌아온 두 분에 대한 것인데요. 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어디에 있나요? 그 두 장의 사진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 최성용

이 사진 중에 오늘 처음으로 조금 전에 공개한 사람이 탈출했구요. 2009년도에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탈출해 있는 것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이 두 장의 사진에 있는 단체들은 각기 다른 단체들이네요?

○ 최성용

517명 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59명이 있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517명이 안 되는데요.

○ 최성용

517명 중에 이 두 사진을 제가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17명이 안 되지요. 이 사람들이 517명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잘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북한이라는 사회의 특성상 어떻게 이렇게 납북자들이 북한 간부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비자발적으로 복송이 되었는데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 최성용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북한주민들한테 우리 납북자들 북한 쪽에 공개를 하면서 이분들은 남한이 살기 싫어서 못 살아서 김정일, 김일성 장군을 추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습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저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한테 이 사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과 우리 정부의 이 사진에 대한 것을 요청을 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이 사진들을 하나씩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나 아버님이 이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신 적은 있나요?

○ 최성용

이때는 74년도고요. 저희 부친은 67년도에 납치가 됐습니다. 세월도 많은 세월이 지났고요.

○ 마이클 커비

아버님은 1910년도에 태어나셨지요?

○ 최성용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 당시 나이가 1974에 64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살아계실 수 있잖아요. 어쨌든 사진 속에는 아버님이 안 계신 거지요?

○ 최성용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쪽 사무국 쪽에 두 분의 납북자의 성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이분들에 관해서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을 찍게 된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필요한 정보를 저희 사무국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용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진술한 것은 정부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납북자 가족회 등을 설립하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납북자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은 본인의 성함을 공개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신 거죠? 아니면 저희가 증언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의 본명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상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 이재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선생님, 오늘 저희에게 해주실 증언이 진실된 증언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재근

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네. 선생님 지금 연세가 76세이시지요? 그리고 남한에서 어부로 어로활동을 할 때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가신 거 맞지요?

○ 이재근

맞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으로 끌려간 게 언제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재근

1970년 4월 29일 새벽 2시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저에게 먼저 해주실 말씀이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

○ 이재근

내가 먼저 얘기를 하죠.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근

저는 1970년 4월 29일 새벽 2시에 북한 경비정 2척이 우리 배에 다가와서 우리 배는 그때당시 38선에서 약 서남쪽으로 50마일 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 배에 다가와서, 나는 그때 당시 왜 잠을 못 잤는가 하면 꿈도 너무 심송생송하고 내가 아이 하나 둔 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생각을 하느라 잠을 설쳤는데, 자다가 잠들까 했는데 옆에 배 대는 광경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동그란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경비정 2척이 왔는데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철관

모까지 다 쓰고 우리 배를 오르는 겁니다. 나는 한국 해군이 우리 배에 무슨 볼 게 있어서 올라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명 완전 무장한 이놈들이 올라온 다음에는 총을 쏘면서 '빨리 내려 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큰소리를 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 병병해서 선장도 그냥 완전히 이게 어디서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선장은 그때 조금만 늦게 잤으면 죽었는데 밑에 총으로 쏘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선장이 허리를 펴고 올라서서 바로 앉았는데 그때 총을 쏘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뚫고 천장에 총알이 박혔는데, 이놈들은 한 번해서 말 듣지 않으면 무조건 총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당신네들이 와서 이렇게 하느냐?' 말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전부 다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오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즉석에서 공개처형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서 제일 선미에 있는 식당 칸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무슨 고리가지고 문을 채우더라고요. 문을 채우고 경비정 2척이 우리 배에 밧줄을 매서 끄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20노트 이상 나가는 아주 속도 빠른 그런 걸 했는데 1시간 정도 끌어서 우리 배가 거의 38선을 넘어갈 당시에 한국해군함대천공1함에서 우리 배를 끌려간 걸 발견하고 그러고 인자 조명탄도 쏘고 총도 쏘지만 이미 그때는 우리 배는 38선을 넘어와서 그 쪽 북에 들어간 상태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고 그

래서 결국은 천공일함대도 우리를 구출하지 못하고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중위도에 도착해서 우리가 배에서 밥을 해먹으니까 그 조선인민국 소자라는 놈이 와서 하는 소리가 ‘아버이 동무 빨리 준비하시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니까 빨리 하산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산을 해서 벌써 이미 그때 우리가 내리니까 선전하려고 그러는지 트랙터도 갖다 놓고 밭을 갈고 하면서 자기네들 선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잘살고 모든 게 기계화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인제 가서 해주에서 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마지막에 중앙당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배 선원인 37명 모두가 간첩이고 배는 간첩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길 바란다면 결국 인계를 했던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우리가 간첩행위도 안 했는데 무슨 간첩행위를 하는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아니면 되지 하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따라가서 평양에 가서 한 5개월 동안 계속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안통해서 근데 우리보고 청진에 이동시킨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는가 하니까 한 여섯 사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가는가? 선원들이 27명인데 같이 안 가고 하니까 특수하게 당신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이 배우라고 하

지 않는가? 그러니까 가서 구경 잘하고 오면 된다고. 우리가 거기다 가서 2달, 그때 조선노동당 제5차당대회를 했는데 당 대회가 끝나고 다시 평양에 오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던 어민들은 한국에 다 내보내고 두 사람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항할 것 같으니까 청진으로 이동을 해놓고 그다음에 선원들 다 내보내고 그래서 갑판장하고 또 갑판원하고 둘만 떨어져 있고 그다음 사람 다 나가고 없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학교에 입학했는데 거기서는 뭐하는가 하면 대남연락소, 적화통일을 위한 간첩양성기지입니다. 간첩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 보내더라고요. 우리는 ‘이 학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니까 ‘당신네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대학에서 졸업한 것보다 더 월등하게 대우가 많고 배려가 많은데 왜 당신들은 안 가려고 하는가?’ 마지막에는 사람들 이용해서 붙여놓습니다. 우리 거기 간 데요. 거기 가서 3년 8개월 동안 훈련을 끝내고 ‘우리가 사회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네들은 만약에 거기는 당신발로 우리가 끌어왔지만 만약 이걸 당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납치됐다는 거 얘기하면 당신하고 우리는 인연이 이로써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아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니까 그 문건을 다시 써서 열 지 이거를 몽땅 다 지장을 찍습니다. 문건에다가 쪽 찍고 ‘나는 절대로 사회에 나

가서 납치돼왔다는 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돼있습니다. 그거를 쓰고 열 손가락 다 지장을 찍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결국 정치범수용소에 가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 손가락 다 찍었고 사회에 나왔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나는 위대한 수령님이 좋아서, 내가 북한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좋아서 내가 의거입북했다.’ 이러면 그 사람들도 손뼉을 친 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꾸념하고 얘기를 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왔다 하면 이 사람들도 묻거나 해서 중앙당에 보고한 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보고체계가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이 좋아서 우리가 의거입북했다’고 말했는데 우리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다 붙들려온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 납치돼 왔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한국 이 잘사는 나라 두고 왜 거기 가서 살자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저 사람들 정책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끔 해 놓고 말하게 되면 어느 범이 물어 간지 모르게 다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편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사회에서도 살아남지도 못하고, 내가 이 자리 앉아서 증언도 못할 겁니다. 내가 만약 거기서 ‘나는 안 한다.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날

저녁으로 정치범수용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그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주 쉽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중앙당 정치학교에 있으면서 좀 너무 과하다고 학습도 안하고 산을 혼자 돌아다니고 며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루는 나를 데리고 바람 쐬러 나가자 해서 갔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잠바만 하나 입었던 말입니다. 차를 옆에 타고 가는데 한참 2시간 가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지. 근데 또 희한한 거는 그다음에 이 새끼가 옷통을 벗고 잠바를 벗는데 보니까 권총을 두 자루나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네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하겠나? 오늘 죽지 않으면 네가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이 총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당신이 꼭 나를 죽여야 되겠는가?’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우리 말 안 듣는데 왜 너를 우리에게 두겠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무릎 꿇겠다고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어서 내가 죽음을 면하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북한에 30만 이상이 정전 때하고 끌려간 사람 있는데 평양시에 사는 사람 열 손가락 꼽히지 않을 정도로 높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학자나 이런 사람에게 비밀을 다 뽑아먹고 지식을 다 뽑아 먹고는 그다음에는 다 지방으로 추방시키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평양에서 산다는 사람은 오직 김정일이나 김정은 발바닥을 빨아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



지만 그 정도 이상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 있는데, 그 외에 또 특별한 것은 평양시에 장애인이 없잖아요. 선천적인 장애인이든 후천적인 장애인이든 그 사람은 무조건 평양에서 추방된단 말이에요. 추방되니까 부모들은 그 아이 하나만 보내자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친척 집에 보내니까 부모가 지방에 내려가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해서 결국은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김일성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앞으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장애인도 없고 이 제도를 반대를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만 우리가 세계혁명을 이끌 수 있다는 이런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 사고라든지 뱃속에서 장애인이 돼서 나와도 장애인이 되면 결국은 지방에 추방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그냥 오직 혁명의 수도 김일성, 김정일 말씀으로 그거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말도 못 붙이고 한국에 가서 그런 사람들은 그 99.9% 몽땅 다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일부에 속하고, 내가 구타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그 얘기를 여기서 해봐야 그것도 없고 해서 하겠는데, 좌우간 그놈들은 조금만 권총대에서 그냥 실탄 채로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가 보위국 그놈들은 사람하나 생명을 죽이는 걸 파리 목숨보다 더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1970년부터 30년 후 2000년 7월 23일 날 그

러니 약 30년 3개월 만에 내가 제일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리고 머저리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그것도 후회가 되고 좌우간 앞으로 조국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증언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몇 가지만 여쭙볼게요. 김일성 수령님의 은총을 받아서 선택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27명 중에 여덟 명에 속해서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일성을 친히 알았나요? 그리고 김일성의 사상을 잘 알았는지요. 왜 선생님께서 그러한 혜택을 받았습니까?

### ○ 이재근

그것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 다 배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 못하고 이런 것은 사람이 없잖아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들이 한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국민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한 몇 개월 동안 주시하는데 우선 첫째는 건강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활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먼저 따지

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세월이 바뀌어도 위대한 수령인 김정일을 호위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결국은 선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그 사람들 중에서 잘해서 뽑힌 게 아니고 오직 내가 건강하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했으니까 간첩으로 써먹자고 결국은 나를 넣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중앙당 정치학교 간첩양성소에 가서 3년 8개월 동안 내가 교육을 받았지만, 내 아들에게 내가 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에 '너와 내가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나도 한국에 가서 너를 안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 빌미가 돼서 사상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중앙당 정치학교에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함경남도 함주군 선박전동기 공장 노동자로 30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간첩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께 어떠한 교육을 받게 했는지요. 구체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교육을 받게 했는지요.

### ○ 이재근

교육은 우선 기능적 사범대학 경성 종합대학 이런 일류 대학에서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일반 사회 과목은 강의를 해 주고, 그런데 기술과목은

운전을 한다든가 태권도 뭐 좌우간 일반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다루는 것 예를 들어서 납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열쇠 따는 것, 사람 죽이는 것, 사람 납치해서 어떻게 죽지 않게 살려오는 것, 그런 것을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요. 일반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자기네들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 별 교육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운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좌우간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절도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러 막 어디에 가서 가정에 가서 그 집 손가락이 몇 개이고 어디 가서 어떻게 알아보라고 하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막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들킬 것 같으면 어떤 때는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빠지면 되니까, 그때는 누가 추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계속해서 가족과 남한에 있는 아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북한에 계실 때 남한에 있는 가족과 계속 연락을 할 수 있었는지요.

### ○ 이재근

그것은 내가 북에 있을 때 우리 형님이 경상남도 울산시 용잠동 어느 어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우리 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가 내가 북한에 가서 결혼할 때 중국에서 무슨 혁명인가 모택동이 뭐 해서 그 혁명할 때 북에서 들어가서 북한에 들어가면 대학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직장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처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놀 때란 말이에요. 놀 때이니까 그냥 북에 따라가서 결국은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처갓집이 중국 아닙니까. 그 처가 어떻게 해서 자기 오빠가 열사가족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여권을 하나 쥐고 북에 들어갈 때 내 형 울산에 산다는 그것을 주소를 적어줬어요. 적어줬는데 우리 처가 중국에 가서 그때 한국으로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일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달라고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서 찾아보니까 우리 형이 있어서 그 집에서 며칠 묵으면서 전화번호랑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국에 가겠다는 결심을 굳혔는데, 나에게 달린 감시망이 너무 조밀하기 때문에, 이른 반에서 벌써 두 명이지요. 작업반에 한 명 그다음에 고위부 그다음에 당 비서, 좌우간 이래저래 해서 나한테 붙은 감시가 일곱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주군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나보고 눈독들이고 행동하는 것을 다 보면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조그만 것도 하나 쥐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처가 중국의 처갓집

에 가서 결국은 전화번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탈출해서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 형한테 도움도 받고 해서 한국에 나오는데 많이 힘을 보탤 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런데 그것은 복송된 지 30년 이후입니다. 스파이 간첩 활동 교육을 받고 나서 30년 동안은 어떠한 일들을 북에서 하셨는지요.

### ○ 이재근

저는 중앙당 정치학교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원인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내가 일기 쓴 그게 잘못돼서 이놈은 분명히 한국에 파견시키면 자기 아들 만나서 변절할 놈이니까 제외시켜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서 있다 보니까, 다시 질문을 해 주십시오.

### ○ 마이클 커비

제 질문은요. 1970년 간첩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정치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2000년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북한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이재근

알겠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함경남도 함주로 추방되었거든요. 추방돼 간

공장이 제2경제위원회 함주 선박전동기 공장인데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느냐면 모터를 만들어서 잠  
 수함 기지에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예를 들  
 어서 100kg, 50kg, 0.5kg까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전동기를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대주는  
 큰 선반을 했습니다. 그 선반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다른 것은 아  
 무 것도 안 하고 오직 한 군데에서 선반을 내가  
 30년을 했습니다. 내가 급수는 뭐 좌우간 좀 낮  
 아도 기사나 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못 받고 마지막  
 에는 내가 중앙에서 온 지도원에게 내가 얘기를  
 해서 세상에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르겠는  
 데 여기에 왔으면 당연히 나를 생각하고 입당도  
 좀 시키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인간 취급을  
 안 받는데 나도 인간답게 살게 해 달라고 이렇게  
 막 하소연해서 결국 나도 입당을 하기는 했습니  
 다. 결국은 내가 30년 동안 그 한 곳에서 오직  
 쇠 깎는 선반, 크기가 한 4~5m 되는데 그 선반  
 을 가지고 그 공모 작업반에서 필요한 부속을 깎  
 아서 공장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데 이바지했습니  
 다.

### ○ 마이클 커티

그리고 선생님의 북한에 있는 아들이 대학에  
 못 갔다고 들었습니다. 왜 대학에 못 간 것인가  
 요?

### ○ 이재근

내가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와서 생  
 활하다 아들 낳으면 그것은 대학도 못 가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냥 뭐 백두혈통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혁명 그렇게 하던 후대들이나  
 거기에 가서 김일성 종합당이라고 하고 다니지  
 우리처럼 노동자로 간 사람은 입학할 수가 없  
 어요. 대학 모집 지도원에 가면, 대학을 보내 달  
 라 원서를 접수하면, 7년 동안 내가 접수를 했는  
 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는 어  
 뎅게 해서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왜 이런 아이를 인재로 쓰지 않고 왜 자꾸만 막  
 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당원이  
 라고 해서 다 같은 급이 될 수 없고 당신이 한국  
 에서 왔잖아.” “한국에서 왔는데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아도 급이 다르다는 거예  
 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대학을 못 보내고 그러면 아무 대학  
 이나 못 보내겠느냐고 하니까 석탄대학이나 철광  
 석 대학 이런 데는 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좋다  
 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좋다고 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고 아들에게 물으니까 “석탄대  
 학이나 광산대학 가겠느냐.”고 하니까 “내가 뭐  
 노가다처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일생을 몸 바치고 생활하느냐. 나는 못하  
 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앞으로 내가 기회  
 가 된다면 내 목숨을 떼어 붙이고라도 내가 어떻  
 게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한

국에 와서 우리 집 아이는 지금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전자공학과 졸업해서 자기 앞길을 개척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아들 후대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천대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북한에서 겪어온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난의 행군 1990년대 가뭄이 아주 심했을 때 북한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를 설명해주세요.

### ○ 이재근

80년대 후반이요? 좌우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은 내가 거기서 여러 번 해봤지만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면 우선 자기 친구랑 모든 걸 다 현장에 옮깁니다. 옮기고 열흘이고 스무 날이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낮 맡은 일을 하느라고 완전히 강제노동이지요. 거기서 만약 죽으면 무슨 당과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고 북한에서 나처럼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왔다는 것도 내가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의 행군 하면 어떤 때는 6개월, 7개월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 기간은 완전히 죽습니다. 거의 죽다시피 하는데 세상에 먹이지도 않고 오로지 일만 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다 이야기할 형편은 못되는 건데, 좌우간 그렇다는 것만 내가 이야기합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리고 1990년대에 배급이 중단되었을 때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 ○ 이재근

그거야 우리라는 건 완전 하바닥 인간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친척이 있기 때문에 친척 집에 가서 쌀을 빌리러온다든가 하는데 우리는 우리 처도 고향이 북한 중국이고 나는 북한에서 말하는 남조선, 한국인데 어디 가서 해버릴 데가 없잖아요. 오로지 내 힘으로 모든 걸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던 말이에요. 내가 그때 너무나 눈이 안보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온 사람보고 내가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있었는데 선반에 강제로 해서 죽을 것 같다 하니까 '그럼 어디에 일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 걸 내가 '양주산에 가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산에 가서 일하면서 내가 뱃놈이니까 그물을 떠서 투망을 하나 만들었던 말이에요. 투망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그 투망을 가지고 조그마한 강에 가서 뿌리니까 큰 고기도 잡히고 작은 고기도 잡혀서 잡아오면 그걸 가지고 끓여먹고 그 나머지는 돼지를 죽을 끓여주니까 돼지가 3개월 되니까 100kg씩 이상 이래돼요. 돼

지가 100kg면 식량이 강냉이 200kg하고 맞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덕을 많이 봤지요. 그것도 오직 내가 짬짬이 그물을 떠 났기 때문에 그때도 살았지, 안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물을 내가 걸어놨다가 한국에 그물을 잊어버렸는데 그 그물을 내가 가져와서 이게 나를 살려준 그물이라고 한국에서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그물을 잊어버리고 못 가져와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 화폐개혁을 했는데 화폐개혁을 한다면 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가면 150원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저금을 하라는 거예요. 저금 하면 뜯기는 거야. 한 푼도 못 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돈을 그냥 강가에다 놓고 불을 지르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당에서 가져오려면 다 갖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 갖다 주면 본인에게 150원 주고 나머지는 저금한다고 예고 없이 해놓고는 돈도 한 푼 안주고 또 다른 데서 내가 와서 돈이 와서 부쳐달라고 해서 부쳐서 우편 보내면 우편국에서도 그 돈을 다 안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니까 오로지 내 힘으로 땅을 파든지 뭘 파든지 내 힘으로 먹지 않으면 그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전에 나와 보면 한 대여섯 명이 앉아 있다가 쓰러지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체를 타고 넘으면서도 그 사람

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니까 저희 대원들 동원해서 죽은 사람들 차에 싣고 관도 못 짜니까 통째로 구덩이 파고 몇 명씩 물어버리고 하는 걸 봤는데, 그때도 내가 '그 그물을 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한국에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선생님, 낚시를 하려면 배가 필요한데 배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 ○ 이재근

배가 필요 없습니다. 무릎 밑에 조금 위에 올라오는 물인데 내가 그냥 수영바지 큰 거 입고 들어가서 그물 치면 거기서 당기면 그 안에 고기가 딱 있으면 바깥에 나와서 털고 다시 고기는 망태 안에 집어넣어서 잡아오면 그게 한 망태 될 것 같으면 집에 가면 큰 술이 된단 말이에요. 그 거 가지고 우리 식구 먼저 먹고 나머지 내장이나 이런 거는 국 끓여서 돼지 먹이면 돼지가 한 달에 200kg씩 자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북한에 사시면서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북한 사회 이런 점은 괜찮다는 부분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북한은 개인적인 부분보다 굉장히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공동체를 강조하잖아요. 그

래서 그러한 북한의 그런 부분 중에서 좋은 점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북한에 사시는 동안 '이건 괜찮았다. 북한사회의 이런 점은 좋지 않았나.' 생각이 있으세요?

### ○ 이재근

제가 1970년도 납북을 해서 그 당시 중앙당에서 3년 8개월 동안 정치교육을 받고 간첩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1974년도인가 되지 않습니까? 갔을 때도 상점에 가면 사탕이 있었고 신발이 있었고 천 같은 게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5~6년 이상 지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1974년도 갔을 때 북한에서 내가 보기에는 전성기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선 옷 입는 것도 1970년대 해주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게 군복을 가지고 몸빼를 해 입었고, 위에는 블라우스 최고 좋은 옷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배 선원으로 가서도 다 시계, 반지 끼고 다니면서 먹을 것 다 먹고 얼굴이 좋으니까 간부가 왔는가? 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내가 간첩교육을 받고 74년도 4월 달 그때 상점을 구경하러 나가니까 그때는 사탕이 녹아서 있지만 녹은 사탕도 있고 술도 한두 병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던 게 한 2~3년 지나니까 신발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엔화

를 받아서 그걸 외화상점에 가서 음식도 사고 옷도 사니까 잘 사는데, 우리 북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도 사 입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장 마당이 생겨서 중국옷도 나와서 한두 가지 해결했지, 그 외에는 어디 가서 해볼 데가 없어요. 좌우간 74년도 내가 중앙당에서 정치학교 졸업도 못하고 쫓겨나서 함주에 가니까 그때 내가 보니까 그때는 먹을 것도 있고 모든 게 구하던 게 3~4년 후에는 아무 것도 없고, 배고파도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정도인데, 그전에는 간장을 한 kg씩 배급을 줬어요. 소금하고 된장 간장 한 kg씩 줬는데 소금이 없으니까 된장, 간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4~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주니까 사람들이 우선 소금도 없으니까, 사람이 소금 해롭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지만 저쪽에 꽃제비 거기 가보면 조그마한 수건에다 그거 싸서 밥 먹고는 그거 딱 빨아먹고 그다음에 그걸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금이 귀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마지막에 소금도 없어서 너무 애먹었어요. 애먹었는데 이제 중국에 수입되고 중국 것 좀 나오니까 결국 그다음에는 습통이 트였는데, 왜 내가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겠다 하는가 하면 무슨 정책에서 오직 한 가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결재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는 이런 사회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해볼 그걸 못됩니다. 만약에 무슨 자기 창의적으로 받은 명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

서 잘못 걸리면 이 사상체계에 걸려서 모가지 달아야 되지, 이렇게 하나야 어떻게 저희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가?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슨 자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잘못 그것도 운영하면 자기 개인주의, 영웅주의라고 해서 모가지 매달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좌우간 모든 하나에서부터 과학이고 모든 걸 김정일이 하나, 김일성이 하나에게 결재를 받아야 만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 비리, 사상적으로 합의해서 나가면 얼마나 그 경제가 발전하겠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위해서 경제를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가 저 모양이 되고 결국은 북한사람이 300백만, 4백만이 저렇게 굶어죽게 돼 있잖아. 그런 걸 봤어도 좌우간 북한은 저렇게 하면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갈수록 더 죽게 되지, 더 살아날 형편은 못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북한에 가서 네가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우선 협동농장부터 개인에게 다 땅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고 '50%는 국가에 바치고 50%는 니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몇 년 만 되면 식량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협동농장에 묶어놓으니까, 전부 다 비닐 같은 거 나가면 더 집어가서 지 텃밭에 다 쳐서 농사지어먹지. 그렇게 해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열성 부려서 농사를 지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톤이 나온다면 20톤, 30톤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걸 나눠주면 김정일이 집안이 무너진다고 결국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영원히 저 상태에 있는 겁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선생님. 공개처형을 2번 보셨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그 2번의 공개처형을 보신 것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 이재근

공개처형을 내가 한 10번 더 봤어요. 내가 제일 그거하게 본 거는 평양에서 추방되어 온 김평대라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평양에서 살다가 지방 당 비서 이런 간부들이 그 대중들에게 착취해서 저희 다 먹고 국민들도 안주니까 그 사람들이 배알 나니까 '아, 새끼들 놀기도 잘 논다. 개 새끼들아' 욕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당 비서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당 비서가 '너 이 새끼 한 번 두고 보자.' 이랬는데 6개월 후에 집에 있는 거 고스란히 끌고 와서 뒤에 손 묶고 입 봉하고 사형장을 나왔단 말입니다. 누구도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문제는 당 비서에게 욕했다는 그 한 마디에 한마디로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운명을 모든 걸 끊고 죽었다는 거를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봐도 저게 무슨 사형할 일도 아닌데, 그럼 당 비서에게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법칙인데 그거 얘기했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없이



잡아가서 그냥 공개 총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데서 내가 한두 군데서 봤는데 그리고 양전 사무소 작업반장 하던 사람이 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살할 때 입 딱 스카치테이프 붙이고 몇 개월 안 먹인 것처럼 거덜거덜 한 거 매달아 놓고 총 쏘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은 죽는가 하면 간부들이 와서 '내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것 좀 달라.' 창고장에 군당 지도원이나 군 간부들이 와서 달라면 안 줄 수 없잖아요. 조금씩 주고 나면 그게 모인 것이 한 10톤 이상 15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총살형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 군 위원회 간부들이 다 갖다 먹은 건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 요구대로 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어떤 경우는 평양에서 안전원 중령인가 하다가 지방으로 쫓겨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왔냐고 하니가 1호행사방해죄 때문에 왔다고 해요. 1호행사방해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가 자기가 중령이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 검사를 나갔대요. 거기에서 술 한 잔 주는 것을 먹고 얼큰하게 취해서 길 거리에 나오니까 차가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안전원이 세우면 다 선단 말이에요. 차를 딱 세우니까 자기 앞에 선 게 김정일 차가 딱 서있단 말이에요. 운전수가 "친애하는 지도자께서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니가 조선인 민군이 차렷 자세 딱 해서 말이 안 나가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김정일 차는 가고 뒤에 차가 그것을 싣고 가는데 그때 지방으로, 이름을 잘 몰라서, 좌우간 옛날에 지주 이런 사람들 추방하는데 있는데 거기에 같이 가뒀놓고 이랬는데, 결국 그 사람 마지막에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고 하니가 자기는 1호행사방해죄 때문에, 단순히 그 하나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와서 자기 식구들 뭐, 자기 딸이 무용학교 하고 자기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아주머니는 호텔 접대원 이렇게 잘 살았는데 결국은 그 남자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풍비박산이 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 ○ 마이클 커비

이분이 정확히 뭐를 잘못된 건가요? 차를 세운 게 잘못된가요? 뭐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 이재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한 잔 먹고 가다가 차를 타고 집에 같이 가자고 차를 세운 거지요. 그런데 그게 김정일 차인지 모르고 세웠지요. 김정일 지도자 동지가 탔다고 운전수가 하니가 이놈은 딱 말문이 막혀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있으니까 김정일 차는 지나가고 뒤에 가는 호위 차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날 정치범 수용소

랄까 하여튼 지주자본가들 모여 있는 데로 추방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 차를, 자기는 김정일이 탄 차인지 모르고 집에 좀 타고 가자고 한 게 화근이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이 사형된 것입니다. 죽게 됐지요.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선생님, 2000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오셨다고 했는데 북한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이재근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아들을 대학에 안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를 안 시키면 머저리 되잖아요. 나도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공부를 못하면 거기에서 썩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보고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대학 보내달라고 해도 결국은 보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들도 기회가 되면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 있는 데 그것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국을 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때 당시에 식량난도 겪었지만 우리 아들 대학을 안 보내주고 사람을 머저리로 만들어서 완전히 정식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너무 분해서 북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서는 아들을 설득해서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까? 아들까지 함께 오는 게 위험했을 텐데 아들을 설득해서 함께 오신 건가요?

### ○ 이재근

아니요 나는 나이 먹어도 훈련을 했잖아요. 한두 사람 정도는 내가 지금도 나이는 먹었지만 내가 견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하고 “좌우간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가겠으니까 당시 아들 데리고 먼저 중국에 가서 있어라. 중국에 가서 만약에 도착했다는 소식만 나에게 전해주면 다음 날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식량대란이 오니까 나에게 붙었던 모든 나를 감시하던 사람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세운 게, 내가 움직일 때가 됐다. 그 전에는 일곱 명 이상이 되고 온 동네가 다 나를 주시하는 환경에 처했지만 지금은 식량대란이 오니까 배고프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못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곱 명인데 일곱 명이 다 떨어지니까 내가 춤추고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첩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들 데리고 먼저 가라. 가면 내가 뒤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간 다음에 한 달쯤 됐는데 보위국에서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찾아가니까 “너 아주머니 어디 갔어?” “국경선에 갔습니다.” “왜 갔는가?” 지금 배도 고프고 하니까 식량도 좀 얻고 돈도 좀 얻어오라고 처갓집에 보냈다고 하니

까 “너희 아주머니랑 아들이랑 중국에 넘어 갔어  
 이놈아.” “넘어갔으면 잡아서 총살하면 될 것 아  
 니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관련이 없다.”고 했더  
 니 “나쁜 놈, 이 새끼 이상한 놈이다.” 이라고  
 “가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  
 로는 ‘이제 내가 갈 차례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도 얘기 다 했다.’ 하고 나와서 한 5~6월 후에  
 준비해 가지고, 내가 그 중앙당 정치학교에서 훈  
 련을 할 때 내가 구두수리공을 했단 말이야. 구  
 두수리공을 왜 택했느냐면 앞으로 한국에 오면  
 내가 간첩이 돼서 나오면 사람들을 접선하겠는데  
 접선하자면 그런 구두수리하면 대중들이 와서 수  
 리 받고 하는 그 틈새에 접선을 하기 위해서 내  
 가 구두수선을 했는데, 내가 구두수선을 좀 해요.  
 웬만한 것은 다 신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재  
 간이 있는데, 그 수리를 해 가지고 내가 생활은  
 안 됐지만 좌우간 내가 그렇게 해서 구두수리 기  
 구를 다 만들어서 우선 역전에 나갈 때 내가 잡  
 히지 않아야 되니까, “당신 어디 가는가?” “수  
 선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갔다 온다.”  
 “거기 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신발 수리해 주  
 고 내가 고기나 얻어먹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열차를 탔  
 는데 그때 당시 신포하고 양화 그 어간에 원자력  
 짓느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 했는데,  
 거기 산꼭대기에 막 벌처럼 달라붙어가니까 그것  
 창피하다고 몽땅 다 불려서 안전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살그머니 빠져서 무조건 올라와야

되니까 기관실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관실에  
 가서 “기관장님, 죄송합니다. 돈이 50원밖에 없는데  
 50원 이것 가지고 한 정거만 태워주세요.” 그  
 렇게 사정하니까 조수보고 “그것 해 줘.” 그러더  
 니 나한테 따라오라고 하더니 제일 뒤 칸에 기다  
 리라고 해서 거기에 있으니깐 그다음에 한 정거  
 장 지나서 내렸단 말이에요. 내린 다음에는 뒤에  
 가서 내가 앉아서 그냥 가는데 며칠 걸렸냐면 약  
 일주일 걸렸어요. 내가 중국에 와서 우리 처한테  
 당신은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기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기차 바퀴 두 개 있으면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 스프링 위에 한쪽 발을 얹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손 잡고 이렇게 차가 가다가, 그때만 해도 계  
 속 차가 안 다니니까 한 두 정거장 가다가 서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그다음에 또 갈 때 되면 기  
 적소리내고 해서 갔는데, 15일 걸렸다고 하더라  
 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차가 어떤 때는 보면 속  
 도내서 짹 올라가다가 전기가 약한 것 같으면 중  
 간에 서서 다시 빠꾸해서 또 내려온단 말이야.  
 조금 있다가 전기가 올라가면 또 시작해서 하루  
 에도 수십 번 하다가 겨우 올라가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빠꾸해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현실 속  
 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 ○ 마이클 커비

부인이 중국으로 안전하게 가셨고 선생님도  
 부인을 따라서 중국으로 가신 건가요?

### ○ 이재근

그렇지요. 내가 이제 모든 구두수리 공구 준비해서 내가 차타기 위해서, 청진 가서 내려서도 한 번 단속됐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나?” “나 구두수리 왔다.” “어디에서 왔는가?” “가까운 길주에서 왔다.”고 하니깐 보자고 하는 거야. 열어보니까 무슨 바늘도 있지 실도 있지 구두수리공이니까 천조각도 많이 나오고 해서 내가 수리공이라고 인정받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붙잡히면 또 몇 개월 동안 영창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무사히, 구두수리 공구 만든 것에서 내가 힘을 많이 얻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서 한국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다시 처와 아들 만나서, 그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 준비해서 내가 한국까지 왔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은 북한 정권과 북한간부들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7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북한당국이 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재근

거기에 인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놈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도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김

정일, 김일성을 위해서는 전부다 내가 폭탄이 돼서 위대한 장군님과 김일성을 결사 옹호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인민을 위해서 뭐 복무하겠다는 그런 문구가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삼대세습을 하고 있는데 왕조 세습독재체제에서는 오직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쁘다고 하지 못하지요. 만약에 김일성, 김정일에게 “나쁜 새끼들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놓고 굶겨 죽인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보위국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당장 붙들어서 어느 개가 물어간 지 모르게 다 죽여 버리지.

### ○ 마이클 커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는데 여쭙보겠습니다. 아홉 명의 선원들이 그 정치학교에 선생님과 함께 있었나요? 스파이 간첩활동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실 때 이 9명 모두가 선생님과 함께 있었나요?

### ○ 이재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가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칠보선 대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대호 하나에 강의실 하나, 그다음에 한 숙소에 네 명씩 들어가는 한 개 조인데 네 개 조가 한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는 데는 이렇게 강의실이 있으면 칸을 이렇게 막잖아요. 벽들로 막고, 네 개 정도 막으면 옆에는 안 보이잖아요. 선생은 저 앞에서 칠판에 글을 쓰면 글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라도 말도 못하게 하고 선생님말만 듣게끔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필기하고 하는데, 한 5~6m바깥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들으니까요. 하여튼 네 개 조가 다 우리를 하나도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보고 만약에 올라갈 때는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우산으로 가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결국은 교육을 그냥 받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호실 사람을 봤다든가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추방돼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자고도 하지 않고 볼 수도 없고, 안경 쓰고 모자 꼭 눌러쓰고 마스크 하고 우산 받치고 가는데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위장해서 생활했던 말이에요.

### ○ 마이클 커비

여기에 적힌 바로는요. 스파이 교육을 받을

때 호텔에서라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 ○ 이재근

호텔이 아니라 우리가 4년 동안에 있었는데 1월 1일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북한에 집을 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남조선에서 간 어민들이란 말이에요. 아, 세 사람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조장이 집이 북한인데 1월 1일 되면 집에 쇠러가고 우리는 갈 데 없으니까 우리는 호텔에 가서 결국은 일주일 동안 같이 놀잖아요. 놀다가 일주일 놀면서 우리가 본 게 일본서 온 사람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봤는데, 그 사람들도 아마 다 정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어부 중에서 3명이 같이 호텔에 있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 이재근

맞고 그리고 칠보선 대회에서 3호, 4호가, 우리가 1호인데, 2호, 3호까지 몽땅 다 어민들이 2명 내지 1명씩 다 섞여 있던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배 갑판장이 바로 4호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최종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영철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2호선인가 있고 다 그냥 그 부근에서 했는데 얼굴은 못 보지만 뒤쪽지 보면 사

람이 누구라는 거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못해도 몇 호실에 누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때 당시 흑시 사진을 찍으셨나요?

### ○ 이재근

사진은 우리가 그 처음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도 향산 거기 갔는데 도시락 사고 국제친선전람관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세계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은 거 다 전시했는데 선물 받기도 많이 받고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끝나고 단체로 사진 하나 찍어서 결국은 우리는 주지 않고 기획 되면 한 장씩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당시 있어봐야 집도 없는 사람들이 사진가지고 꽃아놓을 데도 없으니까 필요 없는데 내가 공장에 있을 때는 이런 거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 그 공장에서 몇 장 가지고 왔는데 한국 국정원에 와서 하면서 다 뺏기고 사회에 가지고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한국에 오실 때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오신 거군요.

### ○ 이재근

예. 몇 장가지고 왔지요. 내가 8장 가지고 왔

는데 지금 국정원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그 공장에서 여러 사람 가서 들놀이 가서도 찍고 물놀이 가서도 찍고 고기 잡다가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국정원에서 필요 없으니까 압수한다고 해서 압수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당시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3~40장 되는데 그거를 가져왔으면 증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다 못 가지고 왔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사람들을 납치하는 기술도 배웠다고 하셨는데요. 왜 사람들을 납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나요?

### ○ 이재근

그런 설명이 없어도 간첩행위를 하자면 별별 기술이 다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국무총리가 어느 섬에 갔다는 제주도 서귀포인지 갈 수 있다는 그 정보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납치해오라.' 이렇게 해서 배가 출발해서 갔는데 잡히지 않았는데 그 총리가 거기서 그날 저녁에 자고 바로 그 이튿날 나와서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붙잡혔어요. 그 사람도 하루 정도만 더 갔으면 북한으로 끌려가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간첩교육을 받았다 하면 완전히 당에서 시키면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런 입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만약에 옛날에 간첩교육을 받고는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30kg 지고 그다음에 양 발목에 5kg, 5kg 10kg 그다음에 그걸 두 번째 차고도 그냥 보통 300리를 4시간 반까지 도착해 본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 막 뛰니까 배낭이 끊어서 몸이 다 부서지고 아파서 밥도 못 먹고 계속 이렇게 틀고 다니는데 좌우간 중앙당 인원에서 우리 하는 건 오직 사람을 기계와 같이 한번 시키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한 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훈련 나가잖아요. 수영 훈련 나가면 청진 앞바다에서 동쪽으로 쾌속정으로 한 30분만 쪽 나가면 쾌속정이 얼마나 빠릅니까? 30분 쪽 나가면 한 조가 4명인데 다 물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고 그래서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살라.' 이 소리요. 나도 몇 번 거기서 '내가 여기서 살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해서 뭐 하겠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껄스름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 하는데 내가 왜 죽어? 안 죽어. 끝까지 살아서 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고치니까 결국은 힘이 더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24시간을 해야 그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말로 24시간 동안 물위에서 헤엄친다는 그거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겨울이나 아니라 여름

이 아니고 가을, 바람이 술술 불 때 춤기는 하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주 지옥훈련을 받고 내가 살아서 한국까지 왔는데 이제는 늙었으니까 납치하래도 오히려 내가 납치당해서 어디다 맡길 겁니다.

### ○ 마이클 커비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 ○ 이재근

한국에서도 이미 알다가,

###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공개처형을 처음 본 것은 언제입니까? 2가지 질문입니다.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 공개처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목격했습니까?

### ○ 이재근

처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니까 보니 결국은 얘기됐고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 ○ 마이클 커비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치학교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한 거죠?

○ 이재근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정치범 얘기 들었죠. 거기 가서 우리가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서는 그게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잡아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잡아가지만, 전화기도 아무 것도 없고 하지만 입을 통하고 발로 통해서는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 자연스럽게 4~5일 후에는 일반 국민들이 알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았지요.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공개총살 할 때는 함경남도 함주군 1974년 6월인가 내가 그때 배치받았는데 1년 후에 75년도인가 그때 총살 한 번 한 사람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후에 나진사업소 반장하고 하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또 하나하고 좌우간 내가 본 것만 해도 다 세면 10명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봤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2번쯤 봤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10명 이상 봤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공개처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 이재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면 조그마한 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면 강 폭은 물이 차지 않을 때는 100미터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모래밭에다 말뚝 세워놓고 세 사람이 조절해서 쇠죽이더라고

요. 죽으면 가마니 하나 있는데 가마니에다가 뜯 뜯 말아서 차에 싣고 가면 사형집행이 끝나는 거예요.

○ 마이클 커비

어떻게 공개처형을 목격한 건가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데리고 갔는지요?

○ 이재근

기업소별로 오늘 몇 월 며칠날 통보를 해요. '공개총살이 있으니 다 견학시켜라.' 그러면 견학하러 가야 돼요. 안 가면 말 안 들었다가 간부들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조직적으로,

○ 마이클 커비

공개처형 현장에 누가 데려갑니까?

○ 이재근

같은 읍에서 하는데 함경남도 함주군 읍, 읍이란 거는 군소재지인데 군소재지에서 그거를 제가 반대를 하면 도에 가서 사형집행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집행해라.' 하게 되면 나와서 집행할 때는 '인민반에서 다 모여서 며칠에 하니까 구경 오라.' 구경시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살할 때는 다 일부러 견학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겁먹고 아무 일도 못하게 김일성이



도 반대 못하게 하고 당에서 하라는 거는 무조건 하고 앞으로 전진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개처형을 다 견학시키고 사람들이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 마이클 커티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가서 본 거네요?

○ 이재근

사람들 좌우간 다 가지요 끝나고 만약에 하면 총 쏘는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따당 하면 죽는데 모이는 시간이 기니까 1시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힘든 일 안해도 좋으니까 오라면 춤추고 간단 말입니다. 거기 있으면 힘들어서 계속 일하다가 거기 나가면 바람도 쐬고 얼마나 좋아요? 구경도 하고 그래서 많이 다녔죠.

○ 마이클 커티

그러면 그 아까 작업반이 다 갔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공개처형장에 가면 구경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최소한 10개 정도 공개처형을 보셨다고 했는데 공개처형장에 모여서 구경하는 사람의 수가 보통 얼마나 됐나요?

○ 이재근

아마 1,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지나오는 사람, 가는 사람, 길거리에서도 걷는 사람들도 다 그냥 안전원이 구경하라고 가라고 붙들어서 앓힌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게 1,000명 모이는 게 잠깐 모였잖아요. 군에서, 인민반에서 그다음에 군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서 다 조직해서 가는데 함주군 식구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무슨 1,000명 같은 거야 무슨,

○ 마이클 커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정치수용소, 관리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셨는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용소, 관리소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고 계셨나요?

○ 이재근

그런 건 몰랐습니다. 나도 일본에 있는 친구를 귀국자인데 잘 아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는 대구에 있던 말입니다. 자기 일본 수속할 때 아버지 북에 간다는 말 하지 않고 북한에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버지에게 편지하자면 북한에서 편지를 써서 그걸 부치면 북한 청년회 가서 친구하겠죠. 가면 거기서 친구가 다시 또 그 편지를 대구에 양복점 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써서 삼각형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은 대형 제국의 무슨 술이라면서 가져와서 한 잔 먹으면서 '이런 술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이런 소리하면서 들어서 술 먹었어요. 그 사람도 공부 꽤 했는데, 일본에서 나올 때 아마 17평짜리 방에 책이 짝 차있단 말입니다. 꼭 찻는데 당에서 검열을 한 것 때문에 3분의 1 뽑아가고 오면 또 뽑아가지고 계속 가져와서 지금은 그때는 내가 가니까 사리원 의대에 다니는 우리 갑판장이 박희만이라는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콘사이스 하나 구해 달래서 그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다 뺏겼어. 하나도 없어.' 내가 올 때 방에 꼭 찻는데 책이. 이제 다 가지고 다 가지고 가고 나한테 하나도 없다면서, 그래서 큰 사이즈 있으면 하나 좀 달라고 이러니까, 그래서 찾아보더니 이만한 것 하나 주더라고요. 이만한 두꺼운 것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냈는데 보내고 열흘 만에 그 집에 놀러가니까 아주머니가 울상이 됐는데, "아저씨 이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위국에서 와서 밤에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행방불명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 간 거란 말이에요. 갔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입이 좀 가벼워서 자랑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아버지 한국에 잘 산다는 그것도 얘기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원래 대학 졸업생인데 그 아주머니인데도 결국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붙잡아갔단 말이에요. 붙잡아가서 한두 달까지는 계속 집에서 기다리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끝까지 안 돌아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위지도원한테 슬쩍 물어봤지요. "지도원 동지,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 붙들어 간다는 데 나 같은 종류도 해당되나요?" 라고 하니깐 "잘못하면 해당되지?" "어떤 잘못하면요?" "말 잘못해도 그래. 일 잘못해도 그래." 나도 실제로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갈 뻔 했거든요. 왜 끌려갈 뻔했느냐면 내가 선반을 하는데 선반 깎는데 길이가 한 2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1,000분의 1을 맞춰야 하는데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마이크로미터가 이렇게 재도 맞추기 힘든데 뭐를 주느냐면,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셨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이재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몰라요.

### ○ 소냐 비세르코

선생님, 아까 간첩학교 정치학교에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교육을 받으실 때 혹시 일본에서 납북된 사람도 만나신 적 있나요?

○ 이재근

정치학교에서는 만나지 않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휴가가 있는데 우리가 한참 5층에서 당구를 치는데 지도원이 막 뛰어올라왔더라고 올라와서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느냐고 하니까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도원이 시키니까 걸어서 내려왔지요. 그때 일본말 하면서 재팬 옷을 입고 올라왔는데 일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끼들이 네 명인데 틀림없이 중앙당 정치학교 어느 부서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에잇, 더러운 새끼들, 당구도 치지 못하게 저 새끼들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일본 사람 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조가 네 명이고 지도원에 따르면 그것은 정치학교 인원이 옳습니다. 학교에서는 볼 수 없지만 국제 호텔에 가서 내가 그렇게 봐서 일본사람이 있다고 내가 증언한 경우가 있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고맙습니다. 선생님, 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 이재근

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이제 남장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본명 사용을 허락하셨고 저희 사무국과도 미리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의 신변 보호와 가족의 안전에 본명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동의하신 게 맞습니까?

○ 남장호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오늘 증언해 주실 내용이 진실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안타깝게도 이전에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언을 해 주신 분의 내용과 선생님께서 증언해 주실 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선생님의 아버님 남정열님은 선원이셨고 북한 요원에 의해서 1972년 북송되었으며 아버님은 북송되어서 억류된 사실이 맞습니까?

○ 남장호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어린 소년이셨고 그리고 어느 날 아버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남장호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버님이 혹시라도 자발적으로 북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한국에서 범 죄를 저지르셨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는 다른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 남장호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때 배가 마지막 배였습니다. 그때 갔다 오면 배를 안 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자발적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 형제가 어땠는지요. 그리고 당시에 어머니는 생존해계셨습니까?

○ 남장호

예. 어머니하고 아들 셋하고 딸 둘이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버지의 실종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지금 아버님의 사진을 보여주실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남장호

그때 당시 72년도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납치가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형들하고 저를 데리고 바닷가 해양경찰서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울고 막 그러셔서 그때만 해도 북으로 납치된 사실을 저는 몰랐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버님의 납치에 대해서 누가 그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까? 그냥 짐작을 하신 건지요, 아니면 그 사실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 남장호

그때 당시 경찰들도 저희 집에 자주 왔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국민학교 때인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는 됐어도 돌아가신 것으로만 생각했지요. 저희는 납치 당시 포격도 있었고 그랬다고 했으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계속 제사도 지내고

지금까지 있다가 그렇게 된 거지요.

○ 마이클 커비

제사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제사를 지내셨다고 하는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남장호

어차피 저희는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으니까 북으로 가면서 교전상황에서 폭격을 맞았다고 하니까 저희는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낸 거지요. 제사는 일종의 명절 제사도 있지만 아버님 배 출항한 날을 맞춰서 제사를 지냈었지요.

○ 마이클 커비

그리고 한때는 아버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 남장호

2000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신문에 납북자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고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 중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걸로 편지가 와서 제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 쪽에서 아버지가 난 딸을 만나고 해서 확실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지요.

○ 마이클 커비

아버지가 1972년에 납치되셨을 때 선생님은 몇 살이었고 당시 아버님은 어떤 상태였는지요.

○ 남장호

저는 그때 6살이었고요. 저희 형들도 나이가 다 어립니다. 다 어리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뭐 제가 직접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원래 뱃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배를 타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배를 타니까 잤다 오면 농사를 지을 거라는 것만 알았지요.

○ 마이클 커비

어쩌면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농사짓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북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남한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겠다고 아버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까요?

○ 남장호

글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부정하고 싶고요. 저희 자식들이 5명씩이나 있는데 굳이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 마이클 커비

당시에 아버님이 납치되셨을 때 같은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북송된 사람들이 있다

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버님만 납치되었다고 들으셨습니까?

○ 남장호

총 아홉 분이었는데 아버지 편지 내용은 네 분은 돌아가시고 다섯 분은 사진만, 그것도 제가 받았었는데요. 다섯 분 사진만 있으니까 네 분은 돌아가시고 다섯 분만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에 편지를 바탕으로 보면 다섯 분이 북한에 생존해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남장호

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머님도 살아계셨는지요? 그리고 그 편지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했습니까?

○ 남장호

그때 다섯 분 사진이 먼저 왔었는데요. 다섯 명 사진 속에 아버지가 계셨었고 그 사진은 72년 6월 9일 날 납치가 됐는데 그해 12월 달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 사진을

봤을 때도 혹시라도 말씀하셨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사진이 편지와 같이 온 것이지요? 아니면 편지가 오기 전에 따로 왔습니까?

○ 남장호

브로커들이 먼저 이 사진을 보내주고 내가 아버지하고 판 분들도 알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켜달라고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명 사진하고 브로커 사진만 편지만 왔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진은 여러 번 접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분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버님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남장호

왼쪽 뒤에 서 계신 분.

○ 마르주키 다루스만

뒷줄입니까?

○ 남장호

네. 뒷줄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아버님이 납치되었을 때 선생님은 상당히 어렸습니 다. 사진을 보고 선생님이 아버님을 알아봤는지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이 사람이 아버지다.’ 라고 확인을 시켜줬습니까?

○ 남장호

어머님께서 확인시켜줬습니 다. 그래도 몇 살이라도 아버지 얼굴은 기억 안 납니 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브로커를 통해서요.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나요? 브로커를 통해서 방법이 있었습니까?

○ 남장호

그때 브로커한테 연락을 받고 중국으로 제가 2001년도 7월 달에 왔는데 4박 5일 동안 있었습니 다. 브로커들은 내가 가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려고 갔었는데 가기 이틀 전에 아버지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못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딸만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동생을 만나겠느냐?’ 해가지고 ‘아버님은 못 만나더라도 아버지가 낳은 딸이니까 만나보자. 그래야 아버지를 모시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갔습니 다. 가서 동생을 만났는데 참 동생도 비참했습니 다. 넘어온 자체가 비참했고 그 해 12월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좀 얼어

야 넘어올 수 있다.’ 해서 그해 12월까지는 기다렸지요. 기다렸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겼습니 다. 끊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문제가 많이 컸습니 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래서 결국에는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 남장호

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말을 믿었습니까?

○ 남장호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 다.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 긴가민가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 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하도 브로커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갖고 돈 요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가서 동생한테 확인을 했습니 다. 질문하는 와중에 아버님 고향, 생년월일, 그리고 할아버님 성함, 할아버님 성함이나 생신 같은 거는 갑자기 물어보면 얘기를 못합니 다. 못하는데 그 동생은 바로 바로 대답을 했습니 다. 그래서 동생으로 확신했고 그리고 그 동생 모습도 아버님하고 많이 닮았었습니

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 남장호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 믿게 됐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혹시 전화번호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중국에서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했는지요?

○ 남장호

전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생 말로는 아버님하고 같이 사시는 여자 분이 굉장히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어서 아버님 행동 자체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같이 사는 부인이 감시를 하니까 큰 내용 같은 건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다음에 여동생하고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만나신 적 있으세요?

○ 남장호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그 브로커들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돈을 줄만큼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안가고 그러니까 전화가 몇 달 후에 끊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는 게 저도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저 혼자 감당하기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요구하는 돈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셔서 어머니께 그 여동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 남장호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요. 사실 저희 형제들이나 어머니도 제가 중국 가는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난다고 간다고 해서, 이를 전에 취소는 됐지만, 제가 ‘판사람이 나온다.’ 하고 갔지만 식구들 자체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는 그랬었지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어머니께서는 사실 혼자서 아이 다섯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거고요. 어머니 혼자서 가장이 되셨을 텐데요. 어머니 혼



자 애들 키우기 굉장히 힘들었죠?

### ○ 남장호

그때 어머니도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다보니까 형제들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나가고, 저는 국민학교도 졸업 안하고 객지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집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사실 어머니가 남의 집 밭에 가서 감자, 고구마 훔쳐다가 저희한테 먹이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짐이라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객지로 나오는 게 더 편하다.' 생각해서 그랬는데 참 저희 자식들도 고생을 했지만 어머니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여동생은 아버지께서 남한출신이라는 걸 몰랐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지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아버지께서 자주 우는 걸 보셨다고 했지요?

### ○ 남장호

아버지가 자기도 어느 정도 나이가, 그때 제가 동생을 만났을 때 27세인가 26세인가 됐었습니다. 근데 개가 성인이 돼서 아버지가 남한에서 왔다는 거를 알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밤마다 우셨다고 합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리고 남한에 가족이 있다는 거를 아버님이 여동생에게 알려주셨지요? 북한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정권이 선생님하고 선생님의 어머니님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줬고 또 선생님께서는 아버님을 지금 72년 이후로 계속 못 만나고 계신데 그렇게 한 북한정권한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 남장호

저는 북한 정권이 저희 가족들의 이품을 이해한다면 저희 아버지께 대한 생사를 확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그러면 쫓아가서 납치한 사람들을 흔내주고 싶습니다. 북한정권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과연 북한정권이 1972년 이후 선생님이나 선생님 가족들에 대해서 안됐다는 마음 동정심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안됐다, 가엾다는 생각을 할까요?

### ○ 남장호

그런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 쪽도 북한에서도 지금 납치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좋아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동정심이야 갖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지금 한 42년 정도를 아버님을 못 뵈었습니다. 못 만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인도적인 문제에서라도 사실 생사확인만큼, 돌아가셨으면 유해라도 쥐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사실 이 납북 문제가 현재 다루어지는 점에 있어서는 뭐 북한정부가 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됐든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으시지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했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 남장호

지금까지 납치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못 오신 분들이 517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517명 이 분들이 자진해서 갔다고 말하는 장관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인식들이 전부다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저희 납치돼 있는 가족들 마음은 이해를 안 하고 하다못해 우리 정부에서도 517명 가족 중에서는 자신해서 간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월북자 운운하게 식으로 발언을 하니깐 북한정권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

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연세들이 다 있어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하루 속히 양 쪽 정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서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517명 납치된 분들은 전부 돌려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고맙습니다.

○ 마이클 커비

대한민국 정부가 왜 충분히 열심히 그 납북자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한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 남장호

오늘도 회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문제는 정부에서도 꺼내기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꺼내면 재네들이 틀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저희 문제도 있지만 이산가족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문제를 꺼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에 살고 그 쪽 주소가 있고 그쪽 어디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 생사 확인된 사람들만큼 만이라도 생사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우리 정부에서 북한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마이클 커비

사실 참 아이러니컬한 게 오늘 이산가족과 관련된 남북회담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저희가 공청회에서 남북자 가족에 대해서 다루게 된 것이 참 우연이기는 하지만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 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말씀 저희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주셨지요? 그 사진 원본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복사본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것 말고 아버지 사진이 또 있지요?

○ 남장호

이 사진하고 두 장밖에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저희 쪽 분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사진 두 개 다 복사를 하고요. 원본은 선생님께 드리고 그 사진은 저희 기록상 보관하면 안 될까요? 이 사진도 선생님께 소중한 것 같은데요. 가족 분들이 아버님 사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두 개가 전부지요? 저희가 사진을 복사해서 그 복사본을 증거물 S14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편지 한 장 주신 것 있지요? 편지 말씀하신 거요. 혹시 그 편지 원본 가지고 계시나요? 만약에 편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도 될까요? 혹시 저희에게

주시는 게 브로커에게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에게 주시는 게 어려울까요? 만약에 숨기고 싶은 내용은 숨기고 그 편지를 저희가 사본만 복사해서 갖는 것은 괜찮을까요?

○ 남장호

예.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저희 사무국 쪽에서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사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는 증거물 S1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머니님과 형제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 있는 이 자리에는 지금 YS11기를 타고 가던 중 납북된 분들의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증언을 하실 분들께서는 본명 사용에 모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명 사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가명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세 분께서 각각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본명을 사용해도 좋겠습니까? 각각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 황인철

저는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 마이클 커비

여기에 혼자 오셨는지요, 아니면 다른 식구들과 같이 오셨습니까?

○ 황인철

예. 다른 식구들과 같이 왔습니다.

○ 마이클 커비

다른 식구들도 저희에게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으신지요.

○ 황인철

예. 옆에 계신 분은 스투어디스 정경숙씨 오빠이신 정현수 선생님이지고요. 옆에 앉아계신 분은 정현수씨 부인되십니다.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 여사님이라고 저희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함으로 불러시기를 바랍니다?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여사님의 정확한 성함으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호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 여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 정현수 부인

예.

○ 마이클 커비

여러분 모두께 이 자리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에 오시는 것을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찌면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9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억은 생생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황 선생님,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전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 황인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69. 12. 10. 강릉발 김포행 국내선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정오 12시 15분에 이륙 후 10분 만에,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제가 잠시 중단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 증언을 하시는 분들께서 증언하는 내용이 진실된 내용임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말씀해주실 증언내용이 진실임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까?

○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그럼 세 분의 증인 모두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진실임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황인철

예.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김포행 국내선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12시15분 북한의 조창회에 의하여 강제로 납치를 당했습니다. 당시 납치된 사람들은 승무원 4명과 승객 47명으로 그중 1명 간첩을 제외하고 총 50명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의하여 북한은 1970년 2월 4일 전원 소환을 약속하였지만 사건발생 후 66일 만에 아무런 이유 없이 11명을 강제로 억류하고 1970년도 2월 14일 날 39명만 부분송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분 송환된 39명이 돌아와서 왜 칼 납북 11인들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국제적 심사위원회가 북한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돌아오지 못한 11명이 의거입북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국제적 심사위원회에서는 '좋다. 그러면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하여 자유 의사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답신 한 장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에 1970년도 12월 제25차 UN총회에서 항공기 불법

탈취에 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후로 끊임없이 북한 측에 요구를 하였지만 북한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1979년도 초대회장이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잠정적으로 활동이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지금 선생님 앞에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UN총회에서 통과된 규탄결의안도 있는지요.

### ○ 황인철

제가 결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언론에 나와 있던 기사를 전체 스크랩을 했었고요. 그 스크랩을 통해 갖고 규탄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리고 당시 32살이셨던 아버님이 그때 북송이 되었고 당시 25살 황경숙도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것 맞습니까?

### ○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외에도 7명의 다른 승객들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고 이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비행기가 납치된 지 얼마가 지난 후에 39명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까?

○ 황인철

예. 정확히 66일만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승무원들과 돌아온 7명 사람들은 왜 못 돌아왔습니까?

○ 황인철

당시 송환된 39명이 와서 증언해주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강릉 MBC PD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한 이유가 서울 출장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시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납치를 당하였고요. 당시 북한에서 저희 아버님이 사상교육 시간에 공산주의이론이 틀리다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

러자 북한 교육원이 '이 새끼 남산의 뱃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욕박을 질렀고요. 그 후로 저희 아버님이 2주간 어딘지 모르게 끌려가셨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70년도 1월 1일 날 집으로 가고 싶다는 가고파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같이 있었던 분이 합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교관이 들어왔고 저희 아버지를 밖으로 끌고 나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39명하고 11명이 완전히 만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증언해주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구금된 11명의 특징이 혹시 젊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나요?

○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승무원은 4명이었고요. 기장, 부기장, 스텐더디스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MBC PD셨고 그다음에 MBC 카메라맨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릉합동인쇄소 대표 분도 계셨고, 북한 측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강제 억류했다고 당시에도 판단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1969년 12월 이후에 아버지라든지 동생의 소식을 직, 간접적으로라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황인철

2001년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같이 납치당한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가 같은 데 잘 살고 있다고 증언을 해주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수간첩 오길남 씨가 계시는데 그분이 1998년도에 당시 86년도 칠보산 연락소에 있을 때 저의 아버지를 봤다고 증언해주셨고 당시에도 특별감시 대상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0년 6월 17일 날 UN인권 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저는 저의 아버님이 살아계신다고 한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아버지가 작년에 살아계신다는 소식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가요? 한국 정부로부터 들은 것인가요?

○ 황인철

한국 정부로부터는,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저는 선생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질문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인철

사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모든 정황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2001년도 제3차 이산가족에서 성경희 씨가 어머니를 제가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꿈을 꿨고 그러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0년도 6월 17일 날 UN인권 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접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상봉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식들이 접해지면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사실로서는 신의주에서 200km 떨어져있고 평양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KAL기 납북자들이 같이 모여살고 있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저희 아버님에 관해서 거기에 살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희 아버님이 북한 측에서 북한에서 남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지가 지 듣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은제가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 정부는 거절을 했습니다. 당시에 바다가 폐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실패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가셨는지 조차도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일일이 전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인철**

일단 정부에서 거절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정부에 관해서는 믿지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불발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아픔으로 다가왔고 사실 너무나 어렵게,

○ **마르주키 다루스만**

잠시만요. 한국 정부와의 일에 대해서요. 선생님이 KAL기가 납치되었을 당시에 몇 살이셨고 KAL기가 납치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몇 살이었지요?

○ **황인철**

제가 여동생 같이 저기한 건 아니고요. 여동생은 이분 정현수 씨 동생 분을 여동생이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당시 제가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남자애가 저고요. 저의 아버지시고 그다음에 제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제가 2살 때였고요. 2살 때 겨울에 출장을 가시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을 하

시게 됐고 그 후로 납치를 당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아버지가 납북된 이후로 누구 손에서 자랐습니까?

○ **황인철**

저희 어머니가 당시 저는 2살이었고 제 여동생은 백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희 남매를 데리고 계속 혼자 살아오시게 됐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고 어머니한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귀여워해 주시고 너무나 예뻐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아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끊임없이 아빠를 찾았다는 사실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에게 저의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 중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셨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너도 이제는 알아야겠다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탑승하시다가 납치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 마이클 커비

작은아버지한테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나이가 얼마셨나요?

○ 황인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1살쯤 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선생님, 북한 정부가 이렇게 납치를 해 가고 승무원과 조종사와 그리고 소수의 승객들, 아버님을 포함한 승객들을 아직까지도 억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 황인철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당시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하여 자유의사를 물어보라고 제의했을 때 거절했던 그 시점이 아직 현재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단순히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은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 오실 때 비행기를 타고 오셨겠지만 한국에 오는 목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누군가한테 끌려가고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이 아시는 바에 따르면 젊은 여성이 납치를 했었나요? 그 사람이 북한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는지 아세요?

○ 황인철

당시에 여성이 아니었고요. 간첩 조창희라고 밝혀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당시 1969. 12. 8.부터 조창희라는 이름을 숨기고 한창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비행기 표를 샀다가 다시 또 물렀다가 비행기 표를 다시 샀다가 물렀다고 했다가 당시 12. 11. 12:25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납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조창희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혹시 선생님하고 선생님의 아버지 그리고 사촌 사진이 들어있는 잡지 사본 혹시 있나요?

○ 황인철

예.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관찮으시면 저희 조사위원회 기록을 위해서 한 부 가졌으면 합니다. 그 잡지, 사진이 들어있

는 그 잡지를요. 선생님의 아버님 그리고 사촌누이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 있는 그 잡지를 저희 증거 S1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본 오늘 주실 수 있나요?

### ○ 황인철

예.

###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또 선생님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요 굉장히 심각한 국제법 위반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국제법위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황인철

정부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당시 2000년도 당시 상황이 다시 한 번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2001년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스튜어디스 성경희씨가 어머니하고 상봉을 하게 됐고요. 그 상봉과정을 통해서 스튜어디스 정경숙씨와 기장 유병환씨와 부기장 최성만씨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6년도 6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 측은 이분들에 관해서 통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생사확인불가라고 하는 통지서였습니다. 당시에 성경희씨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승무원 일곱 명도 어딘가에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생사확인불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통지서였기에 저희 가족들이 정부를 찾아가서 정부 관계자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후속대책을 촉구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납북자는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수가 너무나 많기에 북한 측에서 어떠한 답변을 준다고 하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북한 측에 요구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가 없는 일이었고요. 2010년도 6. 17.에 UN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 실종신고반에 접수를 했고 북한 측에서는 2012. 5. 20.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KAL기 사건은 날조된 음모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 측에 제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산가족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법적인 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뭔가 정부 측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 납치사건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건이고 명확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수많은 실타래가 흩어져 있을 때 하나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천천히, 그러면서도 강하게 당기면서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 측에서는 이 해법을 가지고 생각한 것

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암시만 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납치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납치된 가족들의 수가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 이 사건을 거부할 수 있고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KAL기 사건은 날조된 음모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북한 측에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저는 UN 측에서 조사에 의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 측에 요구를 한다면 북한에서는 반드시 답변을 주고 저희 가족들은 만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가족이 만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한 사람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미해결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선생님,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북한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데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 ○ 황인철

제가 볼 때는 다들 통일에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몇 몇 사람이지만 너무 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더 발전시킬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자, 그러면 정현수 선생님과 정 여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납치가 됨에 따라서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그 당시에 납치됐던 사람이 여동생 정경숙씨이고 나이가 25세였던 것 맞나요?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 정현수

먼저 양해를 구하면 제가 좀 귀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괜찮습니다. 선생님.

#### ○ 정현수

성경희 스투어디스하고 저의 누이동생 정경숙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둘 다 창덕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에 성경희 어머니 김수덕 여사가 북한으로 가서 성경희와 만났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국내 TV

에도 중계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거기에서 성경희는 제 누이동생 정경숙하고 별로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이웃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후에 성경희 어머니가 한국에 돌아왔을 적에 저희는 성경희 어머니와 만나서 그쪽 상황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누이동생 정경숙의 거주지인 주소도 적어왔고 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희 모친의 생각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듣기에만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 후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한 결과가 정경숙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얘기도 지금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생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마이클 커비

자, 그러면 선생님, 1969. 12에 일어난 그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여동생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런 납치로 인해서 선생님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현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굳어져 있어서 남북된 가족에 대해서 경찰이 항상 주의 깊게 사람들 왕래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 주거지를 이사하면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얼마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는 별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한국 정부가 여동생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 정현수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인 송환을 위해서 한때 했지만 그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UN을 통해서 송환요구를 한 일은 있지만 저희들 가족의 입장으로 볼 때는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여사님,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북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현수 부인

글쎄 지금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기억도 어떤 건 기억이 많이 나지만 엇그제 같은 일로 생각되지만 세세한 부분은 우리도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은 우리 가족에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고 최고 학부까지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온 식구가 좋아하고 자신도 좋아하고 힘 있게 직장에서 일하던 때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그때 안기부에 가서 혹시 간첩을 찾지 못했을 때는 우리 온 가족이 중앙정보부에 가서 억압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에 그 다음 며칠 있다가 KAL기 범인이 발견된 후에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사 가는 데마다 결국에는 우리를 후속조치, 따라다녔다고 볼 수 있고요. 한번은 7~8년 전인데 대전에서 어떤 분이 과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중국에 정경숙이가 나와 있어서 거기서 우리하고 대화한 그 내용의 전화를 탐지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뒤에서 조사해 봤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과일 한 상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의심도 해봤지만, 특별히 또 우리 가족은 이산가족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북에 고향이 있고 정경숙이도 이북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 몇 개월 된 아이를 업고 이남으로 피난 온 그런 상태였고, 지금도 우리 부부

는 이산가족입니다. 저도 고향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그곳에 있을 때 제가 20살 때 6. 25사건으로 인해서 남으로 내려왔고 우리 남편도 역시 그때 넘어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산가족이거든요. 우리 경숙이가, 이북에도 우리 친척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도 있었고 6남매 중에 3남매 다 내려오고 또 3남매가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랐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아버지도 거기서 잡혀가셔서 소식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경숙이가 납북됐을 그 당시에 북한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들으니까 정경숙이가 이북에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때 형무소에서 잡혀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희 어머니가 만나고와서 성경희가 옆에서 경숙이가 잘 살고 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듣고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에서 성경희는 어머니가 어떻게 가서 만나기도 해줬는데, 우리 가족은 생사불가라고 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살아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공작을 해서 얘기했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우리 가족은 만날 거라 해서 선물

들 다 사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확인 불가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는 성경희 엄마 만난 후에 얼마 있지 않은 그동안에 생사불가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돼서 우리는 면회가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의심스럽고 거기서 잘 살고 있다는 소리가 거짓말같이 들리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자식들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권단체가 와서 이런 사실을 43년이 지난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도 하려니까 지금 나 이도 먹고 80이 넘어서 말도 어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기억도 자세히 드릴 수 없고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산가족 때에 우리가 당연히 거기서 살아있다면 만나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생사확인을 못한다고 한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고 믿을 수 없는 말이란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 ○ 마르주키 디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마이클 커티

황 선생님 그리고 정 선생님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혹시 세 분 모두 6. 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연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단체에 속해 계십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었는데 만일에 이산가족 단체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소속해 있다면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상봉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단체에 속해 있다면 언젠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산가족들이 다시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 ○ 정현수 부인

저희는 그냥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통일부에 대해서도 제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통일부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대답이 와야지 이쪽에서 제아무리 제 일했다하더라도 그들이 안 만나게 해주면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부와 이북의 관계자들하고 정말 어떻게 얘기가 돼서 성경희는 만났는데 정경숙이는 왜 못 만나느냐? 그런 거로 따져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지, 무슨 답변이 올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경숙이는 그때 납북됐을 때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북한 정치에 대해서 아주 비하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아마 거기서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산가족이 이번에 다시 만

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는 반갑고 한 번이라도 신청해서 다시 만나게 해주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일은 없지요.

### ○ 황인철

저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이산가족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성경희 씨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저의 아버님이 생사확인 불가라는 통지서를 받았고요. 그 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정부 측에 요구했을 때 정부가 이산가족의 범주를 놓음으로서 저희 사건이 정부 측 해결 방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게 된 것이 2010년 6월 17일 날 UN인권 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을 통해서 북한 측이 당시 사건 때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다시 비록 시간은 지났지만 시효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도 KAL기 사건은 날조된 음모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측에서는 전혀 어떠한 문제제기, 반론을 하지 않은 상태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이산가족범주라는 그리고 국민한테 해결하려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의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국제사회의 문제였었고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북한 측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왜 이것이 날조된 음모냐? 날조된 사건이냐? 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했을 때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밝혀야 될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측만 혼자 이 사건은 날조된 음모라고 얘기하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현실적이고 역사적이며 아직도 미해결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세계여론이 움직일 거라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납북자 문제 그리고 납북된 가족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해법을 하나 통해서 점점 해법을 찾아가면서 생전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황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는 2013. 1.에 아버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그때 들으셨는지요.

### ○ 황인철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북한 측에 있는 주민들을 억압돼 있는 주민들을 탈북 시키는, 즉 신뢰성이 있으신 그런 분이 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피해가 갈까 싶어서 잘 정확

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알게 됐고요. 정확하게 저희 아버지가 자기 의사를 밝히시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 마이클 커비

제가 잠시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기록이 될 증언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찌면 선생님과 선생님 아버님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휴식 시간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짧은 질문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적십자와 접촉을 했다는 것은 국제적십자와 연락을 했다는 것과 같습니까? 국제적십자사도 가담이 됐던 것입니까?

○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39명만 부분 송환이 되었고요. 39명이 증언해 준 내용에 의해서 KAL납북미귀환 11인들이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음이 밝혀지게 됐고요. 북한 측에서 당시 얘기했을 때 이분 11명은 의거입북을 했다. 본인들이 북한에 살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그러면 좋다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해서 각자 자유의사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북한 측에서는 답신한 장만 보내놓고 거절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의거입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분들의 자유의사를 밝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안에서 제25차 UN총회에서 항공기 불법 탈취하는 규탄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기하지 못했고요.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 한국이 2~3년까지는 문제를 제기하다가 그 후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서의 관심도가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그 사건이 날조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제가 느끼기에 39명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명은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겠다고 이렇게 전한 것은 사실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닐까요?



## ○ 황인철

예. 맞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한국 방송국에서는 KAL기 사건을 통해서 39명이 증언해 준 내용을 통해서 급박하게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아마 방공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아마 이용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사망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면, 당시 사상 교육시간에 공산주의이론이 틀리다고 반박을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국 가곡 '가고파' 노래를 부르면서 결정적으로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누구 한 사람 저희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게 됐고 저희 고모들하고 식구들이 방송국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39명의 증언에 의해서 왜 11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관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집으로, 그리고 또 제가 UN 쪽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상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 안에서 본인의 의지를 밝히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꺾고 아직까지도 강제 억류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지 못할 큰 범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아버지를 반드시 꼭 만나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소냐 비세르코

이 11명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 황인철

저희 아버지는 당시 영동MBC PD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강릉MBC인데 강릉MBC 카메라맨 그분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 ○ 마이클 커비

세 분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 선생님, 윤홍수 선생님, 그리고 정 여사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서 저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증언을 바탕으로 UN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황 선생님 잡지를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2:15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영복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선생님 오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영복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성함을 저희가 기록에 남겨도 괜찮을까요?

○ 유영복

예. 제가 소개를 하지요. 저에 대한 걸 소개해 드리면 안 될까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우선 저희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셨고, 또 안 전상의 문제가 없어서 선생님의 본명을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유영복 맞으신가요? 또 오늘 6. 25 전쟁 당시 전쟁 포로와 관련해서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저희가 다른 증인 분들께도 요청을 드렸던 바인데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실된 증언임을 저희에게 약속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유영복

예.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전쟁포로였고 1951년에서 53년까지 한국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전쟁포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 북한 다 합쳐서 전쟁포로의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 유영복

정확히 모르지만 인민군 포로가 10만 명이 넘었지요. 그리고 한국국군포로도 비슷한 숫자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53년도 교전협정 당시에 북한으로 돌아간 인민군 포로는 7만 5천여 명, 한국에 돌아온 국군포로는 8,343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포로를 9명 주고서 국군포로는 1명 데려온 꼴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포로는 북한이 상식적으로나 국제법에 의해서 전쟁포로는 마땅히 송환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많은 포로들을 북한에 강제로 억류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아까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전쟁포로가 몇 명

이라고 그러셨지요?

### ○ 유영복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인민군 포로숫자와 비슷한 숫자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343 명이 돌아왔고 인민군 포로는 75,000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8,443명이 돌아왔으니까 나머지가 크게 말하면 10분의 1이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몇 만 명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거죠. 그 숫자를 정확히는 제가 모르죠.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정전 전에 한국군에 계셨나요? 만일 한국군에 계셨다면 어느 부대에 배치가 되셨고 어쩌다가 북한영토까지 가게 되셨나요?

### ○ 유영복

저는 한국전쟁 당시에 1953년 6월 달에 강원도 최전방에서, 제가 소속됐던 대한민국 육군5사단 27연대였는데 제가 포로 됐던 해는 1953년 6월 10일 그러니까 휴전을 불과 한 달 앞둔 그 시점에서 중공군과의 교전 중에 제가 피치 못할 처지에 처해서 제가 중공군에게 포로가 됐던 겁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게 잡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셨지요?

### ○ 유영복

저는 포로될 당시에는 제가 하반신이 다 매몰된 상태에서 도저히 기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포로가 됐는데 그때는 중공군이 저를 포로로 해서 제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니까 자기네에게 병원에서 한 10일간을 치료하고 제가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그때 인민군 포로수용소가 어디 있었냐면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리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다 인계를 했지요. 거기에서 저는 인민군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포로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휴전되는 걸을 보고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 쌍방의 포로들이 교환되리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국군포로들을 그대로 억류해서 강산으로, 제가 간곳이 53년 8월경에는 평안북도에 있는 철산군이라는 데 모나지 광산에 끌려갔어요. 그때 간 국군포로는 600명 정도 같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모나지라는 광석을 캐는 노동을 강요당했고 거기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국군포론데 포로교환에 넣지 않고 여기다 끌어다 일하는가?' 그런 걸 물어봤지만 거기 지휘관들은 '우리는 모른다.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당신들 하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광석을 캐는 일을 1년 하다가 54년도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국군포로들을 제가 소속했던 포로들 한 600명 되는데 실어서 간 데가 어디냐면 함경남도 단청군 검덕광산이란 텐데 북한에서 제일 큰 광산입니다. 거기에 가서 54년 10월부터는 그 광산에서 고역

을 당했는데 거기에 국군포로가 2개 광산에 1,000명 있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때 정확하게 어떤 광물을 캐셨던 거죠? 석탄이었나요?

○ 유명복

아니에요. 평안북도에 있던 모나지 광산에서 캔 광석은 모나지라는 광석인데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 광석 자체가 모래알 같이 돼 있는데 사금처럼 퇴적된 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모래 같은 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 만드는 데 쓰는가 하면 전쟁 때 쓰는 포심이라든가 무기를 만드는데 합금석으로 필요한 그런 광석이라고 그래요. 그걸 파서 그때는 그거를 50kg씩 포장해서 소련에 수출했어요. 그리고 그 광석은 산에서 캐는 게 아니라 이 바닥 밑에서 퇴적된 거 깔리고 그걸 캐는 광석이고, 거기서 1년 하고 검덕광산이라는 데는 뭘 캐는 광산이냐면 연하고 아연을 캐는, 북한에서 제일 큰 광산이면서 북한에서 연아연 광산으로도 크고 광산으로도 제일 큰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아연 광석을 그게 주광이고, 그 광석 안에는 금, 은, 동, 니켈, 수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그 광산서 기본 채취하는 광산은 연하고 아연.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계속해서 전쟁포로로서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면 요구가 들어줬나요?

○ 유명복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벌써 휴전돼서 거기까지, 휴전이란 건 53년 7월 20일 됐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교환에 우리를 넣지 않고 북쪽으로 끌고 가서 강제노동을 시켰는데 그때 우리가 물론 일부 동료들은 왜 우리가 전쟁포론데 우리를 돌려보내주지 않고 광산 일을 시키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도 있고, 항의했던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휘관들은 그런 말을 '당신들은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런 압력과 또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 또는 어디 비밀리에 어디로 떠 데 이송해 갔어요. 그 후에 알고 보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가 더 위험한 데로 끌려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 했다가 피해만 당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자.' 해서 가만히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한국의 속담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야 10년이 가겠냐? 그 동안에 남북관계가 풀리고 우리를 옛날에 전쟁 때 주위에 있던 각 등급별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들이 살아있으니까, 또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 믿고서 참고 기다린 것이지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선생님 얼마나 기다리신 거죠?

○ 유영복

10년도 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10년이 5번 변할 때까지 50년이 가도 누구를 찾으러오는 사람도 없었고 북한도 우리를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1956년 하반기까지는 통제를 하고서 우리를 관리했어요. 인민군 하전사복을 입고 나서 무장보초를 서면서 관리를 했는데 56년 하반기 가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무장보초를 서면서 관리하면 항거도 일어날 수 있고 폭동을 일으키던가,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아마 불안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6년도 말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구상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 국군포로들을 무장통제로 하면 자기네들 비용도 많이 들고 사회적으로 볼 때 북한주민들 보기도 '저 사람들 뭐가? 국군포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56년도 말에 가서는 '당신들도 북한공민으로 인정하고 북한 주민등록을 주겠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당신들도 자유롭게 생활을 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명분 하에 56년도에 말에 가서는 그 광산에다가 고착시키면서 본래 일하던 광산에 놓으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사민화 해서 북한주민등록을 주고 그 광산에서 일을 시킨 거죠.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당시에 광산의 여건이 괜찮았나요? 광산에 일하기가 어떠셨어요?

○ 유영복

당시 일이라는 것은 정말 원시적인 일이 많고 검덕광산은 지하로 1,000미터 내려가는 데도 있고 좌우로 몇 천 미터로 그 광산은 이즈 때부터 광산이기 때문에 아주 큰 광산이야. 거기에 들어가면 공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중노동이고 북한에서 가장 노동 강도가 심한 데가 검덕광산이라 그래요. 북한사람들도 노동 강도가 제일 강한 데가 검덕광산이다. 그 일은 내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지만 중광석을 손으로 데미 같은 데 담아서 광산에 싣고 밀고 하는 이런 원시적인 노동이나 다름없는 노동이기 때문에 광산이나 탄광은 다 힘든데 북한에서 제일 노동 강도가 센 데가 검덕광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전쟁포로로서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중단을 하고 공민증이 나왔으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사신 건가요?

○ 유영복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주니까 그래도 통제를 받고 무장보초를 서고 이렇게 당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민이라고 하면 조금 자유가 있고 조금

낮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기다리면 남북관계, 국제관계가 해결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통일은 몰라도 남북 변화가 생겨서 갈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려고 통제받는 생활보다 조금 낮겠는가?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받았지만 그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보니까 '당신들이 북한주민으로 인정해줬으니까 가정도 이뤄라. 북한 원주민여성으로 결혼하는 것도 승인해주겠다.' 이래서 혼자살 수 없으니까 북한 원주민 여성들하고 결혼하고 했어요. 근데 그건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자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56년도까지는 월급이란 보상을 안 줬거든. 그런데 56년에 주민등록을 주면서 '이제는 당신들이 노동한 것만치 국가가 월급을 주겠으니까 그것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되니까 일을 더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더 힘든 노동을 하고 그 사람들도 더 많은 일을 요구하다 보니까 동시에 포로생활 할 적에는 그 부대에서만 당했는데 사민이 되니까 정치보위부에서 감시하지, 또 인민군 경찰에서 감시하지, 또 일반 원주민들이 감시하지, 또 그 광산에서 감시하지, 주변사람들이 감시를 하지. 오히려 감시, 통제가 더 심해졌고 차별도 심해진 걸 그때 비로소 많이 느꼈지요.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음식은 어땠고요. 받으신 월급은 어느

정도였나요?

### ○ 유명복

북은 그래요. 월급은 국군포로라고 해서 적게 주고 많이 주고는 없어요. 한 것 만치 주는데 그 한 것 만치 주는 그 봉급을 가지고서는 겨우 생활을 유지해 나갈 정도가 되나마나 했지요. 힘들었지. 근데 거기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육체적 노동도 힘들지만 차별대우라고. 국군포로라는 그 신분 때문에 차별과 멸시당하는 그것이 제일 서러운 것이고 그다음에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북한 원주민 여성들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까지 통제하고 감시하고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북한군 포로자식 다 고졸이겠다. 또 국군포로들 다 머저리가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 있지만 하나도 등용 안 하고 광산이나 탄광에 거기에 고착시켜서 일했고 태어난 자식들도 광산이나 탄광에서 일하게 했지요. 제가 있던 광산은 검덕광산이지만 함경북도 쪽에 아오지 탄광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국군포로들이 거기 가서 노동한 거는 여기 제가 와서 같이 동료들이 온 다음에 알고 보면 거기도 많은 국군포로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군포로들의 비참한 생활을 제가 길게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러나 그렇게 비참한 생활이 오래가다 보니까 거기서 흑사당해서 많은 국군포로들이 죽고 정말 조국을 그리고 고향을 그리다 결국 죽어갔는데 북한은 그래도 '북한에 국군포로가 한명도 없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말해서 자기 고향이 남한이고 부모, 형제가 있는데 아주 힘든 원시노동을 하는 북한의 검덕광산이나 아오지탄광에 가서 내가 일 하겠다고 떨어졌을 국군포로가 있을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사람은 없겠는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거기에 국군포로 남은 것은 본인들이 거기에 남고 싶어서 남았다는 이런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권탄압을 하고,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이 부러먹을 대로 다 부러먹고 있는 70, 80이 넘는 노인들이 불과 이제 북한 언론에 나온 것은 한 500여 명 정도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고 보내주기는 고사하고 본인이 탈출하고 오는 것마저 막고 붙잡아다 탄압하고 처형하고 심지어는 탈출해 온 국군포로의 자식들까지 탄압하고 통제하고, 이런 비인도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이런 문제를 많이 좀 상기시켜가지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 해 주기를 바랍니다.

○ 마이클 커비

노동당을 가입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까?

○ 유영복

국군포로들을 주민등록을 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자신들이 일도 잘하고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노동당원도 될 수 있고 차별 없이 원주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국군포로들은 태어나는 자식들도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비참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해서 노동당원이라도 되는 것이 자식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열성적으로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 말한 것이 있으니까 몇 명은 시범적으로 몇 명을 노동당원으로 입당시켰지만 그 사람들 실제 명색 상 당원이지 발언권이나 그런 것은 없었지요. 몇 사람은 입당시킨 예도 있어요.

○ 마이클 커비

노동당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중요성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요?

○ 유영복

노동당원이라는 것은 북한은 다른 사회와 달리 성분을 위주로 하는 사회지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부모들이 어떤 생활을 한 가정이나, 그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가, 애국자이나, 이런 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데에서 기본 표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조선 노동당원이 되는 그 사람들은 북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 인정받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신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당원이 돼야만 간부도 될 수 있고 어디에 가서 사람대우를 받기 때문에 북한 청년들은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라도 조선노동당원이 되겠다는 것이 최대 목표이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런 것은 북한에서 바라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죽으나 사나 노동당원이 돼야 북한에서는 사람대우를 받는다. 첫째, 두 번째는 그래야 출세의 길이 열린다. 그래야 자식들도 덜 차별받는다. 이것이 가장 욕망이기 때문에 노동당원이 되려고 애쓰는 거지요.

### ○ 마이클 커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원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못되셨습니까?

### ○ 유영복

저도 노동당원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정말 제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쳐서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말은 그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자신의 지시에 잘 움직이면 당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제가 총력을 다 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받아주지 않아서 당원이 되지 못했어요.

###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의 생활환경, 생활조건은 더 향상이 되었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광산에서 일하시는데 생활환경은 어떠셨습니까?

### ○ 유영복

생활환경이 더 나아진 것은 없고, 나아졌다는 게 56년 말까지 제가 중노동을 했는데 제가 건강

상태도 나쁘고 그래서 더 이상 중노동을, 그 쇠들을 캐는 노동을 해서는 제가 견뎌낼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노동을 배워서 기술노동을 했지만 그래도 건강이 나빠서 제가 결핵에 걸려서 몇 년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고 그랬지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생활이 편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서 이겨내다가 반드시 죽지 않고 조국 땅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고충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버텨내면서 한국 정부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한국 정부의 손길이 없었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저는 기대를 크게 했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왔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6.25전쟁 때 최전방에 나갔던 사람들이 포로된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방에 나갔던 국군포로가 다 죽고 불과 몇 명 남지 않았고, 나이가 70~80, 그때 제가 만70세야. 2000년도에, 제가 6.25전쟁 맞이할 때 20살이니까 2000년도에는 제가 만70세였던 말이야. 그때는 거의 다 죽고 몇 명이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 오셔서 김정일한테 “당신들이 부러먹을 대로 다 부러먹고 이제는 70~80 백발노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총 들고 북한 쳐들어오겠느냐, 그 사람들 풀어줘라.” 이런 말이 있을 줄 알았지. 그리고 한국도 당신들에게 쌀도 지원해 주고 비료도 주고 북한이 말한 장기수도 돌려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김정일도 국군포로 한 사람이라도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없



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내 발로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 대통령이 와서 데려가지 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국군포로 달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왔다가 간 다음에 한 달 후에 그때가 만70세야.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내 발로 대한민국 찾아가리라.” 그러면서 두만강을 넘어서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때가 만 70세야.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국군이었다는 본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는 대한민국을 찾아가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버텼어. 그런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고, 내가 아까 말 했지만 나는 기술노동을 하다보니까 막노동을 한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고 봐야지. 그래서 끝내 저는 내 발로 내가 두만강을 넘어서 한국에 찾아온 거지요.

### ○ 마이클 커비

그래서 두만강을 언제 어떻게 건너셨습니까?

### ○ 유명복

내가 두만강을 넘은 것은 2000. 7. 20.에 제가 떠났는데 이미 저도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아내도 있었어요. 아내는 벌써 94년도 김일성이 죽던 해에 아내는 생활고에 이기지 못하고 먼저 죽고 저 혼자 남아서 간신히 6년, 94년도에 죽었으니

까 6년은 저 혼자서 간신히 정말 이어나오다가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오신 것보고 ‘이제는 기대할 때가 왔구나.’하고 중국에 보따리 장사하는 36살 먹은 여자가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여자를 따라서 “나랑 중국까지만 같이 가자.” 그 36살 먹은 여자는 중국에 보따리 장사 몇 번 다녀왔으니까, “나를 좀 데리고 가라.” “아버지, 가다가 붙잡히면 죽어요.” “나는 이미 전쟁에서 많은 죽을 고비도 넘긴 사람이고 또 북한에서 살아봤자 산 목숨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살만큼 70세까지 살았다. 만약에 가다가 내가 하늘이 도와서 대한민국을 찾아가면 좋고 못가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가는 길만 가자.”고 해서 두만강까지, 그 보따리 장사는 중국에 다녔으니까 가는 길이지. 일주일 걸려서 두만강까지 와서 거기 주변에 있는 마을 노인들한테 이전과 같이 그 여자가 “두만강 넘는 데 제일 낮은 길이 어디냐.” “여기” 그것만 그 노인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보따리 장사하는 여자하고 들어서 그 인민군 보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노인이 와가지고 보초들이 언제 휴식하는가, 그래서 노인이 나가서, 나도 노인이지만 그 노인이 나가서 주변 사람이니까 인민군 보초가 다니는 것을 감시하다가 새벽 2시나 3시 됐겠어. 그때 와서 인민군들이 지금 들어가서 쉬다고, 그 날이 바로 7. 27. 북한이 말하는 정전협정, 자기네는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보초서던 사람들도 피곤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그 사

이에 들어서 두만강을 넘었는데 물에 그냥 옷을 입은 채 들어갔어.

○ 마이클 컐비

몇 년도였습니까?

○ 유명복

2000. 7. 27.

○ 마이클 컐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셨고 중국에 가서는 북송당할 위기는 없었습니까? 북송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없었습니까?

○ 유명복

그때는 제가 북송이라는 그런 깊은 것은 모르고 그 보따리 장사만 따라다니면, 그 보따리 장사가 은폐할 수 있는 곳을 세 군데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따리 장사만 따라다니면 안전하겠다고 믿었지. 그때 두만강을 넘을 때는 뒤에서 누가 총을 쏘지 않을까 위험을 느꼈지만 중국에서는 그 여자만 따라다니면서 숨어 다니면 북송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만 따라다니면서 한 달을 숨어 다니다 보니까, 또 그 보따리 장사하는 여자도 잘 몰랐던 말이야. 중국만 가면 한국과 왕래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막 가는 줄 알았던 말이야. 와 보니까 여권이 있어야 한국 간다는 거야. '아, 중

국에 와서 한국에 가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권이 있어야 한국에 가는구나.' 이것을 처음 안 거지. 나는 중국에 가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왕래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막 가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 와 보니까 그 여권이 없으면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 오면 한국에 마음대로 다니다더니," "여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다보니까 수소문해서 그때 여기로 말하면 브로커라고 하는가? 그것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는데 도와 달라." 도와줄 수는 있는데 당신이 돈을 내야 된다고는 거야. "내가 돈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돈이 없다." "한국에 가서 당신이 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받으면 줄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당신 서울 사는 데가 어디냐?" 어디 살았다고 하니까 이 브로커들이 알아봐서 "한국에는 94세 된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다. 여동생도 살아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야. "아들도 있다."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가 새로 어머니를 만나서 태어난 자식 아들이 있다." "통화를 한번 해 달라." "통화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브로커들이 통화를 한 거지. 그 아들은 내가 보지 못한 아들이야. 이북동생이니까. 그 아들이랑 통화했는데 그 아들은 "이미 벌써 우리 아버지한테서 아들이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6.25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전사 통지가 와서 서울에 국군묘지에 이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중국에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그 아들이 국방부에 물어본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전사자로 처리하지만 행방불명으로 처리했다. 혹시라도 북한에 끌려갔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가봐라.” 이렇게 돼서 그 아들이, 이북동생이 중국에 넘어온 거야. 그래서 그 아들에 의해서 한국에 온 거지.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그 아들이 국방부에 알아보고 올 적에 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데려와야 되겠는데 데려올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70대 때 아버지 사진을 찍어서 가짜 여권을 거기 붙여가지고 나하고 아버지 모습이 아마 비슷했는지 모르겠어요. 70대 사진을 거기다 붙여서 가짜 여권을 하나 만들어서 중국에 넘어간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만났지. 그래서 결국은 그 여권을 또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 그거를 중국공안에 식량 비행장에 통과시키는 거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고 간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8월 30일 날 그러니까 7월 27일에 내가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 가서 8월 30일, 한 달 3일간 있었나? 이려고 왔지요.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광산에서 노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가시기 전에 그리고 한국에 오시기 전에 광산에서 일을 하셨는데 당시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

지 노동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셨습니까?

### ○ 유명복

물론 불만은 있어도 북한사회에서 북한체제에 대해서 라든가 북한 모든 데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가는 어느 새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에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했죠. 표현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없었고 그런 불만을 표시했던 동료들이 많은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거기서 표현하지 못했고, 저는 정말 불만이 많았지요. 그렇지만 표시를 못했고 아내가 94년도에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당신이라도 살아서 당신이 말하는 한국에 돌아가 보라. 거기에 가족도 있고’ 이런 말을 남기고 아내가 먼저 죽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서라도 내가 한국에 찾아가라.’란 그런 의지를 뻗쳤고 물론 마지막 제가 넘어올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때를 근심할 때가 됐어요. 굶어죽느냐? 마을 사람들은 ‘저 아버지가 굶어죽는다.’ 그런 말들이 많이 들었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제가 의지가 강했는지 그래도 저는 버텨내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으니까 결국 탈출해 간 거고, 제가 여기 와서 바라고 싶은 것은 이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와서 내가 할 일은 같이 고생하던 동료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분들이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내

가 여기 와서 증언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내가 고상하게 말하면 사명감이고 보통으로 말하면 도리가 아니겠느냐? 같이 고생하던 동료들이 그렇게 조국을 그리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모습들을 살아온 사람이 누군가를 증언해줘야 될 것 아닌가? 한국사회도 모르고 국제사회는 더더욱 모르고 있으니 이런 6. 25 전쟁에 비참하게 북한에 강제 억류됐던 수만 명의 국군포로가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한국사회도 증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증언해서 북한의 이런 만행은 세상에 고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전 고상한 말로 말하면 사명감이고 도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 군데에 이런 말을 증언했고 처음에 와서 내가 가명을 썼어요. 그러나 내가 온 지가 13년이 됐기 때문에 가명을 쓰지 않겠다. 내 이름 그대로 쓰고 얼굴도 내라. 내가 북한에 가서 뭘 잘못된 게 있나? 내가 북한에 47년간 있었는데 당신들 하라는 대로 36년간은 북한이 일 다해줬고 10년 간 늙어서 부러먹지 못하니까 10년간은 늙은이로 있었는데 내가 북한에 뭘 잘못된 게 있어? 당시에 해달라는 일 다 해줬고 죽기 전에 부모, 형제가 있는 한국에 찾아온 게 뭐가 잘못된가? 또 당신들이 그런 사실이 있는 거 내가 증언한 것이 뭐가 잘못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쓰고 제 얼굴을 내고 제가 부족한 글이나마, 여러 사람들을 다 알려줄 수 없잖아. 그래서 비록 부족한 글이나마 글로 써서 알렸더니 한글로 쓴 책이 미국의 어느 재미교포가 제가 한

글로 쓴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간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한 권씩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내 생활을 기본으로 했지만 여기에는 국군포로들의 생활도 일부 썼고, 제 학식이라는 게 6. 25 야간중학교 다니다 간 사람이 공부한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쓰지는 못했다. 문학적으로 쓰지 못했지만 사실대로 쓴 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 번역해서 여러 분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위원님들에게 한 권씩 드리고 다른 거 물어보는 말들 제가 더 증언해 드리지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책을 받았습니  
다. '피의 눈물'이라는 제목인데 맞나요?

○ **유영복**

제가 한국 책 제목은 '운명의 두 날'인데, 근  
데 여기에 영어로 번역한 거는 '피눈물'이라고 번  
역됐다고 해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한국어로 제목이 뭐라고 그러셨죠?

○ **유영복**

'두 날의 운명.' 이 제목을 이왕 여기에 위원  
들이 오셨고 여러 분들이 몇 명 참가했기 때문  
에, 왜 책 제목을 두 나라의 운명이라고 달았는  
가?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 생활경

로가 복잡해요. 제가 6. 25 전쟁을 맞을 때 20살 인데, 야간중학교를 다니다 6. 25 전쟁을 맞아 서울을 떠나니까 인민군대가 들어와서 강제로 끌려가서 제가 인민군대에 끌려간 날이 몇 날 있어요. 그 거기서 탈출해서 결국 오다가 국군을 만났는데 하루라도 인민군들 따라다녔다는 죄로 저는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끌려가서 2년 동안을 생활하고서 '나는 의용군이라는 데로 강제로 끌려갔다가 탈출해 온 게 아니냐?' 그런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2년간 생활하다 나와서 국군에 입대해서 내가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국군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용감히 싸우고 잘 싸워야 되겠다.' 아버지도 '너는 비록 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인민군대에 며칠간이라도 끌려 다녔기 때문에 국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전공을 세우고 돌아와야 네 과거의 과오흔적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군에 나가서 정말 최전방에서 용감히 싸워서 전공을 제가 세웠다기 보다도 저에게는 파랑무공훈장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70대 때 본부대에 보사단에 가서 전역실 할 적에 그 사단장이 말하는 게 '당신은 국군으로서 잘 싸웠지만 비록 피치 못할 상황에 포로가 됐어도 북한에 끌려가 그 어려운 광산노동을 이겨내고 또 그 어려운 길을 헤치고 두만강을 넘어서 본부대에 만70세에 돌아온 사람은 부대에 당신 하나다.' 이러면서 '당신에게는 이미 파랑무공훈장이 나와 있었다.' 이거를 그때 제가 수여를 받

았어요. 그래서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분들이 많지만 저에게 이런 과분한 훈장을 받는 영예를 한쪽으로는 기쁘고 한쪽으로는 좀 송구스럽지만 받았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포로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호를 못 해줬다고 하셔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지 못했 다. 한국의 전쟁포로 권리를 잘 지켜주지 못했 다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게 맞 으신지요?

### ○ 유영복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말보 다도 현재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정치인 들은 6. 25을 겪어 보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그 당시 휴전 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분들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전협정 당시의 포로 교환문제를 북한이 억지 주장으로 그렇게 해서 그 종결돼서 정말 불공정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그거를 말하진 못하지만, 늦게나마 이제라도 국군포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북한에 요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은 하지만,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된 문 제를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신데 그분들에게 주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적

극적으로 해서 나머지 국군포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이거를 제가 제기하는 부분이죠.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의 책을 저희의 증거 S17로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에게 책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동료 분들의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어찌면 질문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 ○ 마이클 커비

저희에게 워낙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크게 드릴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금 한국의 재향군인회 같은 단체가 있나요? 이런 재향군인회가 있어서 이 전쟁포로 사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군인들의 단체가 있다면 좀 더 전쟁포로의 문제를 좀 더 잘 다루어서 좀 더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 ○ 유명복

한국에 재향군인회도 있고 6. 25참전 전우회도 있고 또 6. 25전쟁에서 부상당한 전우회도 있

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국군포로 문제는 그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재향군인회나 6. 25참전전우회는 그분들은 이미 군대에 갔다 와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고, 물론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는 대한민국 국방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군포로 문제는 때가 늦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올 때 제가 만 70세인데 13년, 이제 국군포로가 북한에 언론에는 몇 명 살아있다 했지만 그분들을 말로만 했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국방부가 얘기를 해도 북한이 억지 주장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 국제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될까 하지만 이제 국군포로가 과연 북한에 몇 명 살아있겠는가, 다 80세가 넘었는데, 물론 몇 년 전에도 50명 지금도 50명, 과연 몇 명 살아있다고 합시다. 그 분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가족들이 있고 손자까지 있는데 늙은이 하나 데려다 여기에서 돈을 100억을 준다고 한들 혼자 와서 뭐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때가 너무 늦었다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국제사회나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인도주의 문제에서 합의가 돼서 해결한다면 그 국군포로가 와서 같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들까지 같이 보내겠다고 합법적으로 합의가 되

면 좋지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그 합의를 들어 줄까요?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면 혼자서 탈출해 와야 되겠는데 탈출해 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2011년까지는 그래도 한 명 두 명 탈출해 왔는데 이제는 거의 없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국제사회나 한국 정부하고 정말 정식으로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에 대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남아있는 국군포로를 도울 수 있게 하면서 보호자까지, 아들이나 딸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기 전에는 이제는 국군포로 문제를 데려오기를 기다리기보다 탈출하게끔, 그것은 힘들다. 그러나 물론 그 문제를 계속 우리가 언론이나, 북한이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들겠어요? 또 국군포로가 이제 다 늙어서 죽어가는 분들인데 어떻게 탈출해 오겠느냐 이거야.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북한을 정말 압도적으로 하기 전에는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공개해서 몇 만 명의 국군포로를 이렇게 탄압하고 정말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는 몇 사람이라도 북한이 이렇게 하면 되냐. 당신이 말로는 인도주의고 뭐 민족들이고 화해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을 물건으로 말하면 폐기처분한 물건 아니야? 폐기처분하다시피 한 인간을 왜 안 돌려보내느냐. 보내주라. 이렇게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

고 한국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그 북한이 들으면 모를까 안 들을 때는 과연 이 문제는 힘들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한국 전쟁에서 수만 명의 국군포로가 비참하게 북한에 끌려가서 인권탄압을 받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기를 바란다는 것.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것을, 이 젊은이는 더군다나 모르지요. 6.25전쟁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국군포로가 뭔지 알겠어요? 또 심지어 한국 정부의 정치인들도 국군포로가 뭔지 몰라요. 내가 여기에서 말하면 2000년도에 통일부 장관한 박재규라는 분이 뭐라고 하였는가? “53년도 휴전이었던 때에 다 국군포로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국군포로는 법적으로 없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다음에 임동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했는데 국정원장이 “아, 그 휴전협정에서 해결 했는데 그런 일 없다.”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신문에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임동원이나 박재규가 2000년도에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할 당시에 벌써 국군 포로가 10명이 넘어와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심사할 때 내가 국군포로고 북한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말 안 했겠는가, 그러면 임동원이 국정원장 하면서 그것을 다 보고 받았겠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2000년도 통일부 장관도 “다 법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다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때 휴전협정 당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진상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없다. 법적으로 국군포로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아예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예? 나 혼자 와서 떠들어서, 우리 국군포로가 넘어오기는 80명이 넘어오고 유해를 본 사람이 다섯 사람이야.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유해는 내 고향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아들딸들이 유해를 안고 넘어온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죽은 국군포로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 그때 다 해결해서 국군포로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국정원에서 국군포로는 다 말하고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그런데 국군포로한 사람이 80명 중에서 벌써 29~30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나와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봐 말도 못하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초등학교도 못가고 국군에 간 사람이 많아. 여기에 나와서 제대로 표현할 만한 사람도 이제 늙어서 없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증언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하고 같이 고생하던 동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것 알면서도 내가 나가서 얼굴 비추고 말하고 세상에 알려지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해당하지 않겠느냐, 또 내가 나가서 어떻게 말해야 좋겠는지, 이래서 그 사람들 얼굴 비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런 사실을 내가 증언하지 않고 있으면 이 몇 만 명의 국군포로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죽은 사람이 와서 말하겠는가. 나라도 말을 해 주자. 이제 내가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려고서 나는 서슴지 않고 증언하는 거야.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내가 이런 말하면 정부를 비난한다고 한 것 같지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직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최전방에 나가겠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무에 따라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으면 명령만 하고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지휘관은 능력이 없는 지휘관이에요. 나가라고 명령만 하고 잘못됐을 때 나는 모른다고 이런다면 국가안보가, 이것은 안보하고도 절실히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늙은 국군포로 데려다가 국가가 써먹을 데는 없지만 나라 위했던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현역군인들도, 내가 보태서 말할게요. 북한은 7만 5,000명 인민군포로 다 데려갔거든. 또 장기수 64명 다 데리고 갔지요. 64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평양에 데려가서 최고로 환영해서 영웅대우 다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청년들은 뭐라고 하나면, “나도 죽든 살든 나가서 싸워보겠다. 싸우다 잘못돼서 포로 되면 국가가 다 데리고 오고,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잘못돼도 정부가 다 데려다가 영웅대접 해 주는데 나도 좀 나가겠습니다.” 북한은 인민군에 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안 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 북한은 왜 그러냐면 나갔다가 잘못되면 국가가 다 데리고 오잖아.

### ○ 마이클 커비

북한에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온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한국이라든지 남한이나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혹시 아시는지요.

### ○ 유영복

저는 북한에 가서 뭐 국군포로는 내가 같이 생활한 사람이 천 명 정도이고 또 책에도 썼지만 다른 부대로 편성해서 아홉 개 부대로 편성해서 뭐 많이 썼는데 북한에 가서 나는 국군에 나갔다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 어떤 국군은 “나는 국군이었는데 6.25전쟁 때 한 개 부대를 데리고서 북한으로 넘어왔다. 투항이지. 투항. 나는 인민군들에게 포로는 됐지만 즉시 인민군들과 같이 협력해서 인민군에 편입해서 싸웠다.” 이런 사람도 내가 다 만나봤고 인민군 포로로서 거제도 수용소에 7만 5,000명이 갈 적에 나와서 북한 생활한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 또 6.25전쟁 때 인민군대가 서울에 들어와서 의용군으로 끌려간 사람 5만

명 돼.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이 얘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런 자발적으로 북한에 간 투항자도 있고 귀순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내가 여기에서 증언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묻지도 않은 것 말하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도 봤지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로 오늘도 토론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 국방부에서도, “이산가족 할 적에 국군포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라.” 이산가족에 나오는 국군포로는, 사람이나 모든 게 명분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명분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국군에 나갔던 사람이지만 과연 그 사람이 국군에 나간 것은 옳다. 그런데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북한에 갔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국군에 나갔다고 해서 다 국군포로가 아니에요. 북한에 간 게. 북한에 간 행적을 따져야 돼.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나, 탈출해서 거기에 간 놈도 있고 귀순한 놈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포로가 된 사람도 있어. 그 행적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분과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증언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다 만나봤지요.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몇 있어요. 그 사람들 아마 이제는 후회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리고 이제 국군포로도 이산가족으로 나온다. 실제로 탄광광산에서 국군포로 된 사람이 이산가족 대상으로 과연 나오겠는가, 거기에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의용군에 끌려갔든가 또는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다가 거기에서 투항에서 거기에서 괜찮게 대우를 받고 산 사람들 중에 대상자로 뽑히든가 하지 나 같이 광산탄광에 가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산 사람들을 이산가족 면담에 내놓겠는가,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을. 그만하지요. 뭐. 더 뭐 (웃음) 여러분들 들었으면 알만해요.

### ○ 마이클 커비

선생님,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증언을 저희가 고려해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 선생님께서는 저희 3명에게 영문본인 피눈물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증거물 S17로 저희가 채택하겠습니다. 이제 안용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함은 안영수이십니까? 그리고 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포로에 대한 증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1970년, 75년, 66년에서 75년 당시 실종했던 국군포로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선생님의 본명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본명을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신 것이 맞습니까?

### ○ 안용수

동의합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께서선 선생님의 본명을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해주실 증언이 진실된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 ○ 안용수

예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지난 24시간 동안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디만, 저희가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처럼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해서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간략하게나마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주신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사실 이 공청회에서는 아, 제가 이 수신기를 끼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용수

인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보호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정부는 인권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전쟁포로,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실종됐던 국군포로에 대한 진실을 아주 오랫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료회의라든지 이러한 석상에서 베트남전 당시에 실종되었던 혹은 납치되었던 한국국군 전쟁포로에 대한 것들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께서서는 상당히 많은 국군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단 한 명도 전쟁포로가 없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국군들은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영어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일부 청중에 계시는 분들이 선생님께서 영어로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례가 되지 않으면 한국말로 편안하게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0만 명의 국군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료회의에서 단 한 명도 국군포로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당시 어떤 행정부였지

요? 그리고 그 행정부는 민주투표로 선출된 행정부였는지요?

### ○ 안용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군부독재시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73년 3월 27일 국무회의입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왜 국군포로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한 입장을 한국 정부가 취했을까요? 왜 베트남전 국군포로에 대해서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 ○ 안용수

처음에는 책임자들이 책임문제가 생길 것 같은 염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돌아오면 훈장을 받고 진급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은폐를 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다는 일종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정부와 그 당시에 베트남 참전을 통해서 어떤 협의를 할 때 유리한 용감성을 내세워서 좀 더 많은 경제적 원조를 얻고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당시 지휘관들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어쩌면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싱가포르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들이 호주 군에게 항복을 했는데 일본 제국에 그것이 망신을 준다고 하여서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습시다. 따라서 전쟁포로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동방의 문화적인 그러한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박정희의 군사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 ○ 안용수

두 가지 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포로가 되면 포로에 대해서 포로도 하나의 신분인데 수치로 여기는 그런 동양문화권의 의식이 있고, 또 당시에 어떤 만용적인 과시, 우리는 연합군 어느 나라보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쭙고 싶은 것은 베트남의 공산정권은 한국군 전쟁포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습니까? 한국군 전쟁 포로를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 베트남의 공산정권의 입장이었는지요?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 베트남의 군사정권의 입장이었습니까?

어떤 정책을 취했습니까?

### ○ 안용수

65년도에 김일성이가 비밀리 하노이를 방문해서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밀이 그 당시에 북한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당시 우리보다 GNP가 높았는데 한국군 1명을 넘겨주면 3,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3,000달러는 당시의 육군총장의 연봉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거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결 후에 소수의 포로들은 베트남이 석방을 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석방을 시킨 예는 없고 또 여러 가지 또 미비한 자료들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베트남 정권이 국군 포로들을 계속 억류했습니까? 아니면 북한으로 보냈습니까? 김일성과 하노이가 맺은 군사협정에 의해서 베트남 정권은 국군 포로들을 계속 억류를 했습니까? 아니면 북한으로 보냈습니까?

### ○ 안용수

사실 그런 문제는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방부는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수십 년 동안 할 수 없

이 전국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외무부 기밀문서에 의하면 7명이 확실히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기록이 돼 있고 현재 탈북해온 고위 장교들을 보니까 약 20명 정도가 베트남에서 포로가 됐다가 납북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서울대학의 어떤 한 교수는 베트남을 방문한 이후에 100여 명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넘겨졌다는 그런 주장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저희의 사명감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입니다. 베트남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 아시고 계십니까?

### ○ 안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따라서 저희가 초점을 뒤야 되는 부분은 북한 정권이 범한 인권유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한 정권이 북한 인권유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하겠지만 베트남 정권에 관한 것은 논의 사항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 안용수

예. 알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광산에서의 강제 노역에 대한 이슈도 제기를 하고요. 특히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제분이 어떻게 납북이 되었고 가족이 그 이후에 어떤 대우를 받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북한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태도, 또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형제분이 어떻게 납북되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 안용수

베트남에 파병될 때는 청명명호 전투부대가 기 전에 최초로 선발됩니다. 그 부대는 130명 소규모의 대민봉사단이었기 때문에 전 군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서 뽑아갔습니다. 형님은 통신병이었는데 전 군에서 유일하게 한 명 통신병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1년 근무하고 근무 성적이 우수해서 1년 더 근무하고 2년 근무하게 되었고 그리고 형님이 영어와 베트남어를 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이공에 있는 미군 병창부대에 가서 의약품을 수령해 오는 그런 역

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공 무출장을 사이공을 갔는데 거기에서 베트남들에게 억류가 되었습니다. 사이공에는 당시에 상당히 많은 베트남들이 있었고 그 베트남 때문에 나중에 사이공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밀림을 끌려 다니면서 베트남들의 임시 포로수용소나 혹은 하노이에 있는 수용소에 억류돼 있다가 당시 비밀리에 활동하던 북한군사장교들, 심리장교들이라든지 군사고문단 장교들에게 넘겨졌고 그들이 강제로 중국을 거쳐 납북해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군인에 대해서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의 형님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런 조치를 취해서 납북한 것인가요?

○ 안용수

군인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었다가 납북된 사람이 있고 또 포로가 되었다가 복송 도중에 탈출한 그런 장교도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니까 형이시지요? 우선 선생님의 생일과 형님의 생일을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

○ 안용수

형님은 1943. 9. 30.생이고, 저는 1952. 10. 10. 생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형님이 뭐 북한군에 의해서 억류가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베트남 북부에서 북한으로 까지 납북됐다는 그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아셨지요? 전에 획득하신 비밀 서류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인가요?

○ 안용수

들어있었고, 형님이 마지막 편지를 보낸 이후에 귀국하지 않자 저희 아버님이 17개월 동안 국방부와 형님 부대와 주월사령부로 계속해서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계속 기다리라고 대답을 하다가 1967. 3. 27. 무렵 아침 일찍, 아버님이 당시 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학교 정문 앞 문구점을 운영하신 아주머니가 뛰어와서, 당시 대구 문화방송과 평양방송 채널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문화방송을 들었는데 그날 채널 트니까 아버님이 이름이 나오고 학교 이름도 나오고 형제들 이름이 나오니까 남한방송인줄 알고 계속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평양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것을 알고 저희 집으로 와서 알려주었고, 저희들도 한번 라디오를 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아버님이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니깐 그날 밤 자정에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 두 명이 와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마지막 공무출장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포로가 된 다음에 북한장교들에게 넘겨져서 중국을 거쳐 강제 납북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국제적십자사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방송에서 형님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니면 기자나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형님의 상황에 대해서 나열하듯이 쪽 읽어나가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 안용수

당시에 형님 목소리는 목이 쉬어있었고 뭔가 원고를 읽는 말투로 계속해서 북한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님뿐만이 아니라 당시 납치해 가면 다 북한 당국이 써주는 원고대로 다 그렇게 방송하도록 돼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형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으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 안용수

기밀문서가 2009년도에 공개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형님이 75년 말에 탈출하려다가 체포되어

서 평양 근처에서 총살이 됐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정부당국은 지금까지 은폐를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처형된 연도가 몇 년도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용수

내가 제출한 DSC서류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전쟁포로라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중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사망하신 거네요.

○ 안용수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형님이 북한으로 납북이 되셨는데 납북이 되었다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생활이 어땠나요?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선생님이나 선생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나요?

○ 안용수

얼마 후 우리를 관리하는 기관이 중앙정보부에서 국군기무사 사령부로 바뀌고부터 상당한 어

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학교장 강제 사직을 당하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강제사직 당한 이후에 우리를 잠재적 간첩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관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강제 사직 이후에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학습교재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임시논문생활을 했고 가족들은 갖가지 인권유린을 당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타와 고문도 당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형님이 북한에 의해서 잡혀서 북한과 관련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의심스러운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건가요?

### ○ 안용수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정부기관의 아주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어떤 정보 한 건당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 누명을 씌워서 간첩으로 몬다든지 현재 간첩 누명을 겪은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간첩을 만들어서 기안을 올리면 포상금을 받고 진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그런 이유로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누군가가 가족을,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감시해야 되는 사람들, 잠재적인 스파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 ○ 안용수

당시에 남북 긴장관계가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에 특히 김신조 청와대 침입사건이 있었고, 그 해가 바로 형님이 납북된 그 다음 해였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여기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서류네요. 커버도 훌륭하게 갈색으로 마련해 주셨고 사진도 있는데 이 파일의 내용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형님의 군 서류인가요? 어디에서 구하셨나요?

### ○ 안용수

지금까지 국방부는 우리가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지만 늘 우리에게 증거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2008. 5. 제가 알지 못한 어느 기자가 해제된 외무부 기밀문서, 월남전에 관한 기밀문서를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형님이 포로로 돼 있고 포로 명단도 있고 국방부장관이 포로 석방을 요구하는 문서도 있고 심지어는 국무회의에서 포로는 없다고 의결한 문서가



나와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육군정보공개청구를 하니깐 30년 이후에 형님에 관한 문서가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우리 형님과 직접 관련된 문서를 추려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것이 바로 그 정보공개법 하에 공개된 정보인 건가요?

○ 안용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문서의 내용이 뭐지요? 이 문서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군이 형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지요?

○ 안용수

가장 중요한 문서가 모든 군인들이 각자 행정반에 비치된 개인 인사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1, P2가 Personal Record인데 거기 보면 형님이 66년 9월 9일 실종되고 실종되면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전투 상부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관들이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 보면 정상 근무자로 이렇게 취급을 했고 10월 1일 날 인사명령을 내리고

11월 18일 날 인사명령에 대해서 확인한 일지가 인사기록부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남방송 평양방송 3월 27일 7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두고 은폐를 해두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의 형님이 그렇게 잡혀서 이제 북한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군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 안용수

북한 정부에 대해서 포로송환을 요구를 해야 되고 납치행위를 중지해야 되고 납치된 한 사람을 대남 심리전 이용을 그만 두라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런 입장을요. 한국의 군 당국에 전달하신 적이 있으세요?

○ 안용수

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 안용수

더 이상 의견을 제기하지 말라. 심지어 고압으로 욕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형님이 북송 당했다고 아시는 그 시기와 돌아가셨다고 아시는 그 시기는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 안용수

약 8년간 북한에 체류한 걸로 생각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생각에는 형님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베트남전 당시 상황은 상당히 참혹했고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전을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님이 베트남전의 참혹함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에 자발적으로 갔을 수 있겠다는 생각하십니까?

○ 안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부대는 전투부대도 아니고 병원에 있는 행정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귀국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아버님이 당시에 교장이었고 청와대 교육행정관까지 내정돼 있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구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고 형님은 반공교육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받은 세대였습니다. 북한에 가게 되면 가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베트남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바인더에 있는 문건과 추가해서 저희에게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고, 또한 형님의 실종 납북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가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독립성이 없었다고 항의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용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반쪽짜리 명예회복을 만들어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여기고 있고 과거 정부의 은폐행위를 지금도 재은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행정부의 고유 업무를 법원에 떠넘겨서 법원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위증도 해서 어쨌든 자기들은 무혐의 처분을 법원은 받았다고 지금 그걸 근거로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벽 밑에 보면 확대된 국가기밀 문서가 있는데 저기 보면 거의 국가행정부에 불법행위가 전부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저렇게 많은데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그 말은 들은 법원에서도 지금까지 과거 정부 잘못

한 것이 없다고 판결을 해놨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께서서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그러면 생각하시는 건지요?

### ○ 안용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분들은 실무자들이 아마 허위보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베트남전의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정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해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리고 또 있습니까?

### ○ 안용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베트남전의 실종자들을 찾는 부대가 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베트남전에 대한 부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국회에서도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자신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했기 때문에, 포로가 없

다는 기존 입장이 40년 넘게 돼 왔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는 포로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내부적으로 '포로를 왜 은폐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두 번째 문서를 보면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한 요청이 법원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러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면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의 일부만이 저희의 위임사항에 일치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 안용수

이해는 하지만 행정부의 이러한 잘못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심지어 비밀심리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비밀심리를 해가면서 재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법권으로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사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취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할 권리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권고를 할 수는 있겠

습니다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반을 해서 사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의 수임사항과는 조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1950년~5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한국전쟁과 63년~65년 베트남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전쟁포로와 관련해서 지원을 충분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희의 수임사항과 일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안용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안들과 증언들을 저희가 채택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시간상 때문에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선생님께서 주신 이러한 문건들을 정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료들이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안 선생님의 형님과 같은 경우와 비슷한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까?

○ 안용수

박성렬 병장이라고 베트남전에서 포로가 됐다가 납북되었다가 대남방송에 이용당하고 형님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 조사를 한 결과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박 병장님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 해주십시오.

○ 안용수

우리 가족처럼 월북자 가족으로 몰려서 가족들이 상당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합쳐서 뭔가를 활동하자고 했는데 그 가족들은 너무나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예를 들면 이런 모임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나타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 마이클 커비

하지만 박 병장님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으셨습니까?

○ 안용수

어떤 사안이요?

○ 마이클 커비

박 병장님의 납치, 북송에 관한 사항을 선생님께서 제기하거나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 안용수

그 가족들이 스스로 한 것을 말합니까? 누가 조사할?

○ 마이클 커비

예. 박 병장님의 가족들이.

○ 안용수

사회에 대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내서 거기 군청에 민원을 해서 가족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억지로 끌고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신고는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을 하자고 제의를 하지 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지금 주신 파일을 저희가 먼저 읽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조금 더 저

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 안용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혹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한국 내 전쟁포로 권리에 대해서 다루는 이런 단체들 또는 NGO하고 연락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안용수

국민고충위원회에 처음에 찾아가서 국방담당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국방부와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하기 껄끄럽다고 통일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먼저 형님을 납북자이지 않은가 거기에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찾아갔더니 법률상 2년 이내 사건에만 인권위에서 조사하지 과거사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예. 고맙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이번에는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에 참석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공청회를 속개하기에 앞서서 안용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파일들을 증거 S18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거물은 바로 안학수 하사의 납북과 관련된 일련의 증거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학수 선생님의 동생이신 안용수 증인께서 주신 편지도 이 증거물에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 같은 경우는 증거물 번호가 S19가 되겠습니다. 저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증거로 받아들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분들을 여기에 함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이신 이미애 선생님께서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애 선생님께서 먼저 발언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애 선생님 주변에 계신 분을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같이 계신 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 ○ 이미애

감사합니다.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박명자

씨고요. 6.25전쟁 중에 납북되셨다가 낙동강 근처까지 끌려가셨다가 탈출하신 분이십니다. 간호학생이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저희 가족회원인데요. 남편 되시는 김재봉씨가 납북되신 그 분의 아내 김향태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남주 씨는 아버지 김정기 씨가 6.25때 납북되신 분의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광석 씨는 저희 가족회 운영위원이신데 아버님 최홍식 씨가 6.25때 역시 납북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 분의 탈출하신 분과 세 분의 납북피해를 받은 가족회원들의 증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발언을 해도 되나요?

### ○ 마이클 커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이미애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애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UN 산하 COI 커비위원장님과 그리고 다루스만 위원님 그리고 비셰르코 위원님 앞에서 63년이 지난 전쟁납북범죄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을 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중소기업인이셨던 아버지 이성환 씨께서 6.25전쟁 중인 1950. 9. 4. 청량리 자택에서 북한 정치보위국에게 끌려가서 납북되신 후 현재까지 생사도 모르고 있는 납북피해 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한국은 UN의 도움으로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감독 하에 1948년 8. 15. 삼팔선 이남에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건국 후 2년도 못된 1950. 6. 25.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UN은 이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맞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돕고자 최초로 연합군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UN은 한국을 낳아주고 보살펴준 어머니와 같은 고마운 국제기구입니다. 이 자리에 빌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UN과 참전 16개국의 고귀한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UN 참전국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한반도 남북한을 나누는 또 다른 휴전선이 그어진 채 1953. 7. 27.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말 그대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60년이 지나도록 납북된 가족의 소식이라도 알기 위한 우리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회담에서 UN군 측은 납북된 남한 민간인 송환을 위하여 비록 납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남한 민간인과 UN군 측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국 포로를 1:1로 교환하지는 제안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한 민간인 납북이 전쟁범죄에 해당함을 가장 잘 아는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납북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북한은 휴전협정문에 실항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을 하기로 하면 된다고 하여서 휴전협정에 조인하도록 그렇게 한 후 귀환을 원하는 남한 민간인은 없다며 한 명도 송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었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수복 직후 임시 결성된 가족회는 물론 한국 정부는 국민은 전쟁 납북자 송환을 위하여 1960년대까지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UN과 관련된 예를 한 가지만 들면 1964년 조선일보사가 납북인사송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101만여 명의 국민의 서명을 받아 서명과 함께 UN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범죄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에 각각 뉘른베르크재판과 동경재판을 통해 전범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은 전쟁을 일으키고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점령한 남한 전 지역에서 비무장 상태의 무고한 남한 민간인 약 10만 명을 조직적으로 납북한 북한의 전쟁 중 범죄에 대해서는 휴전 60년이 넘도록 전범처리도 못한 채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납북범죄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문서들이 있음에도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납치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그 존재까지 지워버린 북한의 남한 민간인 납북범죄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의 심각한 피해입니다. 인류의 안녕과 국제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려면 가해자인 북한에 그 책

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가족들은 UN이 한국전쟁 남북피해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왔고 2012년부터 UN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UN의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COI가 구성된 것은 저희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이곳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63년이 지나도록 납북된 가족의 소식조차 모르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의 시작이자 근원인 전쟁 중 남한 민간인 납북 범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비중 있게 진행해 주시어 국제사회에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민간인 납북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납북자에 대한 생사와 소식을 알려주고 사망했을 경우 유해를 송환하며 생존자를 보호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25전쟁에서 미제의 희생양으로 남아 있는 전쟁납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희들의 전쟁도 끝이 나고 인류의 안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네 분의 증언자를 모시고 나왔는데요. 저희 가족회 산하 자료원에는 납북을 목격한 127명의 영상증언 자료와 채록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증언을 영상으로 채록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의

증언자만 모셨는데요. 부족한 사례는 추후에 증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네 분 모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한 제 동료들이 혹은 다른 분들께서 혹시 먼저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 ○ 박명자

저는 박 자, 명 자, 자 자, 박명자라고 합니다. 제가 출생지는 서울 도림동입니다. 제가 납북될 때는 바로 6월 25일 날 제가 학교에 갔다가 납북을 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의과대학 간호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재학 중인데 그날이 6. 25날이 25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맹장염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바로 6월 25일 날 아침에 실을 뽑았어요. 발사를 해서 전성광 교수님이 운동을 하라고 해서 그날이 주일이니까 제가 천주교 신자라서 종로4가에서 명동성당까지 살살 걸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11시쯤 되니까 큰소리로 길거리에서 메가폰으로 '국군장병여러분 휴가나 외출을 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원대복귀하라.'는 메가폰이 울렸어요. 거기 메리놀회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이 절보고 '이 얘기가



조금 수상치가 않다. 전쟁이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근데 제가 집이 세종로에 있는 텐데 거기를 안가고 이상하게 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견지도 못하는 몸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니까 학교 문 앞에 닛산트럭, 지금 용달차 같은 게 3대가 있는데 응급치료 준비를 다해가지고 학도급당 간부 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저도 학도급당 간부가 돼서 그 차에 같이 타서 미아리교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처음 군인을 봤습니다. 근데 군인이 나와서 '지금 여기 더 갈 수가 없으니 후퇴로 하라'고 근데 후퇴를 하는데 차가 3대가 가는데 앞차하고 뒤차가 후퇴하다가 전복이 돼서 그 사람들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운데 차에 있었는데 저희가 살아남아서 와서 동성고등학교 강당으로 갔습니다. 동성고등학교 강당으로 들어가니까 국군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껌껌해졌는데 미국 군의관하고 위생병 그분들이 영등포에서 와서 환자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니 환자를 안 데리고 가고,

### ○ 마르주키 다루스만

박 선생님 날씨는 말씀하셨는데 연도는 언제였지요? 연도를 말씀해주세요. 천 구 백 몇 년도였지요?

### ○ 박명자

1950년 그날이 바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지

금 말씀드린 게 6월 25일 날 그날 오후 3시서 밤 10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고등학교 강당에 국군 환자들이 있어서 미군 군의관들은 다 거기 남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저는 여자니까 따라가기가 싫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 환자들을 모두 대학병원에 인수를 하고 가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얘기해서 그 환자들을 다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시키니까 수술도 해야 돼서 거기서 학생이니까 그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도와줬는데 밤새도록 수술하면서 하루 이틀 되는 27일 날 아침이 되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죄다 지하실로 숨으라고 해서는 수술장 앞에 복도에 있는 철판을 들고 그 밑으로 다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숨어있는데 저희에게 해부학 강의를 하던 선생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연기를 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민군이 오는데 담배연기를 뿜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했더니 인민군 장교가 수술복을 입고 따발이를 딱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그 선생님한테 동무, 수고했다고 악수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저희들보고 동무들 수고했다고 환자가 많으니까 빨리들 나와 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총소리가 빵빵 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현관에 국군 포처병이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쏘고 들어온 거였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령계급 정도인데 우리 병원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이 사람이 이북에서 병원원장이 돼서 여기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인민군 환자를 받아서 수술을 시작했어요. 근데 수술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병원이 한 100피트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민간인 환자가 있었고 제가 하루 전에 데려다놓은 국군 환자가 있었고 오늘 인민군 환자가 들어와서 이 병원 속이 2층밖에 안 되는 병원이 민간인은 뒤쪽에 놓고 인민군하고 국군이 한데 병실에 얹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데 얹혀있었는데 어떤 사항이 벌어졌냐면 인민군은 머리를 다 깎고 장교만 머리 기르고 국군은 하사관도 다 머리를 길러서 그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이 국군들 보고 동무는 어디 군관이냐고 물으니까 이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국군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병원 안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군 환자들 거의 다 빠져 나온 사람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고 다 거기서 다 돌아가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 병원 안에 지금도 탑이 세워진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처들을 썼던 국군환자들 을 저희 강운현이라고 선배 언니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그 언니가 지금 밖에 이렇게 국군 환자들이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들을 사망실에 넘기면 어떻겠냐고 선배 말이니까 따라서 그 환자를 가마니에다가 나무를 끼어서 2구를 해서 시체실에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을 하

고 있었는데 인민군 문화부 중대장이란 사람이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절보고 여기 있던 시체를 어디가 치웠냐고 그래요. 그래서 '시체실에 갔다 놔는데요.' 그랬더니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바른 소리 하라고. 그래서 '사실이라고 어디다 시체를 치우겠냐고' 그대로 얘기했더니 절 보고서는 때리면서 나중에 너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저를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건을 눈을 싸매라고 그래요. 눈을 싸매는데 '이제 내가 죽는구나.' 했더니 소원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집에 연락해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 얘기 외엔 없다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서있었더니 뽕뽕 하고 총소리가 두 방이 나요. 조금 있다 보니까 말소리가 들려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손을 타월 있는 데 땀터니 풀라고 그래요. 풀었더니 그이들이 내가 진실을 얘기하길 바라서 헛총을 쏜 것 같아. 정말 치우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치우지 않았단다'고 그랬더니 절 보고 뭐를 부탁을 하나면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여성동맹 위원장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나는 여성동맹 위원장이 뭔지도 모르고 난 이 일을 하려면 하지만 그런 건 난 못한다.' 이래서 딱 잡아떼고 사실 또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고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수술실이 너무 바빠서 2시면 수술하는 의사들 간식을 줘야 돼. 야식을 가지러 거기 가는데 깜깜한 밤에 시체실 앞을 지나가야지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양동이 2개를 들고 밥을 가지러 가는데 나무가 바람도 안 부는데 큰 나무가 흔들려요.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탁 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무 위에서 그래요. ‘누구세요?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바로 내가 갖다 놓은 판 데를 다친 게 아니라 팔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쳐서 시체실 앞에 큰 나무에 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놀라서 그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마침 우리 기숙사에 있던 진 씨 아저씨가 그날 밤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러이러 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이들을 우선 밥을 먹이고 절 보고는 어디 가서 남자 옷 하고 신발하고 군복을 입었으니까 바꿔 입혀야 되니까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수술하는 의사 벗어놓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수술가운을 들여가다 지하에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밥을 넣어줬는데 그다음에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잘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이들이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습시다. 그다음에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취를,

### ○ 이미애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 ○ 박명자

그다음에는 세계 적십자사에서 1991년에 나이팅게일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7월 중순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민군이 그때 막 전진할 때예요. 대군이 많이 그쪽으로 막 내려갈 때니까 거기 후송병원을 하나 함흥에 세운다고 해서 서울대학병원 전 직원 반을 잘라서 나눠서 갈 거예요. 나눠서 가는데 제가 그쪽 반 가는데 거기 소속돼서 풍문여고하고 덕성여고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안국동에서 청량리까지 전차로 밤 중 12시에 가서 청량리에서 철원까지 기차로 가는데 기차 속에 인민군 환자가 잔뜩 있는데 저희를 거기에다가 한 사람씩 배치를 시키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나오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철원까지 가는데, 그때 폭격이 심했는데도 그 속에서 환자들하고 고비를 넘기면서 철원에 내려서 철원에서 그 환자들을 철원 초등학교에 운반을 하고 거기에서 폭격을 당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힘들었느냐면 이북으로 가는 거니까 강원도 이천으로 가서 됐어요. 강원도 이천으로 갔는데 거기가 시골 산골로 들어가는 길이라 너무 사람들이 지쳐서 갈 수가 없어서 그때는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모두 우리가 처음 가는 거였어요. 가는데 막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다리가 아파는 못 가는 사람 여기로 나와라.”고 하니까 다들 다리가 아프니까 손을 들었어요. 나오라고 해서 한 쪽에 섰더니 총을 가지고 다 쏘서 다 죽였어요.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무서우니까 따라서 가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뒤에서 엉덩이를 차고 총부리로 막 때리면서 넘어지면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이러면서 끌고 강원도 이천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녀원이 있었어요. 다른 데에서는 밥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배가 고파서 정말 힘들었지만 수녀원에 가니까 거기에 점심밥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상을 달고 밥을 먹으니까 거기 수녀님이 와서 저를 보고 천주교 신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빨리 밥 먹고 나오라고 해서 밥을 먹고 거기에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네가 여기에 왜 왔냐”고 해서 이리이러해서 왔다고 했더니 그러면 신부님 있는 데 가자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옥 집 마루에 올라가니까 마루를 발로 여니까 계단에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니까 그 안에 성당을 다 만들어놓고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신부님한테 얘기했더니 “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확실하냐”고 그래서 확실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밖에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라.”고, 나오니까 수녀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거기 남자여자 총회장님을 소개시켜줘서 같이 길로 나갔는데 인민군이 그 뒤에서 봤어요. 그래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저지 시켜서 그 신부님, 수녀님, 남회장님, 여회장님 다 총살시키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일을 당했어요. 거기에서도 도망가려다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중화에

가서도 또 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에서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압록강 근처로 갔어요. 압록강 근처로 가서 거기에서 제가 하도 도망을 가니까 심경애 언니라고 중앙대학교 보육학과 나와서 유치원 선생님 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하고 저하고 팔을 묶었어요. 도망 못 가게 감시를 당하고 갔어요. 압록강까지 가는데 그때가 캄캄한 밤이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니 나는 화장실도 가고 싶지만 도망가고 싶어. 그러니까 손 좀 풀자.” 해서 둘이 풀고, 수수깡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수수깡 세워진 데로 둘이 들어갔어요. 나는 이쪽 들어가고 그 언니는 이쪽 들어갔는데 인민군이 막 찾기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갔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돌아본다고 하더니 수수깡에다가 총에 칼 끼운 걸로 푹푹 찌르는데 총이 이상하게 이 앞으로 짹 지나가면서 무사히 제가 살아났어요. “가자.”하고 가는 소리가 나기에 “언니 살았어?” 그랬더니 “애, 나 살았다.” 그래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 언니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이 성공이 된 거예요. 밤에 막 걸어서 나오는데 새벽이 훤히 됐는데 산이 이렇게 됐으면 흙을 파가지고 인민군이 총대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오는데 인민군 장교가 보더니 동무 어디 가느냐고 해서 지금 병원 가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병원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해. 아니라고 하니까 그이가 쫓아오는 거야. 그이를 확 밀어서 논두렁 있는 데에 넘어지

게 만들고 막 뛰어서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하나 있기에 거기를 들어갔어요. 저희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인민군이 따라오면 우리 까지 다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런데 나가면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궁이로 들어갔는데 그 심경애 언니를 앞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나는 거꾸로 들어가서 동태를 살피려고 딱 들어갔는데 인민군이 금세 들어왔어요. 보더니 “아, 없다.”하더니 솔가지 다 쭈시라고, 솔가지 다 쭈셔도 없으니까 아궁이에 솔가지를 넣고 불을 지르더라고요. 불을 지르니까 연기 때문에 채채기가 나와서 입을 꼭 막고 있는데 얼굴이 거슬려서 제가 앞을 못 보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그이들이 간 다음에 나와서 손을 잡고 살살 걸어서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산 밑에 가면 인민군들이 죽은 시체가 아주 많아요. 그 많은 데서 인민군 무장한 데서 썰 가지고 비상식량, 포도당가루를 먹고 물이 없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피에 다 젖어서 시뻘건 피예요. 그 피하고 그것을 먹고 요기를 하면서 들어서 나왔는데 오니까 평양까지 왔어요. 평양에 왔는데 한옥집이 있기에 저 집 좀 가보자고 했더니 거기 역시 수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수녀님, 우리 좀 도와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 앞을 보래요. 보니까 “저기가 인민군부대인데 거기에서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원장수녀님한테 가서 물어볼 테니까 조금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원장수

녀님이 저희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부엌에서 씻으라고 하고 밥을 먹이더니 수녀님 옷을 빌려주고 머리를 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인민군들이 밥먹으러 왔어요. 이 동무는 무슨 동무냐고 하니까 원장수녀님이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수녀님들이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수녀원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통과가 됐어요. 그러자 얼마 안 있다가 평양에 입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군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1사단이 처음에 들어오는데 악대 지휘하는 분이 명동성당에서 지휘하던 선생님인데 현서령님이라고 그 분이 앞에서 지휘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양반이어서 쫓아가서 “선생님” 했더니 “너 웬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이리이러 해서 왔다고 했더니 어디에 있냐고 해요. 그래서 저 집에 있다고 하니까 가만히 거기에 있으면 내가 정리하고 빨리 올 테니까 있으라고 해서 그 양반 도움을 받아서 황해도 8사단 정보부가 있어서 거기 박명근 대위라는 분이 책임자였어요. 그 양반한테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양반이 서울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때 갈 때 사람들을 때리고 밀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가다가 모두 길바닥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강원도 이천에서 거기 가는 길이 험악했어요. 거기에서 많이 죽고 뒤에서 오는 사람들 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북도 이북이지만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은 아프다고 하면 막 뺏어

요 총으로 막 때려서 못 가게끔 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심하게 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일사후퇴 때 육군간호사관학교에 가서 간호장교로 근무해 가지고 56. 3. 31.에 중위로 전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봉사,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치매와 우울증, 노인성 질환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마이클 커비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주 용감한 여정을 거쳐서 이 순간까지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김여사님,

#### ○ 김향태

저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얘기도 못해봤고요. 나이가 85세 되는 늙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21살에 결혼을 해서 22살에 6.25가 났습니다. 6.25가 나니 신랑은 피난가자고 왔는데, 조카아이들을 한 집에는 다섯 명 한 집에는 여섯 명해서 열한 명을 데리고 피난을 왔습니다. 저희 집이 강화도에서도 더 떨어진 교동도였어요. 그래서 불편이 참 많았습니다. 다니기에 불편이 많았어요. 인천에 가니까 벌써 거기는 인민군들이 줄을 서서 총대를 메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는 여기에서 더 갈 수도 없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왕 간 것이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살다보니까 한 달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어린 애들이 울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고향사람을 만났는데 “너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일 없으니까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인천에서 배를 탔습니다.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우리 고향인데 우리 남편이 미리 전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님 댁이 거기에 있으니까 누님 댁에 들어가서 교동의 일을 살피고 편안하다면 내일 내가 찾아들어갈 테니까 어서 아이들 데리고 먼저 가라고 해서 저는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신랑은 누님 댁에 가니까 누님이 며칠 전에 너희 형이 들어와서 빨갱이들이 다 때리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깜짝 놀라시면서 왜 너까지 왔느냐고 그러면서 어느 뱃사람을 불러가지고 신랑을 더 먼 섬으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저는 모르고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 그날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또 하루 기다려도 안 와요. 또 하루 기다리는데 안 와. 저녁이 됐는데 안 와. 조그만 한 열한 몇 살 먹은 청년 아이가 오더니 “아주머니, 저하고 저기 가셔야 돼요. 내무서에 가셔야 돼요.” 그래. “내무서에 내가 왜 가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시래요.” 그래요. “내무서에서 왜 나를 오래?”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오시라고 하니까 가셔야

돼요. 나하고 같이.” 그래서 가 봤더니 그 섬에서 또 뭘 섬으로 갔다봤는데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알고 밤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때리고 짓밟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서 그 내무서하던 집이 저희 큰 시아버님 댁이거든요. 집이 커서 그 사람들이 뺏어서 내무소를 차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형님이 보시고 치마인지 뭐 찢어서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무소장이라는 놈이 ‘집에 가서 몸조리하고 그리고 있다가 내가 또 부르면 그때 가서 오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이 아파서 집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라고 오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아프냐니까 아프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어디로 우리가 도망을 갈까? 어디로 우리가 도망을 가야 살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을 졸이고 살고 있는데 어떤 친구 분이 오더니 ‘그놈들이 지금 후퇴하는 중이야.’ 밤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산으로 도망가자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가서 인민군들이 후퇴를 했단니까 너무 기뻐서 나서야 할 텐데 혹시 남은 가족들에게도 남은 사람들이라도 해코지 할까봐 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피난을 가보니까 산에도 청년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있던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단원들 자기네들은 어떻게 여기로 왔냐’ 하니까 ‘형님 지금 다 후퇴들을 하니까 형님은 우리 조금 있다 나가서 태극기를

답시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겁이 나서 ‘그래, 후퇴만 하면 우리는 살았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있다가 하는 소리가 ‘여보게, 지금 밤중이니까 어떻게 가서 태극기를 달겠냐? 만약에 다 갔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가서 일찌감치 다세요.’ 그리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새벽 2시나 3시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시계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정말 아주 답답한 시골이지요.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훤히 밝아오는 거예요. 그날이 음력으로 8월 20일로 적혀있고 양력으로는 아마 그때가 9월 20일, 그러니까 UN군이 인천에 상륙 작전해서 성공을 하면서 이놈들이 후퇴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후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아직 며칠 더 있어도 되는데 미리 나왔다고 해 다시 들어가겠다고 해서 이 젊은 청년단원들이 그날 헤어져서 가다가 우리는 집으로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은 가다가 ‘우리 여기 들러서 태극기 먼저 하나 달아놓자.’ 그래서 거기서 태극기를 하나 달아놓고 헤어졌답니다. 우리 신랑이 9월이니까 춥다고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1시간도 못 돼서 ‘저놈 잡아라.’ 그리고 총을 막 쏘요. 총소리가 나요. ‘어머나, 웬일이야?’ 총소리가 나서 웬일인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우리 신랑이 어디로 피했는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 문을 더 꼭꼭 닫고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금방 ‘저놈 잡아라.’ 소리를 치더니 답으로 넘어오고 대문을 두들기고 후다닥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이러고 서 있는데 '너희 신랑 어디 갔어?' '몰라요' 총부리를 가슴에다 대고 '몰라요?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빨리 대. 안 대면 죽일 거야' 그냥 장전에다 대고 날 보고 찾으러 가라고. 아휴, 이제도 그 얘기만 하면 막 떨립니다. 그래서 못 찾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몰라요. 그렇게 피했는데 근데 없으니까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내가 기가 막혀서 '어디로 갔을까?' 그러고 있는데 '여보, 나요 여기 있어.' 그래서 보니까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지붕 바로 밑에 거기 구멍이 있는데 한옥집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 숨어있더라고요. 100년도 넘는 한옥집 그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지붕 속에 먼지는 얼마나 많았으며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했다고 잘 했어요.' 그렇게 하다 나왔는데 그리고 다른 데로 피신을 못 간 거는 포구가 셋이나 있는데 거기 배가 없었고 또 공산당원들이 더 눈을 까뒤집고 다니면서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고 거기 일주일 숨어 있는데 한 3번을 찾으러 왔더라고요. 없다고 모른다고 그래서 도로 갔어요. 우리 신랑이 '미안해' 하면서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비행기 소리 나는지 어디로 가고 있지? 인천 쪽으로 가나? 함포사격을 하나? UN군이 왔나?' 그런 거 알고 싶어서 정말 그러다가 일주일 됐는데 어떤 사람이 숨어 있다가 그리 나와 가지고 어디 숨어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런 데 숨어 있었다니까 쫓아올라가서 끌어

내려서 붙잡혀 간지 3일 만에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잡아갔는데 3일 만에 동네 아주머니가 '야, 저기 저 사람들 죄인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쪽 세워놔오니 얼른 가 봐라.' 알려줘서 거기를 막 뛰어서 가봤더니 쪽 묶어서 썩워놨더라고요. 그때는 나이가 어리고 여보 소리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걸음으로만 가서 얘기를 들으려고 갔더니 막 총으로 가슴에다 대고 그냥 비키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묶여 있는 옆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냥 서서 울고 있으니까 왜 우느냐고 저리 더 나가라고 그래서 저만큼 가서 있었고 저만큼 가서 그 사람은 있었는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눈은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니까 '왜 우느냐? 갔다가 교육받고 오면 될 텐데 왜 우느냐고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교육만 받고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헤어진 지가 지금 63년 됐어요. 소식도 못한 채. 그런데 남편이 붙잡혀 간 지 며칠 있다가 제가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이 세상 살아서 뭐 하나. 나도 같이 가야지'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애, 나는 니 엄마도 죽이고 너희 외삼촌 하나 있는 것도 왜정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죽었다고 소식이 오고 나를 봐서라도 년 좀 참아줄 수 없냐?'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세상에 애기 있을 때 서울서 아이스께끼 장사 통매고 다니는 거 그게 눈에 선하고 그냥 얼음만 먹고



싶고 속이 타서. 너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니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너희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언제라도 오면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 강한 마음 때문에 여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딸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내 생명이다.' 하고 길렀습니다. 그게 이제 63살이에요. 우리가 60살만 넘어가면 노인으로 치지 않습니까? 머리가 허영게 쉬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울음) 우리 남편 죽었다면 시체에 태극기를 덮어서 장례해 주고, 우리 정부에서 납북자 가족들에게 기념관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름 석 자 올리고 '여기에 있는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다.' 우리 딸이 있으니까 손주 딸이지요? 또 손주 딸이 가서 아기 낳아서 증손주까지 지금 4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이들 손 붙잡고 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못해보고 살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아이들한테 그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는 걸 보면 너무 분해요. 뭘 잘못된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매를 맞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제가 이렇게 원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인정이 많고 똑똑하고 동네에서 소문난 모범 청년이었거든요. (사진을 보여주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하시는 일이 꼭 잘 이루어지게 돼서 소식이라도 듣게 도와주십시오.

오. 우리나라에서 해 주시지 못하는 것 UN에 부탁드립니다.

○ 김남주

시작할까요?

○ 마이클 커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 할머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저희에게 이야기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해 주신 얘기를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김항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김 할머니, 감사합니다. 김 할머니께서 진정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물 한 잔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선생님도 저희에게 해 주실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주

저희 아버지는 8남 1녀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하시는 일은 전기 관련 사업을 충무로에서 하셨고 대한청년단 단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6.25전쟁이 나고도 충무로에 있는 회사에 매일 출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1950. 8. 4. 오후 1시경 충무로에 있는 저희 회사로 민간 복장을 한 두 명의 사람이 매장에 와서 500W 전구가 있느냐고 물기에 직원이 없다고 하니까 사장님 좀 봐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가고 저희 직원이 저희 아버지를 2층 사무실에서 내려오시게 한 과정에 그 민간인은 나가고 인민군 셋이 들어오면서 저희 아버지 팔을 껴안고 끌고 나간 게 그 길로 바로 납치돼 가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저희 사촌누이가, 저희는 그때 효자동에 살았는데 목격한 것을 저희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해서 아, 오늘 저녁에도 우리 집으로 이놈들이, 저희 형제들이 8형제니까 형들도 잡으러 오겠구나 싶어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저녁이면 일단 담을 넘어서 인왕산으로 도주하기로 작전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 다들까 밤 12시쯤 돼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들이 도망기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10분 지체하면서 늦게 나갔어요. 그 형들이 담을 넘어나가는 것을 보고 뛰어나갔더니 인민군 서넛이 늦게 나왔다고 저를 때리면서 욕설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딱 보니까 밖에 지프차가 있는데 지프차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앉아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뛰어나가니까 아버지도 저를 보려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려오는데 이놈들이 아버지를 구타해서 꿇어앉히고 권총 개머리판으로 제 머리를 쳤습니다. 들어오자

마자 “형님들은 어디에 가있느냐.” 그러면서 식량 구하러 간지 오래됐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인민군 셋이 저희 집을 약 두 시간 동안 뒤졌습니다. 두 시간 동안 뒤져도 뭐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저희는 뭐를 뒤지는 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 탄 것도 있고 대한청년단 단원으로도 활동하신 적이 있으니까 이놈들이 반동의 증거를 찾으려고 찾은 것 같아요. 안 나오니까 빨간 스티커를 전부 가재도구에 붙여놓고 내일 오겠다고 그러고 이놈들은 갔어요. 간 후에 저희 형들이 내려왔는데 미처 담 넘어서 인왕산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급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희 집 얼마 안 떨어진 뒤에 내무서가 있었는데 그 지붕에 올라간 것을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때로 와서 지붕부터 올라가서 찾는 거예요. 없으니까 전부 그냥 가재도구 딱지 붙여놓은 것 한 트럭가량을 싣고 가고 충무로에 있던 가게에도 한 여섯 트럭을 이 사람들이 전부 강탈해 갔어요. 아버지를 찾으려고 수소문해 봐도 어디로 납치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들리는 얘기는 서대문 형무소에 그 당시 끌려간 사람들은 집결이 돼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찾아가니까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영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고 나서 매일 이 사람들이 저희 형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구조가 안방 벽장에 은밀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거기에 누이고 세 명에서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는 형하고 매형하고 나갔다가 저놈들한테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옛날 서울시 경찰국자리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는 무조건 잡아온 사람들 의용군으로 그냥 막 보내는 입장이었어요. 저희 형하고 매형은 잡혀가면 의용군으로 끌려가니까 탈출을 해야겠다고 해서 내려다보니까 2층 정도 사과케잍이 있기에 무조건 거기로 뛰어내리고 그 2층 사과케잍에서 다시 1층으로 뛰어내려서 탈출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 후로 매일 같이 집으로 내무서원들이 찾으러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방 벽장에서 용케 견뎌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갔더니 시체가 너무 널비해요. 시체를 전부 확인해 봐도 저희 아버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친구 분이 오셨었어요. 그 친구 분도 아버지하고 같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이북으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철사 줄로 묶어가지고 낮에는 산 속에 피신해 놓고 밤에만 이동을 해서 아버지 친구 분 말씀으로는 평양 근교까지 갔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아버지 친구는 그때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바람에 저희 단란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놈들은 진짜 악랄한 놈들이예요. 사람을 납치해 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웠던 저희 가정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때 받은 고통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고통 속에 삽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UN에서 좀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가지고 저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게 해 주고 안 된다면 최소한 생사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게 해 주고 아니면 유해라도 송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마이클 커비

김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최광석

제 이름은 최광석입니다. 저는 6.25전쟁이 나던 해에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7학년이 된 것이지요. 저희 아버지는 당시에 내무부 치안국 지금의 경찰청본부입니다. 거기에서 간부로 계셨습니다. 전쟁이 나고 바로 한 이틀인가 후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집으로 오셔가지고 내무부 치안국이 당시에 임시 본부가 서울에서 한 30~40km 떨어진 수원에 임시로 본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합류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길을 찾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서울이 전쟁 나고 3일 만에 적군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당시 한강에 단 하나 밖에 없었던 인도교가 폭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상태였는데 다시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그러다가 여의치가 얇으니깐 일단 서울의 영천에 있는 서대문 쪽에 있는 거기

에 아버지의 사촌 누님이 계셨는데, 거기로 일단 피신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지요. 가서 거기에서 숨어계시다가 수원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계시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오래 계시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다시 아현동, 그 당시에 저희가 살던 데는 서울의 공덕동이었는데 그 공덕동에서 아현동으로 해서 서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서강이 한강의 일종의 나루터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배로 한강을 건너서 수원으로 가다가 아현동까지 갔는데 아는 사람들 얘기가 '지금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도 지금 인민군이 퍼져 있기 때문에 가셔야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저와 함께 일단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28일에 서울이 함락되고 29일이나 아마 30일 그 직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집에 들어오셔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면서 저를 보고 우리 집이 한옥인데 2차 대전 때 폭격에 대비하기 위한 마당에 지하실을 판 것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 아버지께서 절 보고 당신의 신분증이나 경찰제복을 지하실에 숨겨 놔라. 그래서 저는 지하실로 들어가서 숨기러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인민군하고 그러니까 내무서원 그리고 동네 공산당원, 동네 빨갱이들이 이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하실은 지상에서 보이면 이것이 지하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냐하면 마당과 같은 레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이만한 통풍구가 있는데 거기에 모기장 스크린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내다볼 수 있고 그런데 키가 작아서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소리는 마당에서 다 들리지요. 한옥은 크지 않으니까. 마당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찾는 거에서부터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당장 거기에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잠깐 갑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아버지를 데리고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갈 적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할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갑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까이에 마포경찰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마포내무서로 이제 바뀌었지요? 이 사람들이 거기로 데리고 갔는데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유리창에 옆모습이 거기서 취조를 당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틀림없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초보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어렵도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것이 아버지를 제가 먼발치라도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무서원들과 동네 빨갱이, 동네 공산당원들은 저희 집을 푯하면 들어왔습니다. 명분은 뭐를 숨겨놓은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노략질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나 이런 걸 훔쳐가는 그런 상황이

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이틀 정도 되다가 바로 저희 집 대문에는 제가 그 당시에 정확히 읽을 수 없지만 적의 재산이라는 그러한 나무로 된 팻말을 저희 집 대문 밖에 붙여놨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계속 들락날락했지요. 저희는 거기서 며칠 동안 견디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밤중에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밤에 뒷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아현동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아버지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서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참고 답게도 1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60여년이 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정은 처음에 제가 6. 25전쟁 납북인사가족회에서 자원 활동을 할 적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개인적인 원한보다도 저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가 80이 되고 저도 자식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의 앞일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생길 적에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또 국제적으로 볼 적에도 이러한 일이 아무런 죄명이라든가 책임소재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넘어간다면 북한이라는 그 집단은 이런 것을 아마 계속 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이 있었고 또 6. 25 전쟁 민간인 납치 후에도 전후 납북자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UN COI나 대한민국 정부 이런 데에 바라는 것은 북한의 당시에 이러한 사건을 획책한 당시의 지도자들을 벌주는 그런 것은 저는 2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사과를 하고 잡혀가신 분들에 대해서 생사확인이나 돌아가셨다면 유해를 송환한다든가 이러한 저희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를 취해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전쟁 납북인사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점 그리고 북한이 사죄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빨리 납북인사들의 생사를 확인해 주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자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점 그리고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셨던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나누는 이러한 증언들은 UN에 보고가 될 것이며 저희는 앞으로 조사결과 그리고 저희의 권고안을 UN을 통해서 전 세계와 공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증언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저희에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들은 UN산하의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둘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고, 한반도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가 기록을 문서로 작성을 해서 그리고 영상으로 남겨서 한국의 후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사람들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반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당시에 어떠한 참혹함을 겪었고 정말 겪지 않았어야 될 일들을 수 십 년간 겪었다는 것, 가혹한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증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제 동료들이 더 질문을 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까지 수고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 ○ 이미에

여기 계신 저희 전쟁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왜 10만 명, 9만 6천 13명이라는 통계치를 저희가 지금 가족회에서 준비를 해서 대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잡혀갔느냐. 그 숫자가 정말 맞는 숫자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한의 지도층 인사, 정치인이라든가 다른 지식인들의 의료인 법조인 문화인 여러 개의 종교인 그런 분들의 경우는 한 2만 명 정도가 그런 분들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8만에 가까운 분들이 의용군이나 노무자로 강제 징용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혹시라도 “그것은 너무 숫자가 믿을 수 없어.” 그런 의심 그런 것을 제가 좀 불식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증언하러 나오신 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생사라든가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UN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납북문제에 대한 실상을 입증하는 많은 문서자료, 납북자 명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정리해서 COI에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미애

제가 드린 자료 제일 앞 페이지를 보시면,

○ 마이클 커비

저희에게 주신 것을 보면 한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보면 바로 6.25전쟁 납북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증거 S20이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또 다른 문서를 주셨는데 바로 CIA의 보고서입니다. 1951년에 북한당국에 의해서 납북된 서울 주민들의 명단, 그것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애

평양형무소 내벽에서, 6.25 납북자들이 수감되었던 형무소 내벽에서 발견된 시를 맨 앞에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읽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냥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은 UN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이 CIA보고서 미국 CIA보고서지요? 이 보고서는 서울지역주민 중에서 체포된 서울주민 명단인데 이 주민들이 납북이 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 이미애

납북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 대략 10만 명 정도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 측에 인민 포로가 10만 명이고 이중에서 7만 8,000명이 북한으로 돌아갔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1,800명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 중에서 북한으로 못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2만 5,000명 정도 되겠지요. 2만 5,000명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도 똑같은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지요. 왜냐면 전쟁을 하다보면 양 측 다 좋지 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 이미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로, 적대행위를 했던 포로 문제 POW하고 지금 abductee를 지금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순수한 민간인 신분, 그러니까 무기를 소유했던 사람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의 비무장상태 민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교환에 이 문제가 들어갈 연결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은 북한 쪽에서도 이 1951년도 같은 경우는 남한 끝까지 왔었지요? 그러다가 인천 착륙작전이 있고 난 후에는 북한이 다시 북으로 밀렸다가 나중에 삼팔선 정도에서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 중에서도 남한에 의해서 강제로 납남이 된 사람이 있는지,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주민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한국에 억류가 돼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시나요?

### ○ 이미애

제가 그 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보좌한 한 사람이 남한에 내려온 북한주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딱 한 사람이 자기가 납남자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에는 이산가

족이 오도민회가 다 있고요. 거기에서 정보를 저희가 듣는 바에 의하면 다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내려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혹시 북한에도 지금 이사장님께서 대표하고 계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같은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북한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유사한 그런 단체고 있는지 아시는지, 아니면 모르시는지요.

### ○ 이미애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는 NGO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조국 평화통일촉진협의회라는 북한의 단체인데요. 거기에 남한에서 올라간 유명 인사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마치 무슨 단체처럼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뭐 성명서를 내고 북한체제가 좋다는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조국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제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NGO가 아니고 북한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정부조직의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말하는 저희와 같은 그런 유사한 NGO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협의회요. 북한이 훌륭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나요? 그것도 어떤 제약 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 ○ 이미에

제가 북한에 대한 정보는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 대남성명서 발표하고 그럴 때만 제가 접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뭐 이런 관련 매스컴을 통해서 전쟁납북자는 없다고 난리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날조다. 무슨 우리가 인권을 얼마나 존엄하게 여기는 국가인데 무슨 납치를 하나.' 지금도 현재도 지난 6.28.에도 조선중앙통신이 그런 보도를 했고 6. 30.에도 노동신문을 통하여 저희 전쟁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날조다. 거짓말이다. 모략이다. 이런 논평을 합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니까 2013. 6.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 ○ 최광석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북한이 전쟁 중에 그 많은 민간인을, 여기에서 민간인이라는 것은 전투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의사, 종교인, 예술인, 법조계 사람 이러한 완전한 민간인입니다. 이 사람

들 약 10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북한은 이러한 납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확히 누구를 어디에서 잡아갈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만 해도 바깥에서 서울을 탈출하기 위한 것을 모색하다가 힘드니까 집에 오시자마자 바로 납치당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당했습니다. 이 말은 북한에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납치행위를 했는데, 그 납치 행위를 한 목적이 대체적으로 세가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공산체제가 들어오면서 인적 자원의 결핍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ellectual을 필요로 하는데 북한에 있는 intellectual들은 전부 남쪽으로 자진해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체제가 되니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넘어왔고 교육자도 넘어왔고 자기들이 필요한 브레인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공백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공백상태가 된 지식계층 사람들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김일성 당시의 수상이 북한의 수상 김일성이 지령까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인재들을 모시고 오라는 그러한 결로, 그래서 이러한 자기네들의 인적 결핍을 메우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남쪽에서 자기들의 체제에 반대해서

자기들의 체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체포한다든가 해를 미치는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반공청년단, 대한청년단이라든가 이러한 반공청년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보복적인 차원에서 납치를 해 가지고 아마 살해를 했는지 북한까지 데리고 갔는지 저희가 그 후에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10만 명 중에서 8만 명 가까이가 범주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젊은 층으로서 북한의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위 자원이라는 의미의 의용군, volunteer soldier지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의용군이라는 미명 하에 젊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의용군에 강제로 편입시켰거나 아니면 노무자로서 사용한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남쪽이 북한사람들을 납치했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날조입니다. 왜 날조란 것을 알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분을 더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분을 더 모셔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에게 주신 증거물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써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안준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호 선생님께서는 기자이십니

다. 안준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남북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저희가 지난 세션에 받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자 가족들께서 겪으신 많은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과거 일은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머나먼 기억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라면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주 상세하게 잘 기억이 남는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에게 이제까지 증언을 해주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전에 증언을 해주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상적인 세계라면 남북자 가족들이 60년간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각각 할일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남북자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해결책이 과연 꿈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그런 원하는 것을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선 본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본 공청회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본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 릴리안 리

저는 릴리안 리라고 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바로 강제실종과 관련돼서 조사위원회 쪽에 2004년도부터 보고를 해오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위원회 측에서 이렇게 강제 실종도 조사내용에 포함을 시켜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북한에서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강제 실종을 포함시켜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증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강제 실종은 한국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북한에 의도적으로 갔기 때문에 피해자로 여겨질 수 없다는 생각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위원회 사무국 쪽에 지난 3월 달에 제출했던 보고서도 다시 한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저희가 한동법대와 그리고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같이 제출해주신 강제적 비자발적인 실무그룹 쪽에 내주신 그런 보고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보고서를 증거자료 S2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록에 꼭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 ○ 릴리안 리

그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517명의 납북자들의 성함을 보셨을 겁니다. 이 517명은 한국의 통일부에서도 납북자로 인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북한에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증언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또는 어업활동을 하다가 또는 전쟁 중에 납북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강제 실종은 북한정부가 체계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특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90년대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기는 195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최초의 납북기록이 1950년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개의 케이스를 워킹그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7개의 사안이 북한 정부에 제출되어서 7개 중에서 6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 워킹그룹의 인도주의적인 사항은과는 관련 없고 그리고 또 북한에 비자발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북한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답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케이스들을 제출할 텐데 저희가 조사 위원회에 압력이 있어서 북한정부 쪽에서 좀 더 적절한 답을 저희에게 해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55년도에 납북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증언을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 사실 51년부터 납북이 이루어진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 릴리안 리

저는 전후 납북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1955년도가 전후 납북이 이루어진 첫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부에 의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저희가 오늘 들은 그런 사례들은 비자발적인 납북으로 보고 있는지요? 오늘 증언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자발적인 압류로 한국 정부에 인정을 하고 있는지요?

○ 릴리안 리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답이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자발적인 북한 주민인지 비자발적인 납북자인지 그리고 비자발적인 납북자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자발적인 주민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

다.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관련 실무그룹에 있는 분들이 과연 확인될 수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항공기 납북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주소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자발적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릴리안 리

사실 그 주소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평양인구 조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가족이 평양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정보를 확인해서 조선일보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안 기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납북이 된 분들의 주소, 배우자, 일자리, 생일, 고향 등이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의 고향이 남한인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저희가 접근만 허용이 된다면 이 분들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처음 가게 됐을 때 그게 자발적이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지 확인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UN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관련 실무그룹에서 7월에 사례 중에 일부를 조사대상사례로 선택한지 알고 계신지요.

○ 릴리안 리

몇 가지가 북한에 제출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평양인구조사 중에 포함이 된 분입니다. 그 분의 주소라든지 신상정보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인구조사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읽을 수 있는지요.

○ 릴리안 리

예.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 납북자 분들을,

○ 릴리안 리

한국에서 납치된 분들 확인된 분들하고 서로 비교하려고 했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한국 정부와 가족들은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납북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이 희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라면 조금 더 합리적인 대응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그 증언을 하신 분들이 요구한 수단 이랄까요, 그 대책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릴리안 리

저는 그 분이 제안한 해결책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인터뷰한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만 생존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경우에는 유해를 원하는 거고 아주 드문 경우는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을 버렸지만 그래도 가족들의 기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돌아가셨다면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릴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례를 치르고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날짜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 마이클 커비

이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안 기자의 발언차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자가 이와 같은 이슈를 다루게 되었습니까?

### ○ 안준호

저는 조선일보에서 지금 현재 통일부 출입 기자입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납북자 문제를 취재해 왔는데요. 2005년 당시에 오전에 나왔던 최성용 대표가 공개한 사진이, 그러니까 납북자 36명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찍은 사진을 최성용 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의 가족들을 찾아서 제가 거제도에 내려가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COI 조사관 분이 12~13일까지 거제도 농소마을에 내려가서 조사를 하였고 제가 현장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1971년 휘영호, 1972년 오대양호, 2년 사이에 마을에서 18명이 한꺼번에 납북이 됐습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납북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납북자에 대해서 취재를 해 보았습니다. 납북자는 크게 전시납북자, 6.25 전쟁 중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오늘 전후 납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후 납북자는 통일부가 파악하기로는 6.25전쟁 이후 1953 7. 27. 정전협정 이후에 납치된 납북자는 총 3,835명입니다. 3,835명 중에 6개월~1년 사이에 귀환하신 분들이 3,310명, 전체의 86%에 해당합니다. 그

리고 아까 증언하셨던 이재근 씨를 시작으로 해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여덟 분의 전후 납북자가 돌아오셨습니다. 이 8명은 모두 북한에서 30년 이상 억류되었던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을 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최성용 대표가 공개한 전우표 씨는 8. 11.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내셨고 이 분은 현재 중국에 있는 걸로 예상은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를 안 하였고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국 정부가 이 분의 신병을 안전하게 인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 ○ 마이클 커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분의 신병을 넘겨 받은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이분이 탈북했습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감으로 아시는 것이지요. 저희에게 기밀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사실을 저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 ○ 안준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국 국정

원과 통일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에 나오신 전우표 씨를 제외한 여덟 분, 2009년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윤용수 씨까지 포함해서 여덟 분은 남북 간의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해서 돌아오신 게 전혀 아닙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분들 스스로 몰래 탈출해서 북한을 나오면 그때 한국 정부 기관이 신병을 인수해서 들어오시는 경우입니다. 북한이 여기에서 협조해서 돌아오신 전후 납북자는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계속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전후 납북자 517명 중에 자진 납북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다 이분들이 납북됐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517명 중에 이제까지 돌아오신 분은 단 여덟 분, 이번에 8월에 돌아오신 전우표 씨까지, 아직 입국하기 전이지만 이분을 포함하면 아홉 분입니다. 517명 중에서 아홉 분인데 제가 최소한 만나본 일곱 분은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아홉 명 다 어부입니다. 일곱 분 모두가 우리는 납북이 됐다고 증언을 하시고 계시고, 만약에 북한 주장대로 자진해서 입북했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제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생사확인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분의 납북 어부들은 한결같이 납북이 돼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 북한에서 납북했다면 그 전체 납북자들 모아놓고 사진 찍는 게 북한의 범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

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사진을 찍었느냐고 오전에 최성용 대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터뷰한 한국으로 돌아오신 일곱 분의 납북자 분들은 그분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신 게 북한에 처음 잡혀갔을 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교육을 받습니다. 집단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된 이후에 3~4년마다 다시 강원도 원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집단으로 사상교육 김일성 혁명사상, 김정일 혁명사상, 당의 유일적 지도체계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3개월간 교육을 받고 낮은 혁명전적지라든가 함경북도 왕재산 혁명전적지 이런 데에 가서 단체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납북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나면, 이 사람들을 체제선전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남북 간에 있어서 전쟁 후에 체제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이 체제경쟁을 하면서, 남한이 좋은 사항이나 북한이 좋은 사항이나 이 체제경쟁을 하면서 북한은 많은 남한 사람들을 납북해 가서 자기네 체제선전에 활용했고, 또 한편으로는 간첩교육에 많이 활용을 해서 간첩으로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첩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남한 정부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얘기이지만 이 납북자 가족들을 다시 한 번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비자발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어서 스파이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파이로 다시 내려왔을 때 자기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한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 안준호

그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어요. 아까 증언 나왔던 이재근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납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붙잡힌 간첩들이 증언하기로는 이 5명의 고교생 납북자는 어리기 때문에 남한문화를 가르치는 교관으로 활용했다고 한국에서 붙잡힌 간첩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인 스파이는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중간에 스파이 교육을 다 받지 못하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납북된 사람들이 겪는 통상적인 과정이라면 그 스파이들은 남한으로 와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 텐데 혹시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없을까요?

### ○ 안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과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이나 그런 건 제가 접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스파이 교육을 받는 것은 전혀 통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재근 선생님 같은 경우 특이한 거고요. 고교생 납북자 5명의 경우도 굉장히 적은 케이스입니다. 517명 중에 5명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전후 납북자가 517명인데 이 중에 어부가 458명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이 왜 아주 기본적인 생존확인조차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북송된 사람이 살아있고 북한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최소한 생사라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 ○ 안준호

글쎄 저는 그거는 북한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납북자 중에서는 일부 납북자 중에서도 이산가족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부 납북자의 경우에는 만났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 중에 이산가족에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오늘도 지금 판문점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이 진행 중인데 이제까지 통상 납북



은 그 이산가족 상봉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통상 10%, 예를 들면 보통 100명 정도 만나는데 10명 정도를 끼워 넣기 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는 납북자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어떻게 표현했냐면 6. 25전쟁 시기 및 그 이후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 납북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남북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남한 정부에서도 북한 정부의 눈치를 보고 북한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남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산가족을 많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납북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납북사실을 인정하면 자기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납북이라는 표현도 못하게 했고요. 기본적인 생사확인조차,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이즈미 전 총리 대표단이 일본에 가서 그 당시 아베 전 총리도 갔었지요? 당시에 김정일과 만나서 일본인 납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일본에 가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은 일본 국적자를 납치한 적은 있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좀 예외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인정을 했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다 더 가까운 한국의 경우에는 왜 인정을 하지 않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KAL기 납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당시에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돌아왔는데 오히려 젊고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근데 국제사회와 다른 국제기관들이 왜 이 점을 더 규탄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중국여객기 외에도 평양으로 가는 국제선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 안준호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확실하고 다른 나라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납북자 분들이 가장 한스럽고 통탄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왜 북한이 일본 납북자는 인정하면서 한국납북자는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인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부족했다. 물론 일본이 고이즈미 총리가 가고 북한에 많은 액수의 돈을 주고 그리고 일본 납북자를 데리고 갔지요. 물론 한국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은 돈을 퍼줬다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사람의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고 8명 돌아오신

분들도 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몰래 탈출시켜서 그렇게 데려온 건데요. 먼저 일본하고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게 일본정부의 주장은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본납북자는 한국납북자 517명에 비하면 소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KAL기에서 젊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한국에서 붙잡힌 간첩이나 그다음에 북한에서 살다 오신 오길남 박사, 통영의 딸 신숙자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KAL기 납북자의 젊은 분들은 대남방송 그러니까 남쪽을 향한 체제선전방송에 종사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돌려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네 체제선전이나 활용을 돌려보내주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산가족 상봉 장소에서 가끔 아주 간헐적으로 나오는 납북자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대부분의 납북자 분들에 비해서 북한에서 살기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나마 북한에서 살기가 좀 나은 분들을 북한에서 선별해서 내보낸다고 저는 그렇게 돌아오신 납북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정부에서는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에 돌려보내줬고요. 비전향장기수의 유해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생사확인조차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8월에 나온 전옥표 씨, 거제호 오대양호의 선원이신데요. 이분과 함께 배를 탔던 박두현 씨는 아직 돌아오시지 못했고 북한에서 사망 통지서만 왔습니다. 사망일자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부인이신 유우봉 할머니는 2007년도 음력으로 7월 15일 날 남편의 사망소식을 듣고서 우울증을 앓다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남한에서 이분의 제삿날이 바로 21일 엇그저께였습니다. 남한에서는 이게 중국이나 동양문화에서는 매년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사확인 안 되기 때문에 사망날짜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그게 중국문화를 포함해서 동양문화인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면 음력 9월 9일 날 제사를 지내십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시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 듣고 스스로 자살을 하신 겁니다. 북한은 납북자 그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고 오늘 굉장히 긴 하루였는데요. 저희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들은 이런 슬픈 호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될 할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 릴리안 리

여기 한국에서는 저희가 가족 분들을 많이 면 접을 해봤는데요. 사실 입증해야 된다는 책임이 가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공산

당도 아니고 그리고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족들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지금 북한에 사람들이고 가족들도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가족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지만 치료나 이러한 도움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통일부나 다른 정부가 정확하게 이 납북자 문제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향후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 사안들을 과연 포함시킬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존여부요. 살았다, 죽었다. 그 이상을 저희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여부만 아는 것만으로도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마르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기자님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 ○ 안준호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지금 이미 한국에 돌아오신 여덟 분의 전후 납북자가 계십니다. 여덟 분을 가능하면 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북한이 납치범죄를 저질

렀다는 산 증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취재를 통한 간접적인 증언밖에 드릴 수 없지만 COI 조사 위원분들이 이분들을 만나신다면 북한의 납치범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증언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OI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또 이분들이 중국으로 탈출을 했을 때 중국 공안이 이분들을 잡아서 다시 북송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분들은 중국까지 탈출 했어도 다시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될까 봐 불안에 떨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도 북송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까지 와서 조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마이클 커비

최근에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의 가족이었나요. 이 분들을 북한으로 북송 안 하고 이 중에서 대한민국 여권 있는 분들은 남한으로 보내고 또 북한 조선의 국적자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보낸 그 경우는 그나마 중국이, 이게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고 난 뒤 사례인 것 같은데 중국이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중국으로 간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남한으로 보낸 사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분의 가족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 안준호

김광호 씨 가족인데 김광호씨 가족 같은 경우에는 김광호씨 부인, 딸아이는 한국에 돌아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두 명 처제 처남은 북송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북송됐는지 아니면 아직 중국에 억류돼 있는지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고요. 납북어부 최옥일씨라고 2007. 1.에 그 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007. 1.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이분도 30년 넘게 북한에서 억류돼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이 분이 나오셨을 때 저희가 중국에서 이분을 만나 제가 인터뷰를 하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당시 한국 정부도 납북자 문제,

## ○ 마이클 커비

이분이 북한에 몇 년 계셨다고요?

## ○ 안준호

최옥일씨는 1975년도에 납북이 돼서 2006. 12.에 탈출을 하셨으니까 31년 계셨습니다. COI조사 위원 세 분 말고 COI조사관 분들이 이미 만나서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보도하고 문제가 커지자 중국 정부에서도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중국 정부에서도 납북자 문제는 탈북자 문제와 달리 조속히 한국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분 다음에 나오신 분이 이한섭 씨가 나오셨고 그다음에 윤종수 씨가 나오셨는데 이분도 2007년도에 나오셨고 제가 중국에 가서 인터뷰를 다 했었습니다. 윤종수 씨는 2009. 2.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잘, 잠시 헷갈리는데요. 2007년인지 2008년인지 중국에서 이 분이 탈북 하셨을 때 제가 가서 만나봤습니다. 인터뷰를 다 했는데, 이분은 당시 한국 정부에 신병인수가 돼서 거기에 계셨는데 이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앞서 최옥일 선생은 12일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열흘 만에 들어오신 최옥일 씨나 윤종수 씨나 똑같은 배 천황호를 타고 납북이 됐던 분들인데 최옥일 씨는 12일 만에 들어오신 반면에 윤종수 씨는 8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에서 이분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의 입장이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저는 봐서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접 여덟 분을 만날 수 있다면 저희가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덟 분이 서울에 사시나요, 아니면 수도권 밖에 사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 ○ 안준호

여덟 분의 주소는, 오늘 증언 나오셨던 이재근 선생님은 서울에 사시고요. 제가 귀환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근 선생님은 서울에 사셨고 아까 증언하셨고요. 진정팔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나오신 후에 압으로 돌아가셨고요. 김병도 선생님은 통영에 사시고요. 고명섭 선생님은 강원도 쪽에 사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어디에 사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일 씨는 수도권 안산에 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한섭씨도 수도권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능산 씨는 제주도에 살고 계시고요. 윤종수 씨는 지금 현재 저도 연락이 안 돼서 어디에 사시는지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조사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한국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협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일을 하고 있고 사무국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

다. 시간을 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교통편도 준비하고 안전한 부분도 확보하고 통역사도 확보하고 저희가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기록에 더 훌륭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은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에 관련해서 계속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요. 내일 공청회는 오전 9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통역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고생해 주신 통역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